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월 23일 수요일 (주간) | 제 353 호



법석 조대 **서옹 스님** 백양사 방장



"생사문제 해결은 화두가 열쇠지. 죽을 날짜가 코앞에 닥친 사형수가 도망가듯이, 화두에 들어 '이놈이 뭘까' 자꾸 의심하면 긴장이 한 덩어리로 돼 의식자체를 초탈해버리는 눈이 일시에 열려"

"본래 자기의 모습이 참사람이야. '참나'를 되찾으면 나와 남의 대립, 시간과 공간의 일체를 초월해"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뉴스속 뉴스 news in news

포교사단의 장의봉사

일본인은 죽으면 종교를 막론하고 사찰로 가지만, 한국인은 산으로 간다. 일본은 2차대전 패망후 8천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95%의 국민이 불자인 나라다. 우리는 같은 시기에 80여명에 불과한 선교사가 입국했지만, 기독교계통의 선교성과는 불교세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일본의 사찰들이 장의문제를 도맡은 반면



한국의 사찰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인간에게 생사(生死)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불교계는 망자(亡者)와 유족들을 위한 장의(葬儀)포교를 소홀히 해왔다. 따라서 임종시 장의로 인해 개종하는 불자들이 부지기수였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의 장의봉사특별위원회는 최근 〈장의봉사 의식집〉을 발간하고, 다음과 같은 장의염불봉사 지침을 정하는 등 본격적인 장의포교에 나서고 있다.

"유족 편의를 우선해 염과 성을 다해 봉사한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유족이나 필요이상의 불편이나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 상장례 절차에 조언은 하되,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다."

전국 18개팀 250여 포교사로 구성된 장의봉사특별위원회가 장의염불봉사에 나선 것은 2년전. 불교계의 무관심 속에 불자들이 타종교의 장의선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점차 빈번해지자, 포교사들은 가장 힘든 장의포교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평생 불심을 쌓아온 불자들이 스님과 불자들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것 역시 포교사로서 외면할 수 없는 포교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생업에 기는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 스님들로부터 의식교육을 받고, 매달 평균 5~10여회 연고를 맺고 있는 병원과 영안실을 찾아 장의염불 무료봉사에 나섰다. 장의염불은 스님들만 하는 것으로 아는 인식부족과 상업적인 장의업자로 오인받는 어려움 등 많은 난제를 해결하며 가장 효과적인 포교방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최원일 장의봉사특별위원장은 "장례발생시 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사회에 회향하는 가장 뛰어난 포교"이라고 말했다.

김재경(취재 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결혼과 종교

1. 결혼에 있어 종교가 어느 정도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가.
   ①매우중요하다 ②중요하지 않다 ③반반이다.
2. 부부는 종교가 같아야 한다고 보는가.
   ①반드시 같아야 한다 ②가급적이면 같아야 한다.
   ③달라도 상관없다 ④달라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
3. 불자님은 결혼을 위해 개종할 수 있는가?
   ①있다 ②없다

설문 참여: 1월 24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54호 9면에 싣습니다.

불교NGO, 국제지원 활발

진각종 · 경불련 - 네팔서 교육불사 JTS · 재가연대 - 인도불교 부흥 후원

불교NGO들의 국제 지원사업이 어느해보다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진각종과 경불련, 한국불교도움기구가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의 교육사업에, JTS와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 선우 등은 인도불교 및 티베트 난민 지원사업에, 진각복지재단은 스리랑카 복지지원 사업에 각각 나선다. 지구촌에 불국정토를 실현하려는 불교NGO들의 이같은 보살행은 한국불교의 세계화 및 참여불교운동 활성화에 봄을 불일것으로 보인다.

경불련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3월경 네팔 직업훈련센터 졸업생을 중심으로 공동작업장과 허브와 버섯 등을 키울 실험농장을 건설해 네팔인 자립경제의 기반을 다진다. 또한 올 상반기 내로 초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무료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불교기아대책기구는 최근 '자비의 종'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한 3만불의 기금으로, 2월중 네팔 포카라 지역에 중학교 건립을 위한 첫삽을 뜬다. 년말까지 학교가 완공되면 네팔어린이들에게 컴퓨터, 한국어 및 영어, 직업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각종은 네팔 현지에서 운영중인 컴퓨터 교육과 장학사업을 포교에 연결, 네팔 불교청년회의 조직을 활성화시킨다. 현지 포교와 인재 양성을 위해 네팔과 스리랑카 학생들을 3월경 한국에 초청, 대학교육도 시킬 방침이다.

인도불교 재건을 위한 사업과 티베트 난민 돕기도 본격화 된다. 인도에 수자타아카데미, 지바카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JTS는 상반기내에 기술중학교를 완공하고, 하반기에 전정각산 명상센터 등 8대 불교성지 각각의 특색에 맞는 불사에 들어간다.

참여불교재가연대와 우리는선우, 종단협,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현대불교신문 등 6개기관은 '인도불교 돕기'를 구성, 올해부터 인도 불가촉천민 불교개종운동을 지원한다. 이들 단체들은 범세계불교교단우의회(TBMSG)가 보내온 사업 계획을 보완해 2월중 첫 지원 사업을 확정한다.

티베트불교 지원사업에도 나선 재가연대는 초파일 무렵 국내 종교 대표들의 다람살라 방문에 이어 티베트 난민촌 돕기, 티베트 학생 유학 초청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스리랑카 사회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진각복지재단은 5월경 한국문화홍보관을 건설해 한국 문화 알리기에 나서고, 하반기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사를 파견한다.

재가연대 정웅기 국장은 "올해 불교NGO들의 인도 네팔 등의 지원활동은 힌도교도들의 조직적 탄압과 열악한 재정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들국가의 불교가 되살아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단기출가한 어린이들

김천 직지사는 14~19일 동안겨 어린이 단기출가 수련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34명의 어린이들은 참선, 다도, 명심보감 등을 배우며 겨울방학을 뜻깊게 보냈다. 사진은 17일 행다를 진지하게 익히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 직지사=고영배기자

"자동차로 경내지 통과 관람객 아니다" 판결

서울지법 천은사 관련 조계종 "빠른 시일내 상고"

문화재 관람 의사 없이 자동차를 타고 사찰 경내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이용할 경우 '관람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석호철)는 17일 참여연대가 천은사를 상대로 한 2심 소송에서 합동징수 방법과 경내지 개념에 대해서는 조계종의 입장을 인정했지만, 원고인 전동일이 도로를 이용한 이동과정이었던 것인 만큼 문화재관람료 1,000원을 돌려주도록 하라는 제한적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로개설로 인해 수행환경과 문화재보호가 지장을 받는 천은사의 피해는 도로 점유자인 전라남도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판결문중 천은사 도로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통도로라는 점을 간과하고 공익도로라는 사실만 부각한 이번 판결로 인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전승에 대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내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도 17일 논평을 통해 "일주문을 경계로 한 사찰의 관람료 징수나 통합징수의 부당성 등이 충분히 지적되지 않는 제한적인 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분규 '마무리'

총무원 - 비대위 '징계무효' 등 합의

태고종이 1년여를 끌어온 분규를 마침내 마무리짓고 화합을 이뤄냈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운산)을 대표한 혜공스님과 비상대책회의(의장 철화)를 대표한 지홍스님은 15일 서울 성북구 총무원청사 회의실에서 협상을 갖고 5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00년 11월 23일 개최된 제79회 중앙종회 이후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종무행정을 인정하고 이후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시비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징계부분을 원천 무효화하고 사찰 주지직과 중앙종회의원직에 복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회의는 17일 오전 11시 해단식을 갖고 창신동 원각사에 걸었던 현판을 내렸다.

태고종은 이어 17일 신촌 봉원사에서 제84회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종단화합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종단소요사태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폐기하고 이 법에 의해 징계받은 자체를 원천무효화시켰다.

태고종은 이날 종회에서 양측의 진정한 화합의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비상대책회의측 인사가 다수 포함된 승정, 부원장, 부장 인사를 모두 인준함으로써 종단 화합인사를 단행하였다. 또 원로회의법 등을 새로 제정하는 등 제도 개혁 차원에서 일부 종헌 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2 · 3면 이경숙 기자



◇15일 합의문에 서명하고 화합의 악수를 나누고 있는 혜공(오른쪽) 스님과 지홍 스님.

"기념관 3월 착공 … 사면 희망적"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 15일 신년 기자회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5일 4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종단 출범 40주년을 맞아 종단 안정과 화합, 종단의 수행가풍 진작과 개혁, 사회적 역할 증진을 통해 민족종교, 수행종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이를 위해 "동안거 해제(2월 26일) 이후 3월 초 순경 종정추대가 이뤄지도록 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중순에 준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의 북은 현안인 조태분규사찰 문제와 종단 징계자 사면복권에 관해서도 스님은 '희망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 태분규사찰 문제와 관련해 스님은 "조계종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윤곽을 다 짜놓고 있는 만큼 대동화합 차원에서 태고종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징계자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사면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종헌개정안의 처리를 3월 종회때 요청하고, 새로 종정스님이 추대되면 단안을 내려달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 · 3면

김원우 기자 wakim@buddhapia.com

제7회 신행수기 시상식 2월 2일(토)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팔모접등 팔모초립등 공단등



종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액업과 고통을 없애게 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된연등용 전선 케이블 ▼



만월등



◆ 연등업 허가등록 (특허 제122165호) / 찰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68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이남시 존궁동 180-1
전화:031)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사 설

조계종 정체성 찾으려면

조계종이 통합종단으로 출범한지 40년을 맞았다. 조계종의 40년을 돌아보면 60년대는 역사의 질곡 속에 휘말리며 비구 대처 분규라는 심한 몸살을 앓았고, 70년대는 터 잡기에 안간힘을 쓰느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80년대에는 연이은 종권다툼으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으며, 90년대에는 내홍의 여진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찾을 겨를이 없었다.

40년간의 긍정적 성과라면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전통종단, 장자종단이라는 대표성을 확실하게 획득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비로소 안정 속에 개혁에 힘쓰는 모습도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조계종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아직 많다.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새해 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전통종단으로서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종단 안정과 화합·수행가풍 진작과 개혁, 사회적 역할증진을 언급하였다. 덧붙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피력하였다. 진취적인 의지가 돋보이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 과제는 수행가풍 진작과 개혁이다. 그것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종단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는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조계종은 여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하며, 전시적 · 일회적 성과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조계종은 불교적 이념을 종단에 깊이 뿌리내리고 사회로 회향할 수 있도록 거듭 나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자문역할을 해낼 수 있는 종단으로 우뚝 서야 한다.

태고종 제2 창종 기대

중국선종의 사상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경전으로 알려진 〈유마경〉 방편품에는 다음과 같은 멋진 말씀이 있다. "갖가지의 다른 길(異道)을 받아도 바른 믿음을 훼손하지 않으며, 갖가지의 4거리에서 노닐어도 중생을 이롭게 한다." 출가자의 본분을 지적한 것이다. 다양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그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편과 각종의 세계에 영합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이 다양한 만큼 보살도를 실천하는 수행자들의 모습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체 중생을 부처의 세계로 안내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상대적 가치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양쪽으로 갈려 팽팽하게 대립해 왔던 태고종이 15일 분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내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불교 발전과 시대에 부응하는 종지종풍을 선양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태고종의 종단분규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던 종도들 내지 불자들에게 크나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종단화합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종단제도개혁에 착수하고 화합차원의 인사까지 단행했다니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여세를 몰아 조계종과 분규사찰문제를 해결하면서 제2의 창종이란 정신으로 결속을 다진다면 그동안 흐트러졌던 종세를 추스리고, 실추된 태고종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모아진다.

태고종 스님들뿐 아니라 신도들도 마음을 합해 시대요구에 부응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단이 되도록 환골탈태의 변화를 이루고 전통 종단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템플 스테이 · 영산재 · 어울림한마당 등

'월드컵' 중 다양한 문화행사

주요종단, 한국불교 홍보 전략마련

태고, 천태, 진각종 등 불교계 주요 종단들이 월드컵 기간 중 외국인 포교를 위한 템플 스테이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벌인다.

조계종이 월드컵을 전후해 운영하는 '템플 스테이'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이들 프로그램은 각 종단의 전통과 특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오는 4월 서울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2002 한일월드컵 성공기원 범불교도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해 불교계의 화합과 우의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통리원과 대구교구청 및 심인당과 연계한 '템플 스테이'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진각종은 법회의식 및 염송 등 진각종만의 독특한 전통을 외국인들에게 이해시킨다는 방침아래 밀교의식 시연 및 비디오 상영 등 세부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청년회 및 신도회원들의 집을 민박으로 운영, 외국인들이 교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법회에도 참석하는 등 진각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도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지역의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템플 스테이'를 운영한다. 부산 삼광사는 천태종의 수행가풍과 문화에 중점을 둔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사찰을 관광코스로 지정해 외국인들에게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투어' 형태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울산 정광사, 서울 관문사, 대전 광수사도 '템플 스테이'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종단과 협의 중에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월드컵을 전후한 5 · 6 · 7월에 걸쳐 60일간 서울 봉원사에서 매일 한차례씩 영산재를 시연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스님들이 선보일 영산재는 불교전통문화의 진수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총지종(통리원장 혜암)은 불교문화와 종단 홍보를 목적으로 5월말 부산에서 월드컵 성공기원을 위한 음악제를 개최하며, 관음종(총무원장 홍파)도 5월경 월드컵 성공기원 대법회를 열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종단협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불교지도자들은 불교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할것을 다짐했다.

국운 융성·남북통일 기원

종단협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46(2002)년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국운융성과 남북통일을 기원했다. 이날 정대스님은 법어를 통해 "올 한해는 탐욕을 버리고, 청정한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도록 정진하자"고 말했다.

신년하례법회에는 운산(태고종 총무원장) 운덕(천태종 총무원장) 효암(진각종 통리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지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무비(조계종 교육원장)스님, 서돈각 진흥원 이사장, 문화관광부 남궁진 장관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신행혁신 5계학교 3월 첫 개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10일 신행혁신실무단을 구성하고 오는 3월 제1차 5계학교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신도회는 조계사, 봉은사를 중심으로 3월중 1차 5계학교를 열어 평가회를 가진 후 6월중 2차 5계학교를, 9월중 3차 5계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중앙신도회는 5계학교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교본을 마련하고 5계실천운동본부도 결성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재가자도 학장취임 가능"

전국불교대학 대표자회의 조계종 포교원 의견수렴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안)'이 지난해 말까지 입법예고 된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오는 2월 1일 종령 시행에 앞서, 17일 전국 불교대학 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쟁점이 된 사항은 신도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의 입원 자격과 수강생 자격, 인가 요건 등. 포교원은 스님으로 한정했던 신도전문교육기관 학장의 자격을 수정해 재가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학장의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 또는 신행경력 10년,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조계종 신도로 의견이 모아졌다. 학장의 임명은 전문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포교원의 승인을 받아 포교원장이 임명(기존 령은 불교대학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강생은 반드시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는 규정은 입학 후 6개월(또는 1년)이내에 신도기본교육을 수료할 경우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첨부될 전망이다.

또한 신도전문교육기관의 명칭은 '불교대학'으로 정해졌으며, 인가받지 못한 기존의 불교(교양)대학은 '불교교양대학'으로 부르기로 했다. 교육기간은 1년 이상 32주(128시간)이상 수업으로 정했으며 수련회 성지순례, 철야정진 등은 교육시간의 10%내에서 30시간 내외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강원 수료자로 입학자격 제한

승가대학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16일 교육원 회의를 열고 승가대학원 3기 학인모집과 관련해 입학자격 및 수업연한을 확정했다.

입학자격은 기존에 종단 기본교육기관 4년 과정(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수료자도 지원 가능했던 것을, 반드시 강원을 수료해야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승가대학원이 강사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강원교육을 받은 자에게 입학자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빚어졌던 수업 연한은 당초 2년으로 개정키로 한 방침을 철회하고 종전의 3년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승가대학원 원서 접수마감은 2월5일까지다.

한명우 기자

자성학교 교사 유급제 시행

진각종 포교부

진각종 포교부(포교부장 혜명)는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성학교(어린이 불교학교) 교사 유급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자성학교 교사 유급제는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어린이 포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불교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불교 NGO 세계로…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부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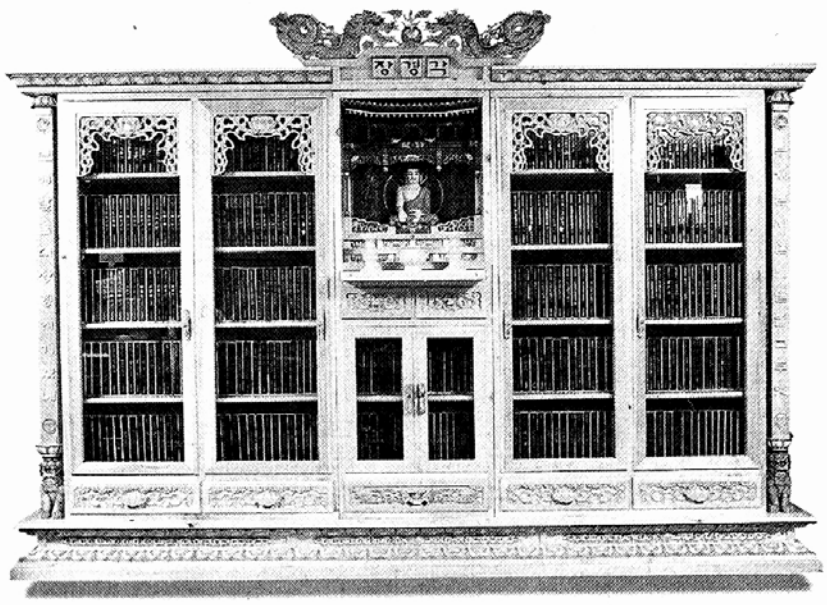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하나비자카드로 봉인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하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하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 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하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 1질(4백 77만원)을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 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교단개혁 가속… 정보 인프라 구축

조계종 올 사업 주요 내용


불기 2546(2002)년 1월 15일

◇조계종은 15일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통합종단 출범 40주년을 맞아 전통종단으로서 문화 · 종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민족종교 · 수행종단 정체성 확고히
외국인 전통사찰 문화체험 추진

3월 종정추대 및 본격적인 사면논의, 불교문화기념관 착공, 5월 템플스테이 실시, 10월 제13대 중앙종회 구성, 조태 분규사찰 문제 해결, 조계종학 및 수행체계 연구, 조계종사 편찬 기념법회 사진전세미나 개최 등 통합종단 40주년기념행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15일 밝힌 올해 주요 사업계획이다.

통합종단 출범 40주년을 맞는 조계종이 제시한 올해 청사진은 내실화 가속과 한국불교의 정신과 자원을 내 외국인들에게 향유케 하여 한국불교의 저변확대로 압축된다. 이는 다종교사회에서 불교의 역할과 위상을 위해 교단이 거듭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그동안 사회적 물의와 비불교적 수단이 등원되는 부작용이 유발되어 사회적 질타와 종도간 갈등과 반목도 있어 왔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혀, 스스로 변하고 준비하는 속에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이다.

◑**한국불교역사기념관 3월 착공**: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뤘던 불교역사문화의 체계적 보호와 전승을 목적으로 조계사 경내에 세워지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지하4층 지상4층 연건평 5천212평 규모로 3월에 착공하여 내년 중순에 준공한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한국불교문화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실과 수장고를 갖춰 불자들과 일반 국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예술 공연 및 전시장, 국제회의장을 갖춰 체험의 공간으로 제공된다.

◑**통합종단 40주년 기념사업**: 조계종은 통합종단 출범 40주년을 맞아 전통종단으로서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정신적 물질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한국불교의 현대사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조계종학 및 수행체계 연구, 조계종사 편찬, 기념법회, 사진전, 세미나 개최 등을 준비 중이다.

안정과 화합, 종단의 수행가풍 진작과 개혁, 사회적 역할 증진을 통해 1600여년의 민족종교, 수행종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의제연구 및 개선추진, 승가고시 및 법계정착, 중앙신도회 활성화, 조계사 성역화 사업, 군 법당 종단등록, 사찰 성보박물관의 기능을 활성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멸실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국문화 진수 개방**: 올해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때를 맞아 민족의 종교를 대표하고 한국문화의 진수를 간직하고 있는 전통사찰을 개방하여 외국인 대상 전통사찰문화체험(temple stay) 사업을 추진한다.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20여 사찰에서 40일간 시행하는 템플스테이 사업과 관련 정대스님은 "현재 정부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코끼리 코의 비스켓' 처럼 턱없이 부족하지만 기존의 사찰시설을 잘 활용하여 1백억원대의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보인프라 구축**: 내외적 과제 달성과 비전을 위해 시대적 과제인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종단 종무행정의 체계화를 갖춰 나간다.

이를 위해 교구본사 종무행정 전산화, 체계화 지원에 역점을 두고, 홈페이지의 온라인 종무행정 서비스 체제, 교계인물 인력풀 구축, 종단 보존문서 정비, 종단 외국어 표기 표준화사업, 미등록 사설사암 종단 등록추진, 불교종합정보망(달마넷) 활성화를 추진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동국학원 횡령 본질은 시스템 붕괴"

조계종 중관위 진상조사… "이사 총사퇴" 요구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혜담)는 18일 종회 사무처에서 제38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국학원 횡령사건과 관련 이사장 녹원스님, 감사 향적 무관스님, 안재봉 법인총무팀장에게 민 형사상 책임 물을 것을 재단에 요구했다. 또 동국학원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스님 감사들을 종단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3월 종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논란을 거친 뒤 어떤 형태로든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산하 동국학원 진상조사 소위원회(위원장 영담, 이하 진상소위)는 "이번 법안사무처 직원인 김태규의 동국학원 법인세 환급금 34억여원 횡령사고가 시스템의 붕괴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진상소위 조사에 따르면 공금횡령이 2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2000년 동국학원 워크숍에서 포항병원 관계자가 법인세 환급금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고, 2001년 5월 동국학원 소위원회에서 영배스님이 동국학원 및 학교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법인세 환급금 미납 확인을 요청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6월 23일 추가로 13억여원이 빠져나가는 불상사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23일 중부세무서의 법인세 환급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김태규를 불러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은 법인사무처 팀장이 17일이 지난 11월 12일에야 이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결손금 확보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진상조사 소위는 이 같은 사실에 바탕하여 직인관리소홀 및 경리사고의 책임을 물어 법인사무처 안재봉 총무팀장과 동국대 황영수 사무처장에 대해 재단과 학교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진상소위는 공금횡령에 따른 법인세환급금 34억여원(동국대 27억, 동대부중 등 산하 중고교 7억)의 횡령재산 회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진상소위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김태규 장인과 장모가 직접 가져온 2억원 이외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태규가 10억을 투자한 역술사이트의 경우 1억원의 증권증명이 있으나 상장이 되지 않아 휴지조각에 불과하며, 안산의 부동산 업자 황 모씨에게 투자한 4억원은 24억짜리 문구점 어음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영수증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금횡령금액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책임소재가 이슈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우 기자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제도개혁' 닻 올린 태고종

17일 중헌 중법 개정안 통과

1년여의 내홍을 마무리짓고 종단화합을 이룬 태고종이 17일 열린 제84회 임시 중앙종회에서 종헌종법 제 ·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본격적인 제도개혁의 닻을 올렸다. 이번 제도개혁안은 총무원장 운산스님 등 집행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종도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도개혁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이다. 우선 태고종은 그동안 4부중으로 돼 있던 종단 구성을 출가승과 신도(우바이 우바새) 외에 전교사 제도를 넣어 6부중으로 했다. 전교사(傳敎師)란 재가승을 지칭한다. 과거의 유발승 제도를 새롭게 공인해 대승교회종단으로서의 특색을 살리겠다는 취지이다. 또 종회를 상하 양원제로 해 종단 주요사안에 대한 원로 중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했다. 그리고 교육원 포교원 홍보원 복지원 등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고유 업무를 강화하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 이와 아울러 사찰등록 및 주지 임명, 승적업무, 재산관리 등 총무원 업무를 지방 교구종무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지방교구의 자치권을 강화시킨 점도 눈에 띈다.

교육원 · 포교원 신설
원로 권한 대폭 강화
지방교구 자치권 부여

한편 원로회의법을 새로 제정해 원로들의 권한을 확대했다. 원로회의는 종단의 최고 상의회 기관으로 비상사태시에 종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종정 추대권 뿐 아니라 종헌개정안 인준권, 총무원장 인준권 등 종단 중요사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

원로회의 의원은 의원정수의 70%는 지방종회 의결을 거쳐 각교구별 종무원장이, 30%는 총무원장이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했다. 원로회의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자격은 승랍 40세 이상 연령 65세 이상 법계종사 이상.

또한 총무원 산하 전문기관으로 종전의 종승연구원, 전통불교문화원, 국제불교문화원 외에 재정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원, 홍보를 담당하는 종정홍보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중앙복지원을 새로 설치했다. 태고종이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재정문제의 해결과 종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또 종단의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원, 포교업무를 담당하는 포교원을 각각 두었으며, 기존의 사정원이 사법기관으로서의 재판기능을 강화한 중앙호법위원회로 바뀌었다. 법규위원회도 지위가 격상돼 종단의 법령을 심사하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국가헌법심판소와 같은 기능을 갖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태고종은 이번 제도개혁을 종단정체성 및 위계질서 확립, 종무행정의 효율성, 종단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인사의 적재적소 기용과 크게 늘어난 재정문제 해결이 제도개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이번 종헌종법 제개정을 계기로 전통종단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고 대승교화종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종단발전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84회 임시종회에서는 혜초, 일우, 남파, 법장, 연운, 인곡, 철화, 혜경, 제공 스님 등 9명의 원로스님을 승정으로 새로 추대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태고종 '자리' 많아졌다

정무담당 부원장 - 원봉 스님
재정담당 부원장 - 수종 스님
행정담당 부원장 - 자월 스님


◇원봉 스님


◇수종 스님


◇자월 스님

태고종은 17일 총무원 부원장에 원봉, 수종, 자월 스님, 총무부장에 월해 스님 등 총무원 간부진을 대폭 확대했다.

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인사는 특히 구 비상대책회의 측 스님들을 대거 동참시켜 종단운영을 함께 하도록 했다. 이번 인사는 다음과 같다.

△정무담당 부원장: 원봉 △재정담당 부원장: 수종 △행정 담당 부원장: 자월

△기획감사실장: 혜공 △총무부장: 월해 △교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지홍 △사회부장: 일로 △규정부장: 경담 △사업부장: 호명 △교임부장: 동우 스님


◇혜공 스님


◇월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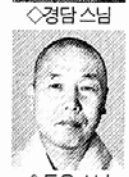

◇법성 스님


◇지홍 스님


◇일로 스님


◇경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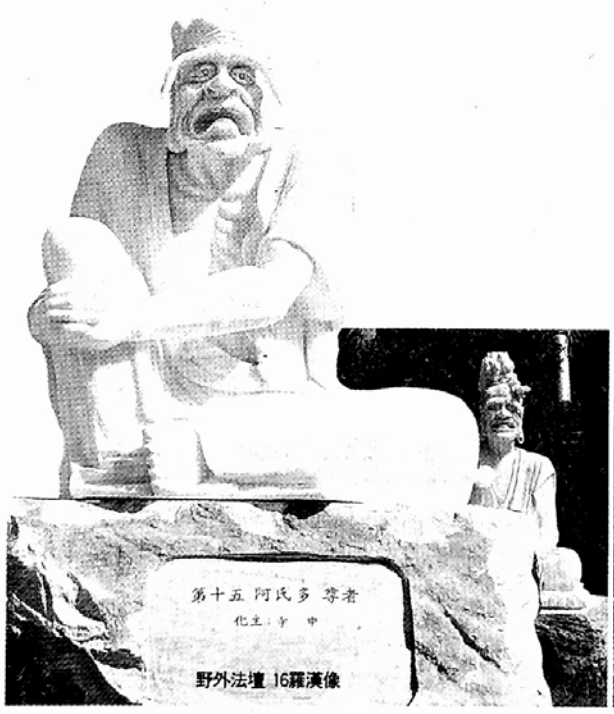

◇호명 스님


◇동우 스님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 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02) 864-8834 부산(051) 637-2333
Fax 서울(02) 839-2185 부산(051) 637-6888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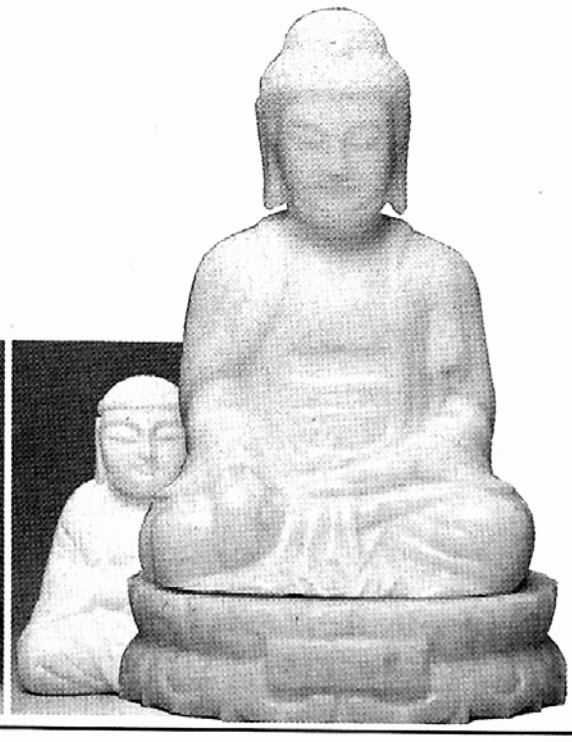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 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 造成한 圓通
慈悲하신 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通聖像
二五四五年 二月 二十一日
小林西翁謹書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추천서


第十五 阿氏多 尊者
野外法壇 16羅漢像









일주문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광우 전국비구니회장은 비구니회 임원진과 함께 16일 오전 10시 신년하례차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을 예방했다.



금정구 복지관장 취임

정여 범어사 재무 스님은 21일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기념식에서 관장으로 취임했다.



월드컵 성공기원 법회

춘광 서울 서초사암연합회 회장은 15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 '월드컵 성공기원 연합대법회'에서 법문했다.



'염불선과 일상생활' 설법

주경 강릉 성원사 주지는 20일 부산 금강사 대법당에서 '염불선과 일상생활'이라는 주제로 법문을 했다.



성도재일 기념법회 봉행

부불 천안 천불사 주지는 17일 천불사 대법당에서 부처님 성도절 기념 및 월드컵 개최 성공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日 큐슈산업대와 교류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16일 총장실에서 일본 큐슈산업대학(총장 야마사키 요시야)과 학술교류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경주 동국대 부총장 취임

김영종 동국대 사회과학 대학원장(행정학과 교수)은 17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총장으로 임명됐다.



제자 마련 고희연 참석

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자와 지인들이 마련한 고희연에 참석했다.

청호불교문화원 **이종대 이사장**



동미화학공사의 창업자이자 청호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인 이종대 씨가 16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이종대 이사장은 91년 재산을 희사해 (재)청호불교문화원을 설립, 불교경전강의와 문화·복지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불교음악 앞당겨 대중화" 서원

임오년을 뛰는 불자 ③ 삼보불교음악협회 총무 안병길 씨



불음포교의 현장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미래를 내다보며, 임오년 말띠 해를 뛰고 있는 삼보불교음악협회 총무 안병길 씨(44·지휘자).

지난 1988년 조계사 어머니합창단의 노래 지도를 맡은 것을 계기로 불교음악계에 발을 들여 놓은 안씨는 요즘 삼보불교음악협회에서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신도용 찬불가〉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1300여곡의 찬불가 가운데 음악성과 대중성이 뛰어난 400곡을 엄선해 한권의 책으로 담아내는 불사의 실질적인 총 책임을 맡았기 때문이다. 〈신도용 찬불가〉는 삼보불교음악협회가 2000년 발족할 때부터 발원해온 불사로 지난해 3월 김동환 교수(중앙대 음대), 정부기 교수(중앙대 음대), 이상규교수(한양대 음대) 등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주축으로 본격적인 작업을 해왔다. 안씨는 편찬위원들을 도와 이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앞당기는데 한몫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하루아침에 불교음악의 대중화가 이뤄지겠습니까? 대중가요도 그렇듯이 많이 불려져야 좋은 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찬불가가 많이 불리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도용 찬불가〉의 제작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찰 법회나 행사에 가보면 이렇다할 찬불가 교본이 없어 다들 악보와 가사를 복사해 들고 다니기 일수였거든요. 〈신도용 찬불가〉가 제작되면 모든 사찰에서 〈법요집〉을 사용하듯 법당 한편에 이를 배치해 놓고, 법회나 행사 때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안씨는 〈신도용 찬불가〉가 첫 선을 보이는 오는 4월 11일 세종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는 동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기념 음악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안씨가 추진하는 일은 '불교음악회관' 건립이다. 삼보불교음악협회 이사장인 운문스님이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기증한 서울 구기동에, 스님의 뜻을 받들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불교음악회관을 세우는 것. 삼보불교음악협회 전 회원과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될 이 불사 역시 안씨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불교음악 자료실 겸 연구소로 사용될 불교음악회관이 완공되면 모든 불교음악인이 불교음악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불교음악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되도록 꾸려나갈 계획이다.

삼보불교음악협회 총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안씨는 서울 수유리 보광사와 혜화동 영산법화사, 경기도 안양 지장선원 등의 합창단 지휘자로도 바쁘게 뛰고 있다.

"예전과 달리 스님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찬불가를 지도해 줄 지휘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하는 안씨는 "하지만 전국 400여개 이르는 사찰 합창단에 비해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지도자가 200여명 정도에 불과하고, 게다가 지도자로 활동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형태"라며 뼈아픈 지적을 서슴치 않았다. 지도자 육성 또한 시급한 과제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안병길씨는 올해 삼보불교음악협회 차원에서 지도자양성을 위한 교양강좌와 세미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400곡 엄선 4월 신도용 찬불가집 출간



불교역사기념관 사업 협조 당부

정대 총무원장, 이기호 청와대 불자회장 접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4일 청와대불자회 이기호(경제수석·사진) 회장의 예방을 받고, "경제와 사회가 많이 민주화되었다"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사업과 템플스테이 사업 등 종단 일에 마음을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은 "사찰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감사드리며,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마음공부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주 법제처장관도 이날 정대 스님을 예방했다.

"禪춤 첫선 … 많은 관심 바랍니다"

승무예능 보유자 이애주 서울대 교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전통의 소리와 춤사위로 풀어내는 '선춤발표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예능 보유자인 이애주(55세,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는 오는 31일 동산불교회관 3층 법당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동산불교대학 '우리춤학과' 학생들과 준비한 '선춤'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30대 고등학교 무용교사에서 50대 주부 등 24명의 불자들이 꾸미는 이번 발표회에는 하늘과 땅에 예를 올리는 '예들이기', 전통의 소리와 춤이 만나는 '소리춤선' 등과 '우리춤기본' 그리고 불교전통의 범패인 '바라춤' 등이 시연된다.

31일 동산불교회관

지난해 염불만일회와 백담사 축전 때 춤공양을 올리기도 한 이 교수는 "다들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춤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대단했다"며 "함께 선춤을 연습해 이렇게 발표회까지 열게 되어 흐뭇하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앞으로 "불교사상과 우리의 몸짓이 만나는 선춤이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국불교 더 알고 싶어요"

티베트 갸초 스님



"티베트불교와 한국불교 모두 삿된 생각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데서 수행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일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눈푸른 티베트 갸초스님(58호주 멜버른 타라교육원장·사진). 동안거 기간을 맞아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되는 화계사 국제선원의 용맹정진 대열에 4일간 동참한 스님은 "지리적으로 먼 두 나라의 불교지만 수행자로서 추구하는 지향점은 똑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갸초스님은 미주, 유럽대륙에서 20세기 최고의 티베트 스님이라는 라마 에시 스님의 법맥을 이은 '서양인 스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75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라마 에시 스님을 친견하고 의사라는 직업도 버리고 출가했다는 스님의 이력도 이채롭지만, 라마 에시 스님이 입적에 앞서 티베트 불교계의 최대 종파인 겔룩파의 고승 조빠 린포체에게 "갸초의 공부를 점검해 달라"는 당부를 할 정도로 애제자이다.

"개원 20여년 만에 호주 멜버른에서 최고의 티베트불교 교육도량으로 키운 타라교육원을 뒤로 한 채 99년 몽골 카라쿠룸에 불교센터를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스승의 특별한 유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갸초스님은 "이는 티베트로 한정된 불교가 아닌 불법을 오래도록 전하고자 했던 스승의 뜻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갸초스님에 따르면, 몽골불교는 70년 남짓 공산 치하에서 5개 사찰에 1~2백 정도의 스님만이 남아 있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스님은 "몽골인들은 13세기에 티베트 불교를 수용한 이래 대부분 불자들"이라며 "그런 곳에서 불교를 새롭게 꽃피우는 게 스승의 유지"라고 설명했다.

스님의 방한(訪韓) 역시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됐다. 한국불교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신비감'으로만 전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화계사 용맹정진에 참여한 후 더욱 알고 싶은 한국불교가 되었다"는 갸초스님은 대원사 현장스님의 초청을 받아 17일부터 송광사 등 전남 일대의 사찰을 방문하고 이달 말 몽골 카라쿠룸으로 출국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전직 의사 … 화계사 용맹정진 대열에



일붕 선교종 신년하례 법회

일붕선교종은 15일 인천 동암사에서 '임오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무찰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동봉스님, 종회 부의장 명종 스님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동봉 스님은 "올 한해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 일반 불자는 물론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중생 포교에 나서자"고 말했다.

축 2002년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논문발표 신청자

경성, 난다라타나, 능화, 명담, 명성, 법혜, 본각, 성문, 소연, 수산, 수암, 수정, 승원, 심원, 원공, 원과, 원철, 인경, 일돈, 일문, 정각, 정운, 종명, 종범, 종석, 종호, 진월, 태경, 해주, 현광, 현성, 혜선, 혜정정사, 효탄(스님, 가나다순)
강명희, 강찬국, 고영섭, 권기종, 권오민, 김경집, 김광원, 김도공, 김무봉, 김방룡, 김복순, 김상현, 김선근, 김성수, 김성장, 김성철, 김승호, 김은정, 김양순, 김영재, 김용표, 김은정, 김재성, 김창수, 김천학, 김철, 김치온, 김태훈, 김황배, 김현남, 김호귀, 김호성, 김화, 노권용, 류호현, 목정배, 문무왕, 박경준, 박광수, 박상수, 박상준, 박서연, 박선영, 박성철, 박수호, 박영기, 박영길, 박인석, 박해당, 박화문, 배규범, 백도수, 백진순, 사토 아츠시, 서인원, 서재영, 석길암, 송성숙, 송영아, 송인성, 신규탁, 신성현, 양은용, 오지연, 원병관, 유승무, 유옥영, 윤기엽, 윤영해, 은정희, 이거룡, 이광우, 이기운, 이덕진, 이병욱, 이봉순, 이은경, 이자랑, 이재수, 이재헌, 이정수, 이정희, 이종철, 이중표, 이지수, 이태승, 이평래, 이학주, 이현옥, 이호근, 이효걸, 이효기, 이희재, 임상희, 임영정, 장규언, 장희정, 전운연, 전종식, 전중배, 정기문, 정명애, 정병삼, 정승석, 정영근, 정예경, 정우영, 조기룡, 조승미, 조용헌, 조준호, 조현춘, 지창규, 차상엽, 차승후, 차차석, 최기표, 최동순, 최성렬, 최인숙, 최종석, 키츠가와 토모아키, 하정용, 한중광, 한지연, 한해운, 허일범, 홍대한, 황인규(재가자, 가나다순)

이상 164명 (2002. 1.9일 현재)

위 학인들은 한국불교학을 위해 2002년 5월 3~4일 결집대회를 개최합니다.

⊙발표를 원하는 분은 아래로 신청하여 주십시요.

홈페이지 주소 www.skb.or.kr 전화 02)2260-3121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대 회 장 목 정 배

新 年 辭



임오년(壬午年)이라 칭(稱)하니 임오년이요
새해라 칭하니 새해라
근본은 오고, 가고라는 것이 없는 것이니
어디 생(生)이 따로 있고 사(死)가 따로 있으며
헌해가 따로 있고 새해가 따로 있겠는가
다만 임오년이라 칭하니 새해일뿐이요

우리 2천만 불자와 7천만 민족이 화합 단결하여 원융무애사상의 정신으로 조국발전과 융성한 국가로서 불국정토(佛國淨土)가 이룩되도록 힘쓸 해입니다.

첫째는 세계월드컵 축구 개최의 해요, 둘째는 한국의 중앙과 지방의 지도자와 대통령을 선출하는 한해입니다.

모처럼 세계월드컵 축제가 한국에서 거행됨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해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올해는 언어와 행동, 친절과 봉사로 밝은 동방의 큰나라 한국의 이미지와 기상을 보여줌으로써 행복하고 복된 나라 불국정토 극락세계가 따로 없는 1등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해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기와 아집, 고집과 분별심을 놓아버리고 자비와 화합의 협동정신으로 일치 단결하여 융성하고 풍성한 한해가 되기를 원하고 바랄 뿐입니다.

불자와 국민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로 따뜻하고 복(福)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6년 1월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회암 합장

법륜불자교수회 수련회 열려

법륜불자교수회(회장 배동호)는 12~13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제28차 수련회를 개최했다. 30여 회원들이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법주사 율주 혜정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다졌다. 이날 혜정스님은 법문을 통해 "경전에는 욕망, 갈애, 집착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이 담겨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는 경전을 읽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수 불자들은 '법주사의 문화재와 가람탐방'을 주제로 한 지원스님(법주사 기획국장)의 특강을 통해 불상과 전각, 석등 등이 단순한 문화재가 아닌 불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성보임을 배웠다.



한국은행 불자회 정기법회

한국은행 불자회(회장 윤주화)는 11일 정오 한국은행 시청각실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묘주스님(동국대.강사)을 법사로 초빙한 이날 법회에서 19명의 행원 불자들은 연기설을 주제로 한 스님의 강의를 들었다.

이날 〈불경전입문〉을 교재로 진행된 강의에서, "연기설(緣起說)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그 가르침의 실천은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지 않는 것으로 우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불교회는 올해부터 정우 · 묘주 스님과 김태영 · 백남수 법사를 번갈아 초청해, 매주 법회를 봉행한다.



월성원자력 반야회 신년법회

월성원자력 반야회(회장 유병태)는 15일 자체 법당 '반야선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50여 전력인 불자들은 월성원자력의 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을 불국토로 만들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이를 위해 월성원자력 반야회는 월례법회와 성지순례 외에도 지난허 7월 반야회 회원들의 타 지역 발령으로 수강생이 부족해 잠시 중단된 양남불교대학 강좌를 속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야회 회원들은 신입회원 중심으로 강좌를 새롭게 마련하고,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영 방안을 만들었다.



"현장 신행분위기 고양 주력"

강평수 공정거래위 正佛會 회장



"지난해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되면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불자들의 활동에 힘이 붙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불회(正佛會)는 이러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6일 올해의 신행을 서원하는 자리인 신년하례식을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 정불회 강평수(姜平秀) 회장(63 · 코레트신탁 대표이사, 前 공정거래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부이사관 · 사진). 그는 우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신행 현장을 찾아 나서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불자들, 특히 공무원 불자들은 소극적인 불심을 가진 것 같아 안타깝다"는 정 회장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에게 종교는 마음을 맑게 하는 청량제와 같다"며 "회원들이 창립 때의 마음을 되새겨 법회와 교리공부 등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불회는 97년 5월 이남기 現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부이사관 및 서기관 불자들이 모여 결성됐다. 강 회장 역시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 성북구 안암동 개운사 새벽예불을 10년 넘게 다니는 아내를 보고 발심, 기회 닿을 때마다 아내의 새벽길을 함께 나섰던 그에게, 로 매주 금요일 정오 불교기초교리를 공부한 것, 봉선사 등 큰 사찰을 찾아가 1박 2일간 용맹정진한 것에서 가능했다는 게 정불회 회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99년 정부과천종합청사를 떠나 수협중앙회 부회장, 코레트신탁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강 회장이 정불회를 탈퇴하지 않고 법우들과 인연을 계속 맺어가고 있는 것만 봐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정불회의 신행력이 줄어든 것 같아 부처님과 불자들에게 죄송하다"는 강 회장은 "경전공부와 용맹정진과 같은 정불회의 전통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우선 큰 스님을 찾아 뵙는 자리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 순례법회, 자비보살행을 통해 신심을 증장시키고, 현재 40명 남짓한 회원을 100명으로 확충하는 일에도 관심을 쏟겠다는 게 강 회장의 포부다.

"교리공부 · 큰스님 친견등 정례화"

초대 회장이라는 직함은 짐이 아닌 '불사' 그 자체였다.

정 회장의 마음이 회원들에게도 전해진 탓인지, 정불회는 신심 하나만큼은 어느 불자회에도 뒤지지 않는 '정예부대'로 성장했다. 잦은 출장과 외근, 구조조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 등의 이유로 기가 꺾이기 쉬운 때에도 정불회 회원들은 똘똘 뭉쳐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도반이 됐다.

이는 강 회장의 끈끈한 도반애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게 회원들의 중론이다.

한편 이날 정오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정불회의 신년하례식에는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40여 회원이 모여, △과천청사 내 종교간 대화 △복지시설 위문방문 등을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정불회는 창립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지도법사로 도움을 주었던 김정호 법사의 투병을 돕기 위해 80만원의 성금도 전달했다.

신행단체 담당=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三毒心 버리고 고객에 서비스"

공인회계사 불자회 창립
초대회장에 박노영씨



◇지난 7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전문직 불자회로서는 다섯번째로 '한국공인회계사 불자회'가 창립됐다.

한국공인회계사 불자회가 7일 오후 6시 조계사 설법전에서 공인회계사 불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박노영 공인회계사(66 · 신한회계법인 부회장)가 회장, 전상구 · 이건 · 김길원 공인회계사들이 부회장으로 선출됐고 현 불교TV이사 손기원 씨가 총무로 선임됐다.

초대회장에 선출된 박노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맡은 분야에서 삼독심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보살정신으로 생활한다면 우리세계는 불국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합회와 전문직 불자회와 연계해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자"고 말했다.

불자회 회원은 40여명에 불과하지만, 공인회계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자회 결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어, 불자회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공인회계사불자회는 향후 여타 관련 신행단체와 연계된 신행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어, 전문직업인들의 신행을 활발히 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구성된 전문직불자회는 한국언론인불자회, 세무사불자회, 교수불자연합회, 병원불자연합회 등 회계사불자회를 포함한 총 5개 불자회에 이른다.

박노영 회장은 "교리만을 공부해 입으로 불법을 말하는 불자가 아닌,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한빛은행불자회 임원회의 부산 한빛은행불자회(회장 하명찬)는 12일 영주암에서 신년 간부 간담회를 열고 불자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회원 교육 방식의 변화, 인터넷을 활용한 부처님 말씀 생활화, 불교 관련 문화체험을 통한 신심 고양 등의 방법이 논의됐다. 올 한해에는 현재 42명의 기존 회원들과의 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한편, 부산 경남 지역의 50개 한빛은행에서 근무하는 불자들에 대한 포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하명찬 회장은 "회원들에게 법문이나 부처님 말씀을 이메일로 서비스하는 것은 물론 불교관련 영화, 그림 등을 관람하는 문화체험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불교 산악인련, 24일 총회 대한불교 산악인연합회(총재 정인억)는 24일 오후 3시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총회 및 신년하례식을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조직정비 건 △광주지회 신설 건 △지역 합동법회 건 등이 논의된다. 011-9739-9505

도시철도 법우회 봉원사 참배 도시철도공사 법우회(회장 이정환)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봉원사에서 탱화 등을 둘러보는 '사찰 문화재 탐방'을 실시한다. 사찰순례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법우회 신임회원들은 사찰예절을 배우는 시간도 갖는다. 016-354-8801



철도 무사고기원 방생법회

철불협, 18개지부 300여 불자들
계룡산 갑사 인근서 꿩 생명보시

생명보시를 통해 철도 무사고를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철도불교단체협의회(회장 정동진, 이하 철불협)는 12일 오후 2시 계룡산 갑사 인근에서 '철도 무사고 기원 및 환경 · 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

새해 첫 달에 철도 안전 운행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 달라는 손학래 철도청장의 부탁(?)을 받은 철불협이 당초 9월로 예정하고 있던 '철도 무사고 기원 법회'를 앞당겨 마련한 것이다.

철불협은, 철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국가 유공자들을 추모하고 무사고 안전 수송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점에 착안, 생명 방생으로 공덕을 쌓고 기원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자는 뜻에서 이날 행사를 방생 법회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철도청 본청 불자회, 구로 승무사무소, 부산 철도차량정비창, 익산 기관차 승무사무소, 서울 철도차량정비창, 대전 기관차승무사무소 등 전국 18개 지부 3백여 철도인 불자들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장곡스님(갑사 주지)의 법문과 화암스님(사나사 주지)의 축원으로 철도 무사고를 기원하는 1부 기원법회와 철도인 불자들의 염불 정근과 합께 20여 마리의 꿩을 방생하는 2부 방생법회로 진행됐다.

2002학년도 제11기 법사 양성을 위한

출강 통신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학인으로 인연맺어 일체 선근을 증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 교수합니다.

본 대학에서는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2학년도 제1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 ❶출강반 ❷통신반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의식)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의식)
6. 교육 장소 : ❶서울 본 대학 ❷부산 학습도량
7.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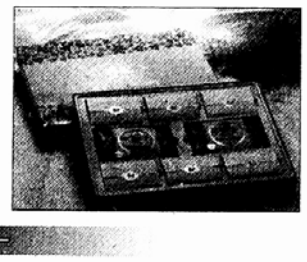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원서를 보내드립니다

卍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종단에 출가 득도시 수행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 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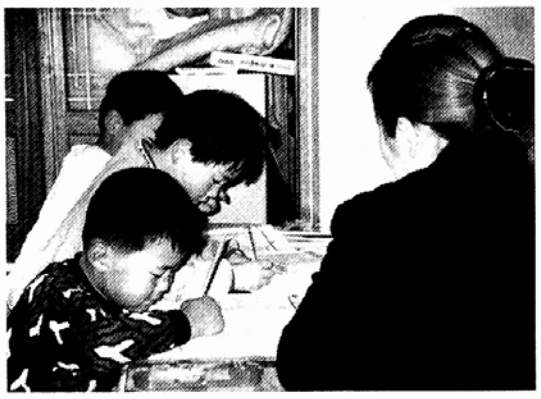
해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마을'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나온 경북대학교 자원봉사모임 '따사모' 회원들과 함께 보충학습을 하고 있다.

대구 '보리수 마을'

부모떠난 아이들 '힘든 삶'

대구시 진인동 '보리수마을'. 이곳에는 부모로부터 버림 받았거나 가정해체로 부모 곁을 떠난 아이들 12명이 살고 있다.

미혼모가 놓고 간 두 살배기 영아 두람이,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자폐증 아이 민수(가명, 13살), 하루가 멀다하고 엄마 · 아빠가 사우는 집보다 또래와 함께 모여 사는 이곳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미나(가명, 11살), 부모에게 버려진 종성(가명, 10살).

'체념' 먼저 배워

운동을 좋아하는 종성이는 며칠 전부터 시무룩하다. 학교 친구들이 합기도를 같이 하자고 한껏 바람을 집어넣었지만, 그럴 처지가 못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곳에 온지 3년째, 먹고 잘 수 있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고 사는 이곳 아이들은 학원교습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체념'이다. 종성이처럼 한창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들은 하나 둘씩 포기하며 사는 법을 잘 안다. '보리수 마을'에서 욕심을 부리거나 다툼을 벌이는 아이들은 없다. 이미 '어른'이 돼 버린 '아이들'. 그렇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다.

'보리수마을' 원장 오정 스님은 "여느 가정집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맘껏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마을 살림으로는 감당이 안돼,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과 희망을 잃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다"고 말한다.

보리수마을은 전적으로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된다. 그러다보니 막내 두람이 분유, 미나 학습지며, 필요한 것은 너무도 많지만 여유가 없다. 자연히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컴퓨터, 속셈학원, 영어 등의 교육프로그램은 엄두도 못 낸다. 그나마 매주 두 번씩 경북대학교 '따사모(따뜻한 사람들의 모임)'란 자원봉사단체에서 보충학습을 시켜주고는 있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오정 스님은 가정의 따스함과 교육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가정결연'을 추진할 생각이다.

'가정결연' 절실

"빨리 커서 결혼해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13살 동민이가 말하는 소망은 이곳 아이들 모두의 꿈이자 씻기지 않을 아픔이다.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후원과 가정결연이 절실히 필요하다.

후원방법 : 전화 053-981-1552(보리수마을), 계좌 국민은행 644-01-0006-762, 우체국 702217-00270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감천

대구=김철우 기자

신행 캘린더

1월 23일 (수)

■조계종 자원봉사단 '신년법회'=불교계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한 해의 서원도 세워보고 작년 한해를 반성해보는 법회를 준비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문화교육회관에서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양산 스님을 법사로 조계종 자원봉사단 신년법회를 봉행한다. (02)723-5101

1월 24일 (목)

■충주 청소년 상담실 '디지털 동계캠프'=충주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은 26일까지 본원 상담실에서 '제3회 디지털 동계캠프'를 실시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촛불의식, 캠프파이어, 등산 등을 통해 신심을 닦을 수 있는 좋은 기회.(043)257-0807

1월 25일 (금)

■불자련 '야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눈 덮인 산은 아름답지만 먹이감을 찾기 어려운 고라니, 너구리, 토끼, 꿩 등 야생조수들은 겨울 보내기가 너무 힘들다. 불교자원봉사자연합회는 지리산 뱀사골에서 '제3회 야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출발은 오전 7시 서울 조계사. 참가비는 없다. (02)723-6258~9

■좋은 벗들 '남과 북 노래 강좌'='어젯밤에도 불렀네, 휘파람 휘파람…' 북한 동포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러보자. 멀게만 느껴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노래 가락을 따라 부르며 이해하는 기회!

좋은벗들은 7시 30분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강좌를 연다.(02)587-8996

■보현불교대 선재이야기=머나먼 구도여행을 떠나는 선재동자. 선재동자의 꿈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선재동자는 무슨 꿈을 꿀까.

대전 보현불교대학은 오후 7시 대학 대법당에서 설악산 봉정암 주지 경원스님을 초청해 '선재동자의 꿈 이야기'라는 주제의 법회를 봉행한다. (042)624-6555

1월 26일 (토)

■삼태강산악회 성지순례 등반=삼태강산악회는 26, 27일 양일 동안 단양 구인사 등을 둘러보는 '성지순례 등산대회'를 마련했다. 26일 저녁 10시 부산 초읍동 삼광사에서 출발해, 구인사의 적멸궁, 조사전 등을 참배하고 여의생, 수리봉, 민봉 등을 차례로 오른다.(011)561-2071

■맑고 향기롭게 '선수련회'='맑고 향기롭게'는 오후 3시 서울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에서 초심자를 포함한 일반인대상 '선수련회'를 1박 2일로 개최한다. 참선의 묘미를 몸으로 체험할수 있는 기회.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 등의 자세한 지도도 받을수 있다. 참가비는 3만원.(02)741-4696

1월 30일 (수)

■동산반야회 '꽃꽂이 전시회'='꽃구경 오세요…" 동산반야회 꽃꽂이반을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깜짝 놀랄만한 작품들이 많이 준비돼 있다.



◇동산반야회 꽃꽂이반 실습 장면.

동산반야회가 운영하는 '전통사찰꽃꽂이' 반은 오후 7시 서울 동산대학 법당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꽃꽂이 발표회'를 연다. (02)732-1206

"자원봉사는 끊임없는 실천이죠"

우리 절 우리 신도

대구 불광사 박순자 보살



◇박순자 보살(왼쪽에서 세번째)이 관음회 회원들과 함께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할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점심공양 · 환자목욕 등 '무슨일이든'
남편 · 아들도 수계…든든한 후원자

"정말 너무해요. 흉내 내기도 힘들걸요"

"맞아요. 어쩌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15일 오후 3시. 종무소에 모인 대구 불광사 관음회 회원들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원망 섞인 불만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불만어는 존경심이 깃든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다.

이처럼 회원들의 '원망 아닌 원망'을 받는 주인공은 바로 관음회 회장 박순자(45, 법명 법계수) 보살. 박 보살은 경북불교대학 졸업생 동문 55명으로 구성된 관음회가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는데 있어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관음회는 소화하기 힘들 만큼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다. 매주 목요일 경산 백천사회복지관 어르신들 점심공양, 경산 승낙원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품 후원은 물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영남대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등창환자들을 씻어 주는 등.

그러자 이렇게 강행군을 독려해온 박 보살에 대해 일부 회원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봉사활동 일정은 집안일 챙길 시간까지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박 보살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회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박 보살의 하루 일과와 가족신행이 전해지면서 관음회 회원들의 태도가 몰라보게 바뀌었다.

박 보살은 중장비 사업을 하는 남편 사무실에서 매일 저녁 9시까지 경리업무 등을 보조하고는 저녁 늦게 불광사로 와서, 밤 12시까지 기도시간을 갖는다. 바쁜 일상 중에도 봉사활동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이러한 박보살의 신심은 남편 장근진 거사(51)와 아들 인환군(22)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5일 아들 생일날, 부자가 나란히 수계를 받았고, 인환이는 불광사 주지 돈관 스님의 유발상좌가 됐다. 아들과 남편은 이제 박보살의 든든한 후원자다. 이런 박보살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너나 할 것 없이 더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할망정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회원들 사이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관음회 회원 관음 안상분씨(45)씨는 "부처님께서 위신력으로 제자들을 교화하셨듯이, 법계수 보살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5년 동안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해온 박보살에게는 나름대로의 '자원봉사철학'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 걸림 없이 실천하라고 했잖아요.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어요. '한 순간 잠깐 발심'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 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참뜻이 아니겠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먹는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마음을 비우고 보살행의 길을 가게 해 달라'고 관음기도를 드린다는 박 보살. 박 보살은 작년 제201 특수여단 호국무학사 점안식 회향법회 때 음성공양을 한 인연으로 올해는 군포교에 적극 나서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작년 6월에 창립한 '대구불교합창단'의 부단장을 맡게 되면서 군부대를 돌면서 '음성공양'에 나선 경험을 살려, 이제는 군포교를 통해 불교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것.

"노래 가사에 감동 받은 불자장병들이 감사편지까지 보내왔어요. 젊은 불자 친구들이 부처님 노래에 귀를 세우고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박 보살은 오늘도 부처님께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발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추천의 말

돈관 스님 대구 불광사주지



96년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함께 해온 사람이 법계수 박순자 보살이다. 법계수 보살은 불교대학에서 기초교리는 물론 경전 고급반을 공부하면서 음성공양을 위한 합창단 부단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믿음을 몸으로 실천해 보이면서 대중간의 화합은 물론 사찰의 대 소사를 직접 챙긴다.

기도정진 역시 다른 불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열심이다. 철야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 자원봉사, 포교 등 불자로서 행을 갖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고 있다. 아들 인환이는 본인의 유발 상좌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 실천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해 다른 불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4천인 불광가족이 자비의 천리향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법계수 회장 가족과 같은 신심 깊은 불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금강불교대학 2546년(2002)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으로써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하는 천태종 종립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학과과정	지역(기수)	교육년한	교과목	교육일시	지원자격	특전
불교학과	기본과정	1년	의례외 수행, 불교입문, 원시불교, 불교문화사, 불전이해, 불교학개론	매주 월, 화 1교시 : 오후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8시 00분 ~ 90분간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수업료는 증단에서 지원 · 수료 후 중급반 진학 자격취득
	중급과정 (서울19기, 부산14기)	1년	반야사상, 법화경(1)(2), 비교종교론, 천태선, 정토사상, 유식사상, 불교사개설, 기신론	매주 목, 금 1교시 : 오후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8시 00분 ~ 90분간	*본교 기본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수업료는 증단에서 지원 · 졸업 후 교법사과정 진학 자격 취득
교법사과정	서울(9기) 부산(9기)	1년	천태종학(1)(2), 화엄학, 밀교사상, 대승불교론, 기신론, 포교방법론, 포교실습	매주 수, 목 1교시 : 오후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8시 00분 ~ 90분간	①본교 중급과정 졸업자 또는 ②불교전문 교육 2년 과정의 수료자	· 수업료는 증단에서 지원 · *졸업 후 별도 시험 과정을 통하여 증단내 교법사 선발

학과	모집정원		제출서류	면접일시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료	전형방법	입학식
불교학과	서울 · 부산 각 120명	기본과정	가.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반명함판사진 5매(원서용포함)	*서울 2002년 2월 20일오후 6시 *부산 2002년 2월 23일오후 6시	가. 기 간 : 2001년 11월 20일~ 2002년 2월 5일 오후 4시까지 나. 접수처 :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원서료 : 5,000원	가. 1차 서류 나. 2차 면접	*서울 2002년3월1일 오전 11시 *부산 2002년3월3일 오전 11시
		중급과정	가. 기본과정 수료증명서 1통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서울 : 2002년 2월 19일 오후 6시 *부산 : 2002년 2월 22일 오후 6시				
교법사과정	서울 · 부산 각 50명		가. 입학원서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1통 다. 반명함판사진5매(원서용포함) 라. 본 대학 중급과정 졸업증명서 1통					

2. 교수진 소개 (불교계 국내 최고의 정상급 교수진)

이재창-금강불교대학학장	원의범-동국대명예교수	정태혁-동국대명예교수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리영자-동국대명예교수
권기종-동국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장충식-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조용길-동국대교수
이봉춘-동국대교수	권탄준-동국대교수	김용표-동국대교수	최봉수-동국대교수	김사업-동국대교수
장휘옥-동국대교수	최종석-동국대교수	지창규-동국대교수	김승일-동국대교수	최기표-동국대교수

3. 원서교부처

【서울 금강불교대학】

서울 교무과	02-576-6401	신촌성룡사	02-336-2052	봉천동명락사	02-889-7272	강동구강사	02-479-4450
망우동삼룡사	02-496-3839	구로명화사	02-854-0196	인천연화사	032-873-0747	수원용광사	031-255-4105
안양대안사	031-459-3666	성남화성사	031-745-1482	구리금성사	031-563-9364	평택법장사	031-655-9090

【부산 금강불교대학】

부산교무과	051-808-0730	울산정광사	052-277-7100	마산삼학사	055-244-6464	대구대성사	053-651-6108
포항황해사	054-277-3611	김해해성사	055-336-3585				

4. 면접장소

◈ 서울 금강불교대학 ◈ 부산 금강불교대학

5. 합격자발표

◈ 2월말 개별통보

6. 대학위치

◈ 서울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2층 Tel : (02)576-6401~2 FAX : (02)574-1541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05, 06번 버스
- 강남역 6번출구 414번 버스

◈ 부산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Tel : (051)808-0730,0713 FAX : (051)819-7654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에 위치함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장

의식이 없다면 우주는 존재할까요?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고준환 교수의 아봐타 체험기

1. 아봐타란 무엇인가
2. 수련과정
3. 아봐타의 메시지



아봐타 프로그램의 창시자요, 스타즈 엣지 회사(아봐타 프로그램 관련 홍보 및 관리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해리 팔머의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음미하기로 한다.

한계를 넘어 초월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식(意識)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의식이 없다면 이 우주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우주-항성들, 행성들, 공간들, 에너지들-로부터 사물들을 하나씩 제거해나간다면 맨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바로 '의식'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의식까지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누가 또는 무엇이 아는 걸까요? 기대하지 않던, 혹은 흔치 않은 정신능력을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해, 또는 의식의 비범한 상태에 대해 호기심을 갖거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상당히 호기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신비한 상태를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자 애썼는지도 모르죠….

우리의 종교적 믿음, 그리고 최근엔 과학에도 비범한 의식 현상에 관한 참고자료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깨달음, 인생전환의 경험, 홀로그래프 같은 의식, 우주의식, 축복, 열반, 삼매, 은총, 우주적 조화, 자연치유, 알파(α)리듬, 황홀경, 유체이탈 경험(OBE), 초감각적 지각(ESP), 공중부양, 속죄의 영광, 구원의 평화, 사토리(Satory: 깨달음), 신성, 그리스도 의식- 이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의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의식이 그 자체의 진화과정을 경험하는 일인가요? 우주적인 깨어남인가요? 비범한 의식현상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며,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아봐타의 사명은 신념체계들이 어우러져 하나되는 것을 일구어 내기이며,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오직 각자의 신념의 차이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신념은 쉽게 지어낼 수도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시비선악의 놀이가 사라지고, 함께 창조하는 놀이가 펼쳐지며, 그에 따라 세계평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한 차원에서는 진실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존재의 다른 차원에서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진실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다른 관점에서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일치와 갈등, 특히 종교, 철학, 심리학에서의 불일치와 갈등은 어떤 것에 대한 견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시각이나 관점이 잘못 뒤섞였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한 차원에서는 삶을 전환시키는 실행과 절차들이 존재의 다른 차원에서는 소용이 없거나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찰자의 준거틀을 아는 것이 그 관찰의 진실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봐타 신념 다루기 절차는 그 절차를 사용하는 의식을 직접적으로 다루므로 그 사람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존재 수준에 스스로 적응해 나갑니다. 지각하는 데 사용하는 외부적 자극이나 여러 가지 견해는 그 존재를 한정짓거나 분류할 수도 있고, 유사성과 차이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의 차원에 대해 얘기하건 간에 결국은 신념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념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각자가 경험하고 싶은 것을 걸러내는 색안경입니다.

우리는 안으로 믿음으로써 가능성을 창조하고, 또 바깥으로 경험함으로써 제약을 소멸시킵니다.

아봐타 코스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은 창조와 소멸을 다루는 '창조 다루기' 절차인데, 교재에서 해리 팔머는 창조에서 소멸에 이르는 길을 '부처의 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의 본래면목은 허망부심(虛妄浮心)이 아니라 상주진심(常住眞心)이다. 무심(無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의식이나 지식을 바꿔 근본 마음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즉 전식득지(轉識得智)가 요청된다.

한국불교는 약 2천년의 역사를 갖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출했으나, 근세 이래로 제구실을 잘 못하다가 이제 어둠을 헤치고 세계에 새 문화의 빛을 발하려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불교를 찬찬히 살펴보고 멋진 미래를 형성해야 한다. 간화선(看話禪) 중심의 한국불교는 그대로 좋으나 대중적인 세계문화의 중심으로 한국불교를 끌어올리려면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확실할 것.

"마음공부 뿐아니라 몸·호흡 공부도 깨닫는 방법 객관적이고 확실할 것"

②마음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인 몸공부, 호흡공부를 겸행하여 심기신(心氣身) 즉 3조법(調心 調息 調身)을 동시에 수련할 것.

③현대사회에 맞는 삶을 창조하는 기법을 받아들이고, 보살도 실천에 적극 나설 것. 최근 한국 도판을 보면 부처님이 득도하신 방법으로 알려진 지관(止觀, Samatha-Vipasana, 특히 四念處觀)법, 〈능엄경〉 〈혜명경〉을 중심으로 한 수련법, 동사섭법, 선기도법, 신선도, 초월명상, 아봐타, 마인드 콘트롤, 하늘 도인의 마음수련법 등 여러 가지가 널리 퍼지고 있다.

우리는 수행자로서 기본적으로 조삼법(調三法)을 실천하면서 늘 깨어있음에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궁극의 임사체험(臨死體驗)을 통하여 생사를 초월하여, 한생명으로 귀명할 때까지는!

우리 모두 부처님의 혜명(慧命)에 따라 자기 입맛(또는 근기)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여 창조자의 길, 하느님의 길, 부처님의 길 즉 성불제중(成佛濟衆)의 길로 나아가길 합장기원한다.

오직 한 하늘 한자락 흰구름이 하늘을 감도는데, 어느 곳 한자리도 머물 수가 없노매라 구름 새 푸른하늘은 예나 이제 같더라.



◇봉인사 한길정진원 의 수련전용 공간인 자광원 전경.

■남양주 봉인사 한길정진원에선

아봐타 수련 등 1천명 배출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 자락에 자리잡은 봉인사(주지 적경) 한길정진원이 위빠사나 및 아봐타 수련의 근본도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봉인사 한길정진원은 3년전 수련전용 건물인 자광원을 설립, 아봐타 및 위빠사나 수련을 거의 매주 진행해 현재 1,000여명의 수련생을 배출하는 등 이 분야의 대표적인 수련장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등 이웃종교의 신자들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아봐타코스는 불교에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전통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 수행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지식인 포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봐타는 현대적인 상담심리 기법을 사용하고 철저히 종교성을 배제해 의사, 기업인, 교사 등 지식인층은 물론 이웃 종교 신자들과 요가, 단전호흡 등 다양한 수련법을 익힌 사람들이 참석한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수련생들은 개신교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교(특히 위빠사나)에 호감을 갖게 된다. 불자들은 부처님 생존시의 수행법인 위빠사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며 불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비불자는 불자로, 불자는 고급불자로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위빠사나의 현대적 응용'으로 평가되는 아봐타는 창시자인 해리 팔머가 위빠사나를 상담심리학적으로 응용한 프로그램. 때문에 주입식이 아닌 각자의 의식수준에 맞는 의식개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따라서 불교적 깨달음을 추구하기 보다는 항상 깨어있는, 뜻대로 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봉인사 주지 적경스님은 "창건주 한길로 법사의 교화도량 유지를 받들어 스님들뿐 아니라 불자, 일반 시민들이 찾아와 자유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해 대표적인 생활수행 도량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99년 10월 24일 낙성된 봉인사수련원 자광전은 총건평 2백50평에 3층규모로 법당수련장 60평, 대중방 40평, 휴게실 30평, 식당 40평, 좌선실, 행선실, 욕실과 불박이장을 갖춘 10개 방사 등을 갖춰 수련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031)574-5585 남양주=김재경 기자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초발심자경문 공부현장

1월-발심의 달
- 원(願)을 세우자
- 봉은사 새신자전법회
- 나의 초발심 시절
- 초발심자경문 공부현장
- 매일 발심하는 불자들

아만심 비우고 첫마음으로

과거와 미래가 뚝 끊어진 공(空)한 현재에 살고 있는 불자들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초발심의 마음을 잃지 않은 것을 공부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다. 첫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곧 현재를 더욱 충실히 가꾸어 과거와 미래의 얽힌 고리를 푸는 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삼광사 한문학교 초발심자경문 강의 시간이 많은 불자들의 호응속에 열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루가 즐겁고 새롭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배우지 않으면 교만만 늘어나고/ 어리석은 뜻으로 닦지 않으면 이기심만 자라난다/ 빈속에 마음만 높으니 굶주린 호랑이 같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멋대로 날뛰면 거꾸러진 원숭이와 같다" 초발심자경문에 나오는 게송을 한문으로 한자 한자 풀이하는 삼광사 한문학교의 이종민(44) 선생님의 설명은 아주 쉽고 재미나다.

한문 공부하러 왔다가 초발심자경문을 배우게 된 임희자(57.거제동) 보살은 "초발심자경문은 스님들만 공부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내용을 배우고 보니 사람이면 누구나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이며 초발심자경문을 공부하는 의미를 전했다. 임보살은 뒤늦게나마 초발심자경문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실천의 의지를 새롭게 다진 것이 기뻐 기만 하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면서 '아, 이래서 실천을 하고 닦아야 하는구나' 하고 문리가 터진 듯한 기분이 들고 절로 새로운 발심이 생겨나니 하루 하루가 즐겁고 새롭다는 얘기다.

"스스로를 경책하며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는 내용이니 옆에 가까이 놓고 읽으면서 초발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되새겨본다"는 박종석(59.서4동)거사는 "초발심자경문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의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된다"고 말했다.

중년층불자 참여 열기

삼광사 한문학교의 초발심자경문 공부는 오래 신행 생활을 이어온 이들이 빠지기 쉬운 아만심을 스스로 경책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공부에는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아만심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보면 스스로를 늘 주시하며 단속해주는 스승과 같은 것이 자경문 공부인 것이다.

초발심자경문 전체에 녹아있는 가르침은 나와 너를 구별 짓는 마음이, 상대를 만들고 시비분별을 일으키니 그 마음의 근원을 단속하고 해결하라는 것이다. 항상 처음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자세가 우리불자들에게 필요하다. 천미희 기자



◇부산삼광사 한문학교 학생들이 초발심자경문을 공부하고 있다.

2002학년도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2.학교연혁

1989.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제9회 졸업생배출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2년 1월 25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8 FAX.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학**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 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유학생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3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1월 25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학
전화 : 02-511-2026~8 팩스: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학**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⑪수기품(授記品)

이 수기품은 앞서 제4장에서 마하카샤파(摩訶迦葉)를 비롯하여 마우드가리야야나(大目揵連)에 이르기까지 네 사람의 큰 성문들에게 부처님의 수기가 차례차례로 주어진다.

'수기'란 범어로 비야카라나(Vyākarana) 라고 하며 '기별(記莂)' · '기설(記說)'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수기(授記)는 주(授)는 쪽에서 말한 것이며, '수기(受記)'는 받는 편에서 말한 것이다. 불전 가운데 설해져 있는 수기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를 크게 나누면, (1) 제자 등이 죽은 뒤에 태어날 곳을 밝히는 것 (2)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또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증과(證果)의 예언 약속 (3) 미래에 성불한다는 예언(豫言) 등의 세 가지 뜻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대승경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기라는 말은 세 번째의 의미인 '미래에 성불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많다. 〈법화경〉도 그러하다.

미래 성불의 수기에는 반드시 성불하는 나라의 이름, 성불하는 시대의 이름, 정법과 상법이 존폐하는 기간 등이 열거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것을 여섯 항목으로 나누어 6사(六事)라고 칭한다.

(1) 행인(行因)은 미래세에서 여러 부처님 세존을 공양하고 찬탄하는 모습 (2) 득과(得果)는 최후신(最後身)에서 성불한 부처님의 이름(佛名) (3) 겁국(劫國)은 성불하는 곳의 나라와 시대(劫)의 이름 (4) 불수(佛壽)는 성불한 부처님의 수명 (5) 정상(正像)은 정법과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 (6) 국정(國淨)은 성불한 나라의 장엄된 청정한 모양 등이다.

이상의 여섯 가지인데 이는 경론에 따라 다소 들고남이 있다.

이제 이 수기품에 설해진 네 사람의 큰 성문 수기 가운데, 한 가지 예로서 마하카샤파의 6사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미래세에서 3백만억의 여러 부처님을 섬긴다 (2) 부처가 되어 광명여래(光明如來)라 한다 (3) 그 국토의 이름을 광덕(光德)이라 하고 시대(劫)를 대장엄(大莊嚴)이라 한다 (4)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小劫) (5)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20소겁, 상법 또한 20소겁 (6) 국계(國界) 장엄하여 청정하며 유리(瑠璃)를 땅으로 하고 평탄하다.

큰 성문 네 사람의 6사는 저마다 다르지만 장엄된 불국토의 모습에는 공통된 표현을 볼 수 있다.

어쨌든 이 〈법화경〉에서는 제1장 '수기'가 개설되어 4대 성문들의 수기 양상이 자세히 설해져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 〈법화경〉의 수기는 미래 성불의 약속 또는 증명이다. 〈법화경〉의 제2장 방편품에서 '지금까지는 절대로 성불할 수 없다'는 성문 등 2승에 대한 성불의 예언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진실한 가르침은 단 한 가지의 부처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며, 2승 · 3승이라는 가르침은 방편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제자들은 부처님의 아들(佛子)이어서 2승도 기필코 장래에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 즉 2승 작불(作佛)이 설해진 것이다.

따라서 2승에 대해 부처님께서 성불의 예언을 주신다는 수기는 2승 작불이라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설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무설정사 조실



그림 · 문병성

萬有엔 유기·인과적 법성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⑬

상의적 수수관계와 연기법

세존께서 설하신 연기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것이 있으면(없으면) 곧 저것이 있고(없고), 이것이 생기면(멸하면) 곧 저것이 생긴다(멸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상대적 존재 원리로 서로 만나는 연접적 조우 조건을 뜻하며, 후자는 조우를 통한 상의적 수수관계에서 상호간의 반응, 적응 등으로 자기 초월체를 이루어 감을 뜻한다. 그래서 연기법의 원리는 분별적 사유를 지니는 단순한 세속제가 아니라, 만유의 상호 의존적이고 연접적인 수수관계의 원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상의적 관계가 일어나는 자연계는 곧 연기법계로서 우주적인 인과과정의 세계이고, 또한 만유는 홀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유기적인 상의적 관계에서 인과적 작용을 속성으로 하는 법성을 지니고 있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대응관계이고, 상의적 수수관계는 연속적인 초기 반응으로 원인 제공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수관계는 만유의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연접관계에서 그 존재의미가 있음을 뜻한다.

> 집착 · 아만 찰나에 불과
> 남에게 나쁜 영향 끼치면
> 반드시 반작용 되돌아와

그러면 우주에서 지구라는 존재가 다른 천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알아보자. 첫째 지구는 초속 470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 지구는 왜 돌아야만 할까? 만약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려면 가까운 달이나 태양 등의 강한 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군가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지구는 인연 따라 돌 수밖에 없다. 둘째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초속 30km(고속버스 속도의 1080배)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이것은 태양이 태어날 때 지구도 원시 태양계 성운에서 함께 태어난 인연 때문에 지구는 태양의 강한 인력권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는 태양이 모든 행성들을 거느리고 헤르큘레스 별자리 쪽으로 초속 2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태양 운동은 태양 주위에 있는 여러 별들(이를 국부항성이라 함)과 함께 상호간에 인력을 미치면서 중력적으로 모두가 묶여있다. 넷째는 국부항성의 별들은 제각기 움직이고 있지만 국부 항성계라는 집단 천체의 중력권에 묶여 있으면서, 은하의 중심 주위로 초속 230km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 은하계는 30개 이상의 은하들이 모인 국부 은하군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은하들은 서로 인력을 미치면서 중력적으로 묶여 있다. 이 국부 은하군 속에서 우리 은하계는 초속 40km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 은하는 16만 광년 떨어진 대마젤란 은하로 남반구에서는 육안으로도 이 은하를 볼 수 있다. 여섯째 국부 은하군은 다른 은하단(은하의 집단)들과 함께 모여 더 큰 은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처녀자리 초은하단이라 한다. 크기가 3천300만 광년 되는 이 초은하단 내에서 국부 은하군은 초속 6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일곱째 초은하단들이 모여 더 큰 초초은하단을 형성한다. 처녀자리 초은하단이 속해있는 처녀자리 초초은하단은 미지의 거대한 은하 집단을 향해 초속 7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지구는 단순한 자전, 공전뿐만 아니라 다른 별, 다른 은하들과 함께 여러 종류의 운동을 하면서 우주 공간을 돌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어찌 우연한 인연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지구가 태어난 물질의 근원을 거슬러 과거로 올라가면 모두가 탄생의 환경과 과정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초의 우주가 생겨날 때 원시 우주물질이 어떻게 분포했고, 여기서 은하와 별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알게 되면 우주는 만물이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인연의 거물망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구는 우주의 인연이란 거대한 그물망의 어느 한쪽에 티끌같이 작게 걸려 있지만 우주에서 존재할 수 있는 알맞은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존재하고 또 인간이 지상에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우주론적 인간원리이다.

나라는 자아의 집착, 내가 잘 났다는 아만,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허망스러운 망념, 이 모든 것은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찰나에 불과한 행위요, 마음의 소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나 자신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물의 한쪽을 당기면 다른 쪽에 힘이 미쳐 그물 모양이 변하듯이 인연의 얼개에서는 남에게 그 영향이 미쳐 나쁜 인연을 심어 줄 수 있고, 또한 반드시 내가 그 반작용을 받게 된다. 이처럼 인연 관계는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적이며 또 부분적이 아니고 전체적이며 순환적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과식 금하고 육식 절제"

채식 열풍 채식 바람이 거세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데가 최근 SBS와 EBS 등 방송사들이 신년특집 기획 프로그램에서 채식의 중요성을 집중 보도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채식 식당이나 채식 재료 전문점에 사람들이 몰리고 채식 정보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가 인기다.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다. 불교 전문서점에는 사찰음식 관련 책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식생활을 강조하셨을까. 부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과식 금지와 육식 절제'로 요약할 수 있다.

과식을 하면 배설이 더뎌져 음식의 독성이 체내에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육식을 절제시킨 것도 이와 같다. 육류는 채소보다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병을 부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부득이한 경우 육식을 먹을 때에는 두 배의 야채와 함께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여러 식생활 가운데 불자들이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는 '반드시 제 철 음식을 섭취하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는 일을 도락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행과 기도의 연속으로 여기고 이를 실천할 때 육체적 정신적 자양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생들에게 네 가지 병이 있다. 봄에는 가래가 심하고, 여름에는 풍병, 가을에는 황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병은 겨울이면 한꺼번에 난다. 봄에는 떫고 뜨겁고 매운 것을 먹고, 여름에는 미끈미끈하고 뜨겁고 짜고 신 것을 먹으며, 가을에는 차고 달고 미끈미끈한 것을, 겨울에는 시고 떫고 미끈미끈하고 단 것을 먹어야 한다. <금광명최승왕경>

▨ 음식이 맛있어도 양을 초과해서 먹어서는 안 되며, 오직 기력을 도와 이롭게 하는 데 그쳐야 한다. <아미타경>

▨ 먹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몸 모양이 여위어 약하고, 조금 먹는 사람은 몸 모양이 충실하다. <이바라문연기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석등 Stone lantern, 대웅전 The Main Hall, 절 Bow, 예불 chanting ceremony

Within the temple there are many different objects to see. These include stone lanterns, the main hall other than pagoda, pudo. Stone lanterns are usually found around the Main Hall. The Main Hall usually built in the middle of the temple, so it can separate from other building. Lay people first make a bow in the main hall.

석등은 일반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돼 있다(Usually stone lanterns are made of beautifully decorated). 석등의 윗부분에는 8각형 모양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다 등불을 밝힌다(Near the top there is a octagonal shaped square section where the candle was burned). 빛은 4개의 화창(火窓)으로 확산된다(The light is diffused through four openings). 이들 석등은 오전 3시 새벽예불을 올리기 위해 대웅전으로 가는 스님들을 위해 밝혀진다(These lanterns are lit so that the monks and nuns can see their way to the Main Hall for the 3 A.M. chanting ceremony). 대웅전은 '위대한 영웅의 전각'이라고도 한다(The main hall is usually called 'Great Hero Hall'). 여기에는 사찰의 창건원력과 재정에 따라 다양한 불상과 조상들이 조성, 봉안돼 있다(The number of statues therein depends on the wishes and wealth of the temple). 대부분 사찰 중앙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봉안돼 있다(Usually the central figure is Sakyamuni).

대웅전에 들어서면 우선 반배와 삼배를 올려야 한다.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⑯

손지현(孫知縣)에 대한 답서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진실과 허구는 不二의 관계

"장수(長水) 스님은 비록 경전을 강의하는 강사이긴 하나 다른 강사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일찍이 낭야의 광조 선사를 찾아뵙고 〈수능엄경〉 가운데에 부루나 존자가 부처님께, '깨끗함이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문득 산과 강과 땅을 만들어 냅니까'고 물은 뜻을 가지고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낭야가 이에 소리를 높여서, '깨끗함이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문득 산과 강과 땅을 만들어 내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장수 스님은 이 말을 듣자 크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아무런 망상이나 조그만 티끌 하나 없이 텅 비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실상(實相)은 무상(無相)이라고도 하고, 본래 마음은 진공(眞空)이라고도 하며, 깨끗한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맑은 하늘에 비유하기도 한다.

한편 이와는 달리, 마음이 모든 티끌 경계를 만들어 낸다고도 하고, 하나하나의 대상 경계가 마음 아닌 것이 없다고도 하며, 마음은 진공이지만 동시에 묘유(妙有)라고 하고, 마음을 물으면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가리켜서 답하기도 한다.

이처럼 마음을 공(空)이라고도 하고 색(色)이라고도 하며, 무(無)라고도 하고 유(有)라고도 하며, 번뇌라고도 하고 보리라고도 하므로, 이치를 따져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정반대인 것을 어떻게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하여 온갖 그럴듯한 설명들이 만들어져 나오니, 그런 것들이 이른바 불교철학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꾸며내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뜻이라는 허구적 관념이며 그 뜻을 표현한 말일 뿐이다. 마치 아무리 정밀하고 사실적으로 잘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그림은 어디까지나 그림일 뿐이고 실재가 아닌 것과 같다.

> "마음 자체는 보고
> 확인하고 믿을뿐
> 까닭이나 원인
> 물을 수 없는 것"

뜻은 허구이니 허구만 쫓아서 진실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허구와 진실의 관계는 비유하자면, 빛과 그림자와 같은 관계고, 파도와 물과 같은 관계이며,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고, 영화 화면과 영사기의 빛과 같은 관계로서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불이(不二)의 관계이다. 그 때문에 허구를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켜 볼 수만 있다면, 진실은 바로 그곳에 있다. 진실이 허구와 동떨어져 따로 있을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앞에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경계는 그 자체로는 허구도 아니요 진실도 아니다. 경계를 마주하여 허구로 보거나 진실로 보는 것은 오직 사람이 지혜를 갖추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혜란 경계를 대하여 허구 아닌 진실을 보는 안목을 말한다. 경계의 진실을 우리는 법(法)이니 도(道)니 마음이니 자성(自性)이니 불성이니 본래면목이니 하고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 그러므로 지혜란 예컨대 나무를 보고 나무라고만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돌멩이를 보면서 법을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법을 보며, 향기를 맡으면서 법을 보고, 손을 씻으면서 법을 보며, 달리기를 하면서 법을 보고, 책을 읽으면서 법을 보며, 생각을 하면서 법을 보는 것이다.

이처럼 경계는 천차만별로 달라지지만 모든 경계는 법으로 통일된다. 말하자면 모든 경계는 법 위에서 건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에 관해서는 이대로 보고 확인하여 믿을 수 있을 뿐, 그 까닭이나 원인을 물을 수가 없다. 물음 자체가 이미 법에 의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생각을 통하여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관찰할 수가 있지만, 생각 자체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생각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만, 생각 그 자체에 관해서는 단순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을 뿐이다.

마음법이 바로 그렇다. 마음 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헤아려 이해할 수가 있지만, 마음 그 자체는 다만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믿을 수 있을 뿐이다. 바로 이렇게….

http://www.mindfree.net/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9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 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익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목어 "부처님 저 왔어요"



깊은 산중의 산사는 발길만 들여놓아도 마음이 평온해 진다. 산사는 어울리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수도하는 스님들의 담담한 체취까지 겹쳐, 찾는 이로 하여금 평화롭게 만든다. 이런 산사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산사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수년전 네팔의 친지를 모시고 양산 통도사에서 하룻밤을 머문 적이 있다. 그분은 귀국하여 나에게 그런 체험을 안겨준 고마움을 두고두고 감사해 했다.

아직도 나는 이런 담담한 체험적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헌데 요즈음은 도회 속의 절이나 산사를 가릴 것 없이 속절없는 속세의 모습들이 뒤엉켜 있으니 그런 추억을 체험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변화라면 변화이겠으나 그 변모하는 모습들이 어쩐지 안스럽다. 안스럽다는 뜻은 속세의 체취가 너무 강렬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변화를 보는 것 같아서이다. 절도 속세를 등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닐진대 그 변화하는 모습에 어떤 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좀 그렇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산사만큼은 고요 속에 담담한 자세로 우리들을 안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선 절의 경계에 들어서면 입장료를 받는 수금처가 버티고 있고 표를 내고 들어가면 즐비한 자판기가 우리를 기다린다. 절에 들어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자판기의 차 한 잔 값도 속세와 다르지 않다. 제 발로 찾아오는 대중들을 돈 받고 들일 일은 무엇이며, 자판기의 차 값이 속세의 차 값과 같아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절은 관광지가 아니다. 구경 시키고 돈을 챙기는 곳이 아니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 마음을 담담하게 도와주는 수련도장이다. 어차피 절 살림이 신도들의 보시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그런 수익성(?)사업 보단 보시 받은 것으로 더 많은 대중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이면 좋겠다. "부처님 저 왔어요" 하고 말을 하면 자판기는 자동으로 차 한 잔을 따끈하게 내어 놓는 절을 만들 수는 없을까. 템플스테이가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런 생각을 해 본다.

이근후(불교상담개발원장 · 본지 논설위원)

민주적 습성의 싹 밟지 말자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불자 세상보기

사회란 함께지은 공업
더불어 잘 사는 길은
불편함 견딜줄 알아야

우리가 어떤 몸을 받느냐는 바로 전생의 습성, 즉 업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 습성에 가장 편안하고도 적합한 몸을 받는다는 것이다. "구렁이 제 몸 추듯 한다"는 말이 있듯이, 구렁이에게는 제 몸이 그 습성을 발휘하는데 가장 편하고 좋다는 말이다.

우리 몸이 업식에 배인 습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는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의 업식이 드러난 우리 전체의 몸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함께 지은 업, 즉 공업(共業)의 결과라는 말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이 가장 편하게 여기는 형태일 것이다.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민주화를 외치며 살아온 지 수 십년, 그런데 과연 우리는 민주적인 사회를 편하게 여기는 그러한 습성을 익혀 오고 있는가? 민주적인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개인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는 사고방식. 그러하기에 그 충돌을 조절하는 합의의 준수. 절차를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방식. 이러한 사고와 행동 방식을 과연 우리들이 편안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민주화를 가장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아야 하고, 또 그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충실히 지키면서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들 자신도 자신이 구호로 내세우는 민주화가 자신의 몸에 익혀지고 있는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민주적인 방식이 몸에 익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살고 있다면 절대 민주적인 사회는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민주적인 사회가 갑자기 온다고 해도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금방 팽개쳐 버리리라. 실제로 민주적인 사회라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독재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도 편한 점이 많다. 뚜렷한 목표를 내세우고는 절차를 무시하고 확 밀어붙여서 일을 이루는 데는 독재보다 편한 것이 없지 않는가? 이 절차, 저 절차, 이쪽과 합의 저쪽과 절충, 그러는 사이 세월은 가고…, 언제 일이 될지 모르는 갑갑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민주적인 사회에 살 수 없다.

환상을 깨야 한다. 민주주의는 마냥 좋기만 하고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어떤 환경운동을 하는 분은 한마디로 환경 운동의 출발점을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진정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그러한 사회에 살고자 하는 희망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사회에 적합한 사고와 행동의 방식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의 습성으로 익혀 나가야 한다.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합의를 통해 너와 나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방식, 지루하고 불편하더라도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방식, 그러한 것들을 나와 우리 주변에 정착시키고 익혀 나가야 한다.

오랜 세월 구호와 깃발이 난무했던 민주…, 그 사회를 이룩할 업이 나와 우리들 사이에서 어떻게 쌓여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에이! 그렇게 해서 언제 일이 돼" 하며 조금씩 자라고 있는 민주적인 습성의 싹을 밟아 버리는 반민주적인 행태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3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게시판 훼불내용 즉시 삭제하길"

인터넷 불교사이트를 통해서 불자들의 향기를 접하는 평범한 아줌마이다. 그런데 근간에 여러 불교사이트에서 끊임없이 계속 벌어지는 '김인근 장로님과 차미향님'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다.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스님들이나 불자들도 그 난데없는 비방과 폭력으로 어질러진 인터넷 도량을 치워주시질 않으니 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편안했던 불교 홈도 이제는 방문을 열 때마다 잔뜩 긴장돼 지금은 불교 홈페이지 방문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역추적해서 집주소를 알려주는 불자들도 있겠는가.

홈페이지 관리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데, 저 같은 중생들이 더 이상 신구의 삼업을 짓지 않도록 이 시대의 도량과도 같은 홈페이지 지키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 불교 홈을 찾는 불자들이 오히려 업을 짓고 나가지 않도록 성능 좋은 지우개 마우스로 신속하고 깨끗하게 지우는 '삭제보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허옥신(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스팸메일 삭제요령

하루에도 수십 통씩 광고성 메일이 들어온다. 그 내용을 보면 각종 상품을 소개하는 메일도 있고, 성인사이트에서 보낸 메일도 많다. 호기심에 눌러서 내용을 보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없다.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나서 광고성 메일 제목에 '[광고]'라는 머리말이나, 내용에 '수신거부'를 포함해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일일이 확인해서 삭제하는 것도 불편하고 수신거부를 눌러도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웃룩을 쓰는 사용자라면 '도구' 항목에 '메시지 규칙'의 '메일'을 클릭하면 '새 메시지 규칙' 화면이 뜬다. 1번째 규칙의 조건 선택에서 '제목란에 특정 단어포함'을 선택하고 2번째 규칙의 동작 선택에선 '삭제'를 선택한다. 규칙 설명에서는 밑줄 친 곳을 누르면 특정 단어 및 구를 입력하는 곳에 '[광고]'라고 쓴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메일 제목에 '광고'라고 들어온 것은 바로 삭제가 된다. 본문에 '수신거부' 설정이 된 것도 같은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다.

신지호(서울 노원구 상계동)

인사동에 5층상가 '문화의 거리' 퇴색

오랜만에 인사동에 나가보았다. 여전히 노점상과 국적불명의 토산품들이 마치 한국 전통의 것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로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인사동 한가운데 문을 연 '인사아트프라자'였다. 인사아트프라자가 어떤 곳인가가 궁금해진 나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았다. 우려했던 대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소비문화의 일번지로 인사동을 타락시킬 또하나의 자본주의적 상징물이 들어선 것이었다. 지하에는 음식백화점이 들어서 있었고, 1층부터 5층까지 장신구에서부터 도자기, 생활한복 등의 상점들이 즐비했다. 물론 우리 전통문화상품들도 있었지만, 어쩐지 규격화된 건물에 박제처럼 전시된 것이 보기 딱했다.

우리 것을 알리고, 그것을 소비로 연결시켜 결국에는 관광수입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상인들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래도 인사동에까지 저런 거대한 상가가 들어서야만 했는지 너무도 안타까웠다. 인사동이 유명세를 탄 이후부터 줄곧 홍역을 앓고 있다. 우리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을 이렇게 밖에 내버려둘 수 없는지,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서민선(서울 성북구 보문동)

저 부처님은 왜 목이 없을까?

수련회 다녀와서

이번 겨울 수련회 기간동안 경주 남산을 다녀왔다.

듣던 대로 많은 불상이 있었다. 그 중 삼릉골에 석조 여래 좌상인 목 없는 불상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그 불상을 보면서 '저 부처님은 왜 목이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얼굴이 없으니 보는 '사람마다 웃는 표정, 화나는 표정 등 자기에게 맞게 부처님의 얼굴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본래 얼굴이 없으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면 맞추어 화를 받아주고 상대방 기분을 잘 맞추어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이 이어졌다. 얼굴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의 고정된 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내가 될 수 있고 상황 따라 바꿀 수 있으니 고정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닐까.

만약 부처님의 얼굴이 있고 그 표정이 느긋한 표정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부처의 얼굴을 보고 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다.

목 없는 부처님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그 불상의 뜻과 나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김판수(대구 한마음선원 학생회 · 수성중 2년)

'석불도 중국산 러시' 기사를 읽고

외형불사 지양… 인재 · 복지에 관심을

352호에 보도된 '농산물 이어 석불도 중국산 러시' 기사는 좋은 기사이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사찰들이 한국불교의 자존심은 생각지도 않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작품들만 잔뜩 남겨 놓는 불사에만 매달려 불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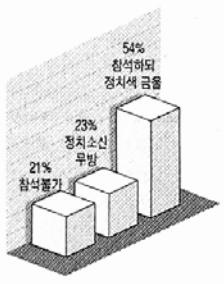
문제는 중국산 석물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남아나 인도를 다녀오는 일부 스님들은 사리를 갖고 들어온다. 출처도 불분명한 사리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와, 사찰에 사리탑을 세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천년고찰에 까지 사찰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거대한 탑들을 세워 전체적인 조화를 깨고, 어색함을 주는 것이다.

형상에 집착한 불사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본성을 회복하는 수행에 관심을 갖도록 인재불사에 나서는 것이 참 불사가 아닐까 한다.

김교문(붓다뉴스)

불자의 생각

불교와 선거



붓다뉴스 '지금은 논쟁 중' 코너에서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정치와 종교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1일부터 16일까지 붓다뉴스 설문조사에 참여한 불자들도 올해 치러질 각종 선거와 관련 불교계 지도자들이 '중립선언'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종교지도자 정치중립" 75%

모두 153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종단 지도자들의 중립 선언이 필요하다고 답한 네티즌은 115명(75%).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불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33명(21%), 참석해 정치적 소신을 밝혀도 좋다는 의견이 36명(23%)이어서 주목된다.

임연태 기자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교한문학과 개설!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에서는 2002년 새학기 부터 불교학과, 불교미술학과, 우리춤학과에 이어 불교한문학과를 새로 개설 합니다.
한문으로 된 불교경전을 강해하기 위한 한문법이론, 중국고전, 한문불교경전을 공부하여, 우리불자들이 부처님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로 신심과 신행을 겸비하는 불자상을 목표함.

1. 교과목 및 교수

교 과 목	교 수
한문해석법(1), 한문해석법(2), 천수경, 발심수행장, 명심보감, 장자, 주역,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반야심경	심재동교수 무진장스님 송찬우교수 김병조교수 한정섭법사 김미선교수

2. 개강일시 : 2002년 3월 7일 (목) 오후 7시
3. 교육장소 : 동산불교회관
4. 모집인원 (50명 : 정규, 통신)
5. 문 의 처 :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전법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0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인환스님(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김호귀(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선진규법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 (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우리춤과 (30명) · 한문학과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12월 10일 ~ 2002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우리춤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문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 학 일 시 2002년 2월 2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쉼터 064)749-4455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印度 뿌네서 '담마미뜨라' 품수식

삼귀의 봉송속 포교사 7명 탄생

불자 애경사 챙기며 포교·복지활동

전국에 1500명 … 3년뒤 재가법사 승격

스님의 수가 적고 승가가 체계적이지 못한 인도, 특히 마하라슈트라 지방에서 포교활동을 하며 나름대로 불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담마짜리(Dhammachari), 말 그대로 재가법사들이다. 그리고 담마짜리를 도와 연락망을 형성하고 일반 신도들의 애경사를 챙기며 포교와 복지활동을 돕는 담마미뜨라(Dhammamitra)가 있다. 우리말로 전법사, 포교사 등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16일 인도의 서부 도시인 뿌네에서는 한국 조계종의 '포교사 품수식'과 유사한 '담마미뜨라 품수식(奠受式)'이 거행되었다. 뿌네의 암베드까르 칼리지 운동장에는 30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임시 법석을 마련하고 새 담마미뜨라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지난 1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교리강좌와 참선교실에 참석하며 예비 교육을 받아 온 7명의 불자들이 불법을 널리 펴고 대중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엄숙히 계를 받았다.

수계식은 예경문과 삼귀의, 5계 봉송 등의 순서로 시작되었고, 인도 전통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찬불가 중창이 있었다. 아디띠야보디(Adityabodhi) 법사의 법문에 이어 새로 담마미뜨라가 될 7명의 불자들은 차례대로 부처님전에 나아가 꽃과 향을 바치고 5계와 담마미뜨라의 의무를 봉송하며 이를 평생 지켜갈 것을 서약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삼계의 불자모임 예르와다(Yerwada) 센터를 이끌고 있는 비르고쉬(Veergosh) 법사는 새 담마미뜨라들에 대한 당부의 말과 더불어 이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전에 기원했고, 신도들이 새 담마미뜨라들에게 꽃을 던지고 축복하며 막을 내렸다.

담마미뜨라가 되면 5계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규칙적인 참선 수행, 일반 불자들을 위한 봉사, 교단과 신도들 사이의 연락 등의 임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담마미뜨라 수계는 인도 불자들의 주체적인 신행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며 '제 2의 탄생' 과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비르고쉬 법사는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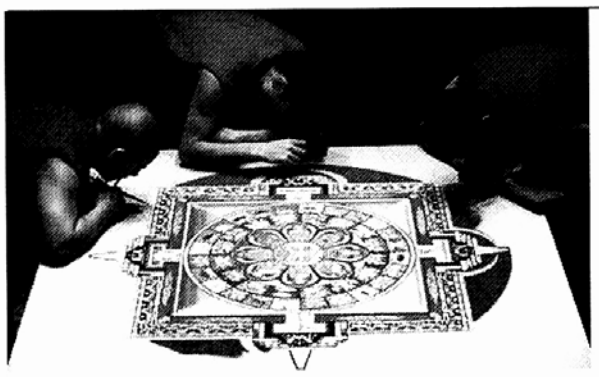
담마미뜨라 중에서 불법에 더욱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3년간의 활동 평가를 통해서 담마짜리가 될 수 있다. 현재 인도 전역에 걸쳐 약 1500여명의 담마미뜨라와 1000명 가까운 담마짜리가 활동하고 있다. 탄생부터 결혼,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의식이 종교행사이며, 종교가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이곳 인도에서 담마짜리와 담마미뜨라는 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불법을 펴는 대들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 뿌네= 이지은 통신원

인도불교 돕기 사무국= (02)745-7799



◇16일 인도 뿌네에서 열린 '담마미뜨라 품수식'.



◇'티베트 하우스' 스님들이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만다라 제작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美서 만다라 제작 시연

티베트 하우스, 9·11테러 추모법회도

지난해 9월 발생한 미 국방성 테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만다라 제작 시연회'가 열려 화제다. 뉴욕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 산하 '티베트 하우스'에서 수행하고 있는 4명의 티베트 스님들이 11일부터 27일까지 국방성 인근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분관 전시실에서 9·11 테러 희생자 추모법회와 함께 만다라 제작에 착수했다.

만다라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툽상 텐진 스님은 "1천 3백여 년 동안 영적인 수행과 의식을 생활지침으로 하여 살아온 티베트인들은 국가간 대립이나 집단간, 개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불가항력적인 난국을 해쳐가는 방법으로 만다라를 그려왔다"며 "이번 시연회를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가족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시연회는 오전 10시 및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추모법회와 함께 만다라를 제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근무하는 아시아 예술 분야 큐레이터들이 나와 제작 과정과 그 의미도 설명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방성 내 명상동호회인 '평화방패클럽'(Peace Shield Club) 회원들이 행사 도우미로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칼라차크라 대법회 21일부터 印度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21일부터 9일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인도 부다가야에서 칼라차크라 관정(灌頂) 대법회를 봉행한다.

1985년에 이어 열리는 이번 관정법회는 티베트 난민공동체를 비롯한 부탄, 네팔, 라다크, 티베트 등지의 불자 및 티베트인과 유럽과 미국의 불자 등 20여만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번 법회를 위해 달라이 라마는 이미 지난 9일 부다가야에 도착했으며, 5만여명의 대중이 집결해 있는 상태다. 티베트의 닝마파와 겔룩파도 이번 법회에 맞춰 특별기도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내의 티베트인들은 13~16일 중국 주룽지 총리의 인도 방문과 동시에 곳곳에서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측을 자극해 긴장이 고조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해외 불서





• 불교, 개발, NGO: 자신이 변하지 않는한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이야말로 아시아 풍토에 자리잡은 지혜가 아닐까. '개발'이란 우리 사회와 개인이 그 본래의 바람직한 자세와 생활방식에 눈뜨고, 자연 및 그 사회, 개인과의 공생을 위해 지혜와 자비를 갖고 인간성을 발현하고 있는 물심양면의 자발적인 변혁에의 실천이다. 공생사회의 전망을 담은 이 책은 제1부 개발의 사상(개발과 불교), 제2부 개발과 농촌, 도시(사회개발에 참여하는 태국의 개발승), 제3부 개발과 NGO(태국 NGO활동과 농촌사회) 등으로 구성. '태국 개발승에게 배우는 공생의 지혜'란 부제를 단 이 책은 니시가와(西川潤), 노다(野田眞理)의 공저로, 일본 신평론(新評論) 펴냈다.

• 불교와 한어어휘: 독자들이 불교와 한어 어휘의 상관관계를 쉽고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했다. 학술적인 연구성과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상용적인 불교용어를 정확히 해석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불교적 어휘를 밝혔다. 양효홍(梁曉虹) 지음, 대만 불광(佛光)문화사업유한공사 펴냄.

"도교 성지서 불교 홍성"

중국 아호신문

중국의 도교성지인 무당산(武當山)에서 불교가 흥성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아호신문(雅虎新聞)'은 지난 12월 호북성 무당산에서 발견한 장편서사시 〈달마실권(達摩實卷)〉 즉, 〈달마전〉은 일찍이 무당산에서 불교가 홍성했었다는 증거라고 7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무당불교 연구자인 이정강(李征康)씨는 "총 1만자로 구성된 이 〈달마전〉은 범씨가(范氏家)의 구두문학을 수집정리하면서 발견됐으며, 달마조사의 전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씨는 수년간 무당 민가(民歌)를 수집할 당시, 중국신화에서 천지개벽의 시조인 반고(盤古)를 돕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로 가득한 1부 600여 행의 장편서사시를 발견했다. 그후 무당산 핵심구역인 복마봉일대에서 석불사, 관음당, 불조묘(佛祖廟) 등 다수의 불교 건축물을 비롯 천문산(天門山) 일대에서 석불상 70여 구를 발견했다.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0. 잇찬티카와 현대인

'인간은 모두 부처이다'고 하는 명제는 선을 비롯한 대승불교의 전제는 산뜻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이다. 그것은 본래 "인간은 번뇌의 오물에 의해 더럽혀져 있으나 더러움 그 자체는 아니다"는 붓다의 가르침에서 기원하는 명제이다. 하지만 〈화엄경〉, 〈열반경〉과 같은 대승경전에서는 일체중생의 성불을 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풀들까지도 부처가 된다"는 초목성불론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할 때 일체의 초목이 모두 불신을 이루나니 몸은 장육이 되어 다 함께 성불한다"고 〈중음경〉에서는 설한다. 또한 〈법화경〉은 일체중생에게 불성의 깨달음을 열어 보이고 증득케 하는 것, 그 자체가 제불세존이 세간에 출현한 '일대사인연'인 동시에 불교의 존재 이유라고까지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방대하고 장엄한 불성론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불할 수 없는 중생'이 있다는 잇찬티카의 교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양향적(兩向的) 문제의 대립, 즉 앰비벌런트(ambivalent)의 벼랑으로 몰아

욕망숭배 현대인 불성 인연 결국 성불

간다. 때문에 불교철학사에서는 오랫동안 이 불성론과 잇찬티카의 모순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동진(東晋)시대의 도생(道生, 355~435)은 '잇찬티카도 성불할 수 있다'는 천제성불론(闡提成佛論)을 주장하여 당시의 학승들에게 이단 사설이라고 배척받고 호구산(虎丘山)에 일시 은둔하였던 적이 있으나 담무참(曇無懺) 삼장이 역출한 〈대반열반경〉 가운데 천제성불론이 실려 있는 것을 사람들은 그의 탁견에 경탄하였다고 한다. 또한 법상종에서는 천제는 성불할 수 없다는 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천태종, 화엄종 등에서는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천제가 성불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문제는 불교계의 오랜 논쟁거리로 전해져왔다. 여기서는 그 논쟁의 경과보다는 잇찬티카론의 현대적 의미를 짚어보기로 한다.

범어 잇찬티카(icchantika), 일천제(一闡提)라고 한역되는 이 용어의 원래 의미는 '욕구를 따르는 사람', '욕망을 가진 자'라는 뜻이다. 즉 현세에 집착하여 현실적인 욕망만을 추구할 뿐 교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단선근(斷善根), 신불구족(信不具足), 대탐(大貪), 무종성(無種姓), 소종(燒種), 생맹(生盲), 무참괴(無慙愧) 등이라고 한역(漢譯)한다. 모두 선근을 끊어버린, 보다 나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생존의 대명사들이다.

지금 잇찬티카론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자니 '일천제 같은 놈'이라는 말이 필자의 뇌리에 되살아난다. 사미 시절 나는 뭔가 석연찮은 짓을 하다가 들키면 스님들에게 '일천제 같은 놈'이라는 꾸중을 들었다. 그것은 '성불할 수 있는 선근이 없는 놈'이라는 정도의 꾸중인데 그 당시만 해도 청순하기만 했던 승가에서는 '성불할 싹수가 없는 놈'이라는 말을 가장 큰 모멸감을 주는 욕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잇찬티카라는 용어의 절망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기억이다. 그렇다면 경전에서는 잇찬티카를 어떻게 설하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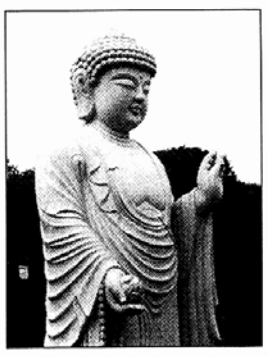
〈입능가경〉 권2에서는 잇찬티카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단선천제(斷善闡提)로서 본래 선근을 끊었기 때문에 해탈할 인(因)이 없는 천제, 두 번째는 대비천제(大悲闡提) 또는 보살천제(菩薩闡提)로서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에 들지 않고 있는 천제이다. 즉 일천제는 '성불할 가망성이 없는 중생'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만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장엄경론〉 권1에서는 부처님의 조력을 받으면 마침내 성불할 수 있는 유성천제(有性闡提)와 어느 때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성불할 수 없는 무성천제(無性闡提)를 설하고 있다.

경전에서 설해지는 잇찬티카설을 인간과 불교를 생각하는 좀 더 깊은 안목으로 본다면 잇찬티카는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다. 목전의 이익과 현실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가치만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현대인은 바로 자신의 욕망만을 숭배하는 종교를 가진 21세기의 잇찬티카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원효의 〈열반종요〉의 한 구절을 여기에 적어본다. "일체중생에게는 미래가 있는 까닭에 모두 불성이 있다. 현재의 번뇌인연은 비록 선근을 끊지만, 미래의 불성력을 인연하는 까닭에 드디어 선근을 일으키게 된다." 역시 인간을 신뢰하는 원효이다.

▩ 경학회 회주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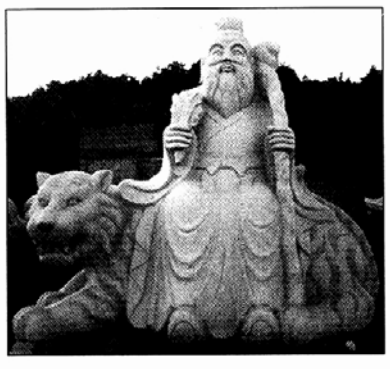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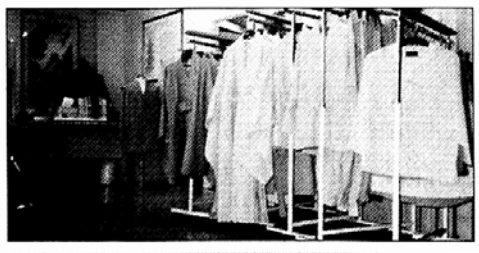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추동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함.
◈누 비 : 고급 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가 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 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동 방	남·여	120,000
누비	上 下	남·여	190,000
	두루막	남·여	160,000
	방한복	남·여	130,000
	보온복	남·여	70,000
장 삼 (조계종 태고종)		남·여	220,000
손가방		中	28,000
		小	23,000
바랑(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소멸 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 302호
전 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

밝은길 아바타 센터
◇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탈춤 방학을 맞아 탈춤반 초등학생들이 '어허둥실' 봉산탈춤 연습에 땀 흘리고 있다.


사물놀이 불교행사에서 신명나게 분위기 돋우는 일은 '우리가 최고'라는 사물놀이팀.


록밴드 록 볼음가요의 새바람을 일으켜 신세대들을 포교하겠다는 록밴드 '도솔천'.

눈높이 포교 '야단법석'

안산 천수사에선…

탈춤-사물놀이-록밴드 신도들 특기맞게 방편 다양


◇신세대 문화포교는 우리가 맡는다. 천수사 법당에 함께모인 탈춤팀, 사물놀이팀, 록밴드 팀원들.

"낙양동천 이화정…"
"덩더쿵 덩더쿵 쿵덕…"
"지장 보오살…"

6일 오후 2시 안산 천수사에서는 도량이 좁을세라 각기 다른 장르의 음악들이 요란하게 울려퍼지고 있었다. 소매를 펄럭이며 탈춤을 배우는 어린이들, 북과 징, 꽹과리, 장구의 어우러짐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깨까지 들썩거리게 만드는 사물놀이, 기타와 드럼, 키보드로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신나는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는 록밴드 '도솔천'.

얼핏들으면 전혀 어울릴것 같지 않는 불협화음이 묘한 조화를 이루며 천수사 도량을 화음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말이면 국악과 양악을 배우는 이들로 북적대는 안산 천수사는 탈춤팀, 사물놀이팀, 록밴드 등 세 개의 문화 동아리로 어린이 · 청소년과 그 엄마 · 아빠들을 사찰로 이끌고 있다. 이중 하나만 있는 절도 드문데 세 개씩 운영하며 문화 포교에 주력하는 사찰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일요법회가 끝나면 이들의 춤사위와 악기 · 노랫소리로 천수사는 온통 야단법석이 된다. 도량 밖에 서 있으면 이곳이 문화센터인줄 착각이 들 정도다.

일요법회 끝나면 도량들썩

1층 강의실 문을 삐끔히 열어보니 탈춤 출 때 손에 끼는 하얀 한삼을 풀풀 휘날리며 초등학생 20여명이 장구 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 배운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박자와 동작이 따로 놀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춤을 배우고 있었다. 동작이야 어떻든지 아이들의 눈가에는 웃음만 가득하다. 천수사에서는 탈춤반이 어린이 법회 참가자면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과정으로 되어 있다. 주지인 지허 스님이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엄명(?)을 내린 것. 이렇다보니 탈춤반은 첫째 · 셋째 일요법회가 끝나면 곧바로 연습에 들어간다.


◇록 찬불가 '지장보살'을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도솔천' 리드싱어 주성훈씨.

연습지도를 맡은 법인성 보살(31)은 총사단 문화분회 소속으로 9년전부터 탈춤을 배워 일본, 프랑스, 독일 공연을 수차례 다녀왔을 정도의 실력파 강사.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년정도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봉산탈춤 교육을 시켜 경로잔치 등 봉사활동에 투입시킬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컴퓨터 게임에 익숙해져 처음에는 탈춤 배우는 것을 재미없어 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외사위 등 다양한 동작을 가르쳐 주니 차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법인성 보살은 자칫 아이들이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문화를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 매주 머리를 짜낸다. 이런 노력 덕택일까. 탈춤을 배우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오거나 천수사 신도인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오는 어린이들이 부쩍 늘었다. 탈춤 배운지 3개월 됐다는 예라(연현초등 3년)는 "절에서 탈춤을 배워가면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 기분 좋아요. 한발을 들면서 추는 외사위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라고 즐거워 한다. 사물놀이팀에 있는 할머니 감로행 보살(70)과 일요일마다 함께 온다는 유림(별망초등 4년)이도 "처음에는 춤동작이 어려워 따라하기 힘들었는데 친구들과 자꾸하다보니 즐겁다"고 얘기한다.

불교와 록음악 "어울리네"

어린이들의 탈춤 사위를 뒤로 한 채 어두컴컴한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보니 방음장치가 돼 있는 음악실이 나타났다. 사찰에 웬 음악실? 호기심은 이내 깨졌다. '퉁쿵 쿵쿵…' 기타, 키보드, 드럼, 베이스 등이 토해내는 요란한 록 음악이 7평 남짓한 실내에 울려 퍼졌다. 천수사 청년회원들인 다섯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만든 교계 유일의 록 밴드 '도솔천'이 한창 연습중이다. 도솔천'은 자작곡 '지장보살'로 지난해 12월 조계종 문화부에서 주최한 찬불가 경연대회에서 본선까지 올랐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음악을 전공한 여대생과 20대 후반의 직장인들로 구성된 '도솔천'은 지허 스님이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 포교를 위해 만들었다. 리더 최상호씨는 "불음가요를 발랄한 록 음악으로 작곡해 거부감이 일지 않을까 걱정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놓았는데 방문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호응이 좋아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도솔천'은 록 찬불가 음반을 출시해 군부대나 교도소 공연에도 나설 예정이다.

사물 반주 절로 어깨춤

음악실 문을 나서니 2층 법당에서부터 신명나는 징과 꽹가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소리를 따라 올라가보니 10명의 보살들이 사물놀이 삼매에 빠져 있다. 천수사의 사물놀이 패는 지역에서도 유명하다. 안산지역 문화행사에서는 없어선 안될 감초역할을 한다. 프로 무용수 출신의 상쇠(사물놀이의 리더) 지경숙(50)씨의 자랑처럼 지난해에도 안산시민을 위한 불교예술제와 부처님오신날 안산 시청 앞 점등 축제 등에서 멋 활약을 했다.

지경숙 보살은 "행사장에서 사물놀이 반주에 맞춰 흥겹게 손뼉치고 놀다보면 청소년들이 저절로 일어나 어깨춤을 출 만큼 좋아한다"며 "앞으로는 청소년 회원들도 모집할 것"이라고 포교 효과에 대해 피력한다. 어린이 · 청소년들과 그 어머니, 할머니들이 함께 연주하고 춤추며 우리 문화를 소담스럽게 일궈가는 문화포교 도량 천수사. 오늘도 천수사 앞마당에 서면 사물놀이와 록밴드의 흥겨운 음성공양을 들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인터뷰 천수사 주지 지허스님

"신세대 절에 오기 즐거워야죠"



"문화 동아리를 세 개씩이나 운영하려면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연습 공간 마련 등 신경써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세대들을 절로 불러 들이기 위해선 효과적인 포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허 스님은 점이란 복적대고 시끄러울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주지스님이다. 신세대포교를 위한 열정으로 스님은 빠듯한 절 살림에도 불구 수백만원이 넘는 록밴드의 악기 구입에 과감하게 투자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음악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악기 값이 만만치 않아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포교를 위해선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기에 미련없이 지원했지요."

물론 스님이 이렇게 문화 포교에 관심을 가진 데에는 스님 자신도 기타와 태평소를 준 프로정도로 연주할 만큼 음악에 남다른 조예가 깊기 때문이다. 스님의 머릿속에는 각 팀이 음반도 내고 어느정도 남앞에 떳떳히 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면 종합예술단을 구성해 교도소나 양로원, 군부대 등 사회의 그늘진곳을 찾아다니며 포교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생각이 서있다. 또 스님은 산사 음악회도 기획해 일반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8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게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 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 현대해상 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종봉 선사 '西光'

종종 39년(1544) 밀양에서 태어난 선사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총명하였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사략(史略)을 가르치니 선사가 할아버지에게 "글을 배우는 일이 귀한 일입니까, 천한 일입니까. 만일 귀한 일 같으면 마땅히 배우겠습니다"고 물었다. 할아버지께서 "세상일이란 배우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니, 선사가 "선한 마음으로써 업(業)을 삼을 것 같으면 귀하고 그렇지 않으면 천한 것입니다"고 말했다.

선사는 13세에 황간 송안정 여헌 선생 문하에서 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맹자〉를 공부하던 선사는 책을 덮고 "세속의 학문은 그 됨됨이가 속절없는 것이구나. 온갖 인연에 얽매어 있으니 어찌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 하겠는가"하고 일어나 직지사 신묵 화상에게 축발하였다.

선사는 처음 〈전등록〉을 배웠다. 다 배우지도 않고 그 뜻을 깨달아 장로들도 선사에게 묻게 되었다. 또한 18세에 승과에 급제 한 후 선사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당시의 쟁쟁한 문사, 대부들과 교류하게 되었으며, 유학자들과 교류는 삼십이 넘어서 끝이 났다.

묘향산에 주석하고 계신 청허 선사를 찾아뵙고 성종(性宗)을 배운다. 여기서 선사는 지금까지의 문장 유희는 단지 기어(綺語)에 불과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오직 안심정성(安心定性)에 뜻을 두고 고행한 끝에 정법을 얻게 되었으며, 두타고행으로 3년 만에 그 정법(正法)을 터득하였다. 35세에 스승 청허 선사를 떠나 보덕사에서 3년을 지내고, 38세에 팔공산, 청량산, 태백산 등을 거쳐 43세 되던 해 봄 선사는 옥천산 상동암에서 정진하던 중 수미단 부처님 법신의 서광(西光)을 보고 무상(無常)의 법리를 깨달아 확철대오(廓徹大悟)하였다.

서광(西光 : 부처님의 광채)

西風吹動雨初歇(서풍취동우초헐)
萬里長空無片雲(만리장공무편운)
虛室戶居觀衆妙(허실호거관중묘)
天香桂子落紛紛(천향계자락분분)

서쪽(부처님의 광채) 바람이 불어오자 비로소 비 개이니, 높고 넓은 하늘에 한 조각구름도 없다.

빈 선실에 고요히 앉아 모든 묘리를 생각하니, 천향의 계수 열매가 어지럽게 떨어지네.

운향(雲香 : 구름처럼 펴져나가는 부처님의 법향)

無思無慮又無牽(무사무여우무견)
閑往閑來任自然(한왕한래임자연)
只得溪山何所事(지득계산하소사)
好隨年月度年年(호수년월도년년)

생각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것도 걸릴 것 없으니.
한가히 가고 한가히 와서
자연에 맡기노라.
산골짝 시냇물에 머물러 있으니,
연기와 달을 따라 세월을 보내노라.

생각도 근심도 걸릴것도 없으니

한가히 가고 오고 자연에 맡기노라

선사의 가르침은 이와 같다. "어제 핀 꽃 오늘도 빈 가지뿐 인생도 그와 같은 법, 삶 역시 하루살이 같은데 광음(光陰)을 허송할 것인가. 너희들도 영성(靈性)을 갖추었는데 일대사(一大事)를 마치지 않으며 부처님도 다 마음 속에 있거늘 어찌 밖으로만 내닫는가."

선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떨어진 꽃을 보시고 꽃이 떨어지고 나면 가지만 남는 것과 같은 중생의 생을 일깨어 주었던 것이다. 선사의 가르침은 청경(淸鏡 : 깨끗한 거울)과 탁금(濁金 : 빛이 없고 광채가 없는 금)이 원래는 이물(異物)이 아니며 혼파(渾波)와 담수(湛水)가 다 한 가지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선사께서 광해 2년(1610)에 세수67세 법랍54세로 입적하였다.

선사의 법명은 유정(惟政), 법자는 이환(離幻), 법호는 종봉(鍾峯), 송운(松雲), 시호는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 자호는 사명(四溟)이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은 70년대부터 조사선으로 세계평화와 자유를 이루기위한 참사람운동을 펼치고 계신다.

서옹스님은?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은 70년대부터 '조사선'으로 세계평화와 자유를 이루기 위해 참사람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님은 98년부터 2년에 한번씩 국제학술대회인 '무차선회'를 개최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인류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인간주의를 초월한 '참사람주의'라고 보고 이 정신운동 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스님은 한국불교 선풍 진작을 위해 문을 개방하여, 법거량하는 납자들이 자유자재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12년 충남 논산에서 출생한 서옹스님은 32년 당시 불법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던 고승 만암 대종사를 찾아가 득도했다. 스님은 35년 중앙불교전문학교 졸업하고, 오대산 상원사에서 탄허 고암 월하스님과 한암스님을 모시고 선수행을 하고, 39년 일본으로 건너가 경도 임제대학을 41년 졸업했다.

스님은 62년 동국대 선학원장, 도봉산 무문관, 동화사, 백양사, 봉암사 조실, 74년부터 79년까지 조계종 5대 종정을 역임했다.

"참선은 자유자재한 참나 찾기"

가까이서 뵌 큰스님

서 옹 스 님 (백양사 방장)

흰눈이 수북이 쌓여 하얗게 변한 백암산(白巖山). 수 많은 흰 양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위해 앉아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백양사에는 흰 양같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보리를 구하고 있는 납자들이 화두 삼매에 빠져 있었다. 절이 산자수명한 곳에 자리잡은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닐까. 절은 산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속에 찌든 중생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이 지향해야할 가치를 상기시켜 준다.

경치 수려한 산에 절이 있고, 큰 절에는 큰 스님이 나고 머물러 중생들의 마음은 언제나 푸근하게 한다는 말이 허투루 생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젊었을 땐 몸이 약해 60살까지만 살까 했는데, 부처님 신심으로 살다보니 91살이 됐어. 산중에 사는 사람에게 무슨 들을 말이 있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요즘은 대학교수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해, 허허"

깊은 산중에 계시기에 세상사 번잡한 소리에는 둔해도 자연의 조화에는 눈과 귀가 밝은 서옹(西翁) 큰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은 선방 수좌들에게 5일마다 한번씩 소참법문을 하고, 공부하다 의문이 생길 때는 곧장 주석처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재가불자들의 방문에도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큰스님.

"자기 자신이 참모습이야. 그러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순수한 자리를 깨닫도록 해야 해.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으면 생사를 초탈할 수 있고, 우주가 곧 자기 생명체가 되어버려. 생문제를 해결할 것이 이것 밖에 없으니 잘 해봐. 참선하는 일은 인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 환희심으로 원력을 세워 성취해야 해"

스님은 중생들에게 무한한 자비심으로 쉼 없는 가르침을 내려주시고 계셨다. 스님이 인간의 참모습을 해결하는 참사람을 깨닫기 위해 강조하시는 방법은 오로지 인간문제를 근원적이며 전체적인 입장에서 확철대오(廓撤大悟)하는 '조사선(祖師禪)'이다. 선정을 닦음으로써 해탈을 얻고자 했던 선은 역대 스님들의 수행방법이었다.

왜 조사선인가.

"조사선은 인간의 생사와 죄악이 없이 자유자재한 참모습을 완전히 해결했으며, 현대 인간상이 파경에 온 것을 구제할 수 있는 자유자재하고 자비로운 실상이야. 생사문제의 해결은 화두(話頭)가 열쇠이지. 죽을 날짜가 코앞에 닥친 사형수가 도망가듯이, 딴 생각할 겨를 없는 사형수처럼 1700 공안(公案) 화두에 들어 '이놈이 뭘까' 자꾸 의심하면 긴장이 한 덩어리로 되어서 의식자체를 초탈해버리는 눈이 일시에 열려. 그래서 자기 생명체 즉 참 자리가 살아나는 이치인 것이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영혼 절대의 그 자리가 절대 불변하지. 껍데기는 같지만 내용 경계는 달라.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구애받지 않아. 말과 글은 약방문에 불과하니 화두 참선을 해야 해. 누구든지 화두참선을 지극히 하면 생과 사를 벗어나 무엇에도 걸림 없는 영원히 자유자재한 참 나를 찾을 수 있어"

스님이 70년대부터 줄기차게 주창하시는 '참사람'은 당나라 고승 임제 의현선사가 말한 '무위진인(無位眞人)'이다. 스님은 참사람을 통해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할 때 인간주의 '욕망'으로 흐르는 세계를 구제하고 앞으로의 역사를 평화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참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참사람이란 상하, 귀천, 성인과 범부 등을 초월해 어떤 막힘도 없이 본래 면목에 투철한 사람을 말하지. 그러니 자각한 사람의 참모습이야. 자아를 초월한 본성자리요, 인간의 진실성을 근원적으로 드러낸 본래의 자기 자신이지. 본래 자기의 모습이 참사람이니 무명(無明)과 욕망의 장애를 벗어버리고 분별과 아집을 타파해 진실한 인간상인 '참나'

"본래 면목에 투철하면 참사람

욕망으로 흐르는 세상 구제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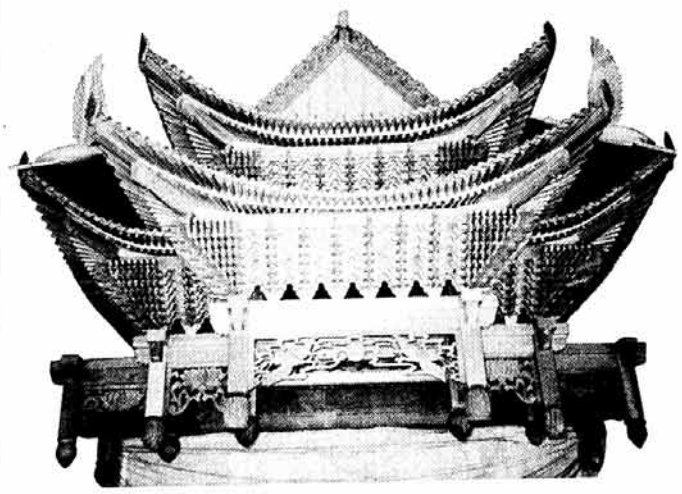
살아나는 이치인 것이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영혼 절대의 그 자리가 절대 불변하지. 껍데기는 같지만 내용 경계는 달라.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구애받지 않아. 말과 글은 약방문에 불과하니 화두 참선을 해야 해. 누구든지 화두참선을 지극히 하면 생과 사를 벗어나 무엇에도 걸림 없는 영원히 자유자재한 참 나를 찾을 수 있어"

스님이 70년대부터 줄기차게 주창하시는 '참사람'은 당나라 고승 임제 의현선사가 말한 '무위진인(無位眞人)'이다. 스님은 참사람을 통해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할 때 인간주의 '욕망'으로 흐르는 세계를 구제하고 앞으로의 역사를 평화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참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참사람이란 상하, 귀천, 성인과 범부 등을 초월해 어떤 막힘도 없이 본래 면목에 투철한 사람을 말하지. 그러니 자각한 사람의 참모습이야. 자아를 초월한 본성자리요, 인간의 진실성을 근원적으로 드러낸 본래의 자기 자신이지. 본래 자기의 모습이 참사람이니 무명(無明)과 욕망의 장애를 벗어버리고 분별과 아집을 타파해 진실한 인간상인 '참나'를 되찾으면 나와 남의 대립, 시간과 공간의 일체를 초월해. 그래서 참사람은 참으로 자유자재하고 절대 평등하며 대자대비하지. 우리 스스로 참사람임을 믿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지"

조사선이 뜻있는 불자들 누구나 참구할 수 있는 보편적 참선법이기를 바라는 스님의 간절한 소망은 98년부터 고불총림에서 지위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한 데 모여 서로의 경지를 묻고 답하는 무차선회(無遮禪會)를 2년마다 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에 와서 위기에 처한 조사선의 종지를 세계에 인식시켜,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누리공방



불단 · 닫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7073(공방)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납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충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우리 몸의 독소가 만병의 근원
기적의 미라보타 플러스
독소를 제거해 줌으로 나타나는 효과

간질환	간염, 간경변, 지방간 등 간기능 저하 및 급만성 간질환
급만성위장병	급체 위장 장애는 그때마다 복용으로 치유되고, 만성은 1일 3회 정기적 3~12개월이면 신효한 효력 있음
부 인 병	월경복통, 월경불순 2~5주 이상으로 치유
출 혈	혈치질, 비출혈은 3~5일 내외로 중지되며 1~3개월이면 원인적 치유됨
만성변비	투약을 조절하여 복용하지만(종합병원 임상 99%) 매우 심한 환자는 1회 3~15캡슐
알콜중독	2제 복용으로 특효 술로 인한 제반 증상이 치료 또는 호전됩니다
약물중독	급성약물중독자에 1~2주 복용시 제병상의 치료 및 후유증을 해소시켜 준다
마약중독	경미한 중독자(1~2년) 24시간 OK, 경중한 중독자(2~5년이내)48시간 OK, 5년이상 중독자 72~144시간 OK
식 중 독	식중독 발병 30분 이내에 복용하면 99% 치유되며 24시간이 경과하면 80%까지 저하됨
농약중독	취악에 중독된 개가 즉어갈 때 40캡슐 투약하면 15분이면 소생함
연탄가스중독	중독시 40캡슐을 물에 혼합하여 복용 후 15분이면 회생하고 후유증 없음



상기 독소는 누구나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라보타 플러스로 치료해 보세요.
특히, 술로 인한 간질환 환자는 꼭 드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주문 및 상담전화 : (055)972-4205
미라보타 플러스

"성인과 범부 따로 없으며 삶과 죽음 다르지 않아 분별심과 집착이 문제지"

세계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참선은 산중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산중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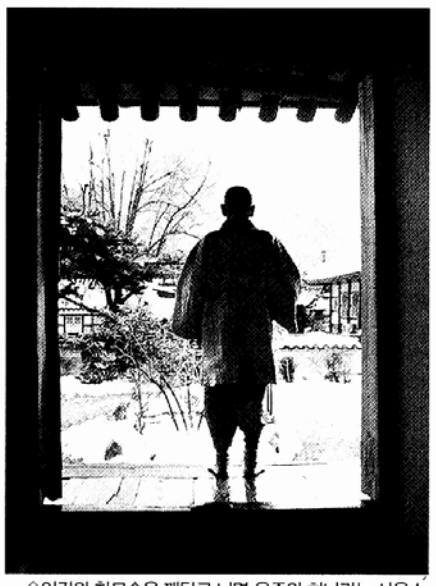
원래 화두선의 성립배경을 보면 초창기에는 대상이 모두 재가불자였다. 그들이 지식층으로 한정되기는 했으나 모두가 생활인이었던 것이다. 요즘 들어 조사선은 참선납승의 전유물처럼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두 참선법을 확립한 송나라 대혜선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공부를 지으라고 강조했다. 즉 시끄러운 가운데 힘을 얻음이 수승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요즘 미국과 아프카니스탄의 전쟁 등을 보듯 인류가 욕망대로 살아가다보니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가 혼란하게 된 것일까. 전 세계 인류가 조사선을 통해 해결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는 서양문명이 한국을 비롯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욕망으로 싸우는 투쟁의 시대'가 되었어. 사람이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 세계는 인류가 살 수 없도록 되어버린단 말이야. 인류가 멸망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세계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야. 자유자재의 자리인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거야. 그것만이 인간주의 타락을 구제할 수 있어. 불법을 깨닫는 참사람의 정신으로 구제해야 해. 인류 전부가 참사람인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 자기 자신이 참사람인데 환경에, 과학문명에 끄달려서 노예가 되고 제정신이 없이 살지. 그게 문제야. 조사선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지. 우주가 모두 조화돼서 서로 의지하고 힘과 은혜를 입고 살면서 함께 공존한다고 파악해. 그렇기 때문에 조사선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은 아름답고 즐거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거지. 조사선 바탕위에선 누구나 자비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무너진 인간 질서를 회복할 수 있어. 그래서 환경을 파괴,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죽이고 사람도 못살게 만드는 거야. 인간은 여러 가지 훌륭한 능력이 있는데도 욕망 때문에 타락하고 싸우는 시대가 됐어"

스님은 사람들이 참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고 경책하셨다. 과학의 힘을 절대시 하는 현대인들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 중심적 태도가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말씀이다. 환경파괴는 이기적 산물이요, 역사발전의 원초적 힘은 욕망으로부터 비롯되고 그것의 구체적 방법은 분열과 대립투쟁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견해가 지배하는 시대에 대한 스님의 할이다.

스님이 잠시 산책을 하시고 싶다며 경내로 나오셨다. 스님은 조그만 연못 앞에 서서 선풍종가를 상징하듯 곧은 기세로 뻗어있는 백암산을 바라보시며 "인간의 참모습을 깨닫고 보면 우주와 하나야. 산을 보면 부처님의 참모습을 드러낸 것 같아 흐뭇해"라고 되뇌이셨다.



◇인간의 참모습을 깨닫고 나면 우주와 하나라는 서옹스님은 항상 선풍종가를 상징하듯 곧게 뻗어있는 백암산을 바라보신다. 스님은 산이 부처님의 참모습을 드러낸것 같아 흐뭇하다고 말씀하신다.

스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몇 마디 했다.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야"

-그럼 깨달음을 이룬 후에는 수행이 필요치 않습니까?

"마음속에 이미 도가 있는데 무슨 수행이 필요하겠어. 다만 그 청정한 마음을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돼. 보통사람과 성인이 따로 없으며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아. 구별하는 마음과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살아나가야 해"



◇깊은 산중에 계시기에 세상사 번잡한 소리에는 둔해도 자연의 조화에는 눈과 귀가 밝은 서옹스님. 스님은 선방수좌와 재가불자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나침반 역할을 자처하신다.

"자신이 참사람인데 환경·문명에 끄달려 노예처럼 살고있지…"

스님의 견성성불은 점오가 아니라 자성(自性)이 곧 진불(眞佛)임을 깨우치는 돈오이다. 인간의 본성을 대상화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본래부터 깨달음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 본성을 아는 것이 그대로 불타라는 것이다.

-스님,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 중생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 하는 대로 파동이 일어나. 남을 건강하라고 하면 생명파동이 일어나고, 남에게 잘 되라고 하면 자신도 잘되고 가족 민족 인류가 잘돼. 나만 행복하면 될 것 같지만 주위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잘되는 것이야"

스님은 이어 "물을 보면 물이 되고 꽃을 보면 꽃과 하나가 되어있다고 해도 본래 없는 것이 아니고 비었다 해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야. 무엇도 널 구속하기 어려운데 누가 널 어쩌겠어.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코는 냄새 맡는 것이고, 입은 담론하는 것이고, 손은 잡는 것이고, 발은 분주히 움직이는 것. 이들은 서로 차별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없으니 흔들림이 없어. 실체가 없으면 자유로이 행동하고, 이 자유자재한 마음이 곧 지혜야"라고 설했다.

스님은 어려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원리라며 '자비무궁(慈悲無窮)'의 가르침을 주셨다.

"인간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존중하고 서로 돕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 이웃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 본위의 생각을 용감하게 버려야 해. 혹, 나는 자비심을 베푸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비심이 아니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남북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통일이 백번 낫겠지. 또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자비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불자들에게 더없는 수행의 노정이야.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통일을 만들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도 없다는 점을 깊이 알아야 해"

스님은 "내가 저녁에 누구 만날 일이 있어. 오늘은 백양사에서 밥 먹고, 잠자고 가…," 스님은 재차 하루 묵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스님을 친견하고 인간의 가장 깊은 만남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짧으면서도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만남에 대해.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현봉스님

세상사람들의 권위는 대개 자신의 신분과 명예에 의해 결정된다. 명함에 그어진 몇 줄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이 권위라고 믿었던 것들은 눈곱만큼도 없다. 그런데도 그 별 볼일 없는 것들에게 휘둘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비해 출가자의 권위라는 것은 당연히 그의 수행력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 분들의 수행을 내가 한마디로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휘익 일어나는 바람처럼 느낄 수는 있다. 세간에선 불혹의 나이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지만 불가에선 수행자의 눈을 통해 그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발심하에 수행하는 이의 눈동자는 유난히 반짝인다. 공부에너지가 모여서 빛나기 때문인데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담아 종이에 쏟아부으면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바로 지혜의 불이다. 안광이 혁혁한 것을 자랑삼아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세에 눌려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른 지혜의 불꽃이 아니다. 자비심이 그득한, 내면 깊숙이 자리한 수행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그런 빛나는 눈을 가진 수행자는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 현봉(玄鋒) 스님이 그런 눈을 가진 분이다. 스님을 만난 첫 날, 나는 마음갈피 속에서 저절로

송광사 종무전산화로 재정 투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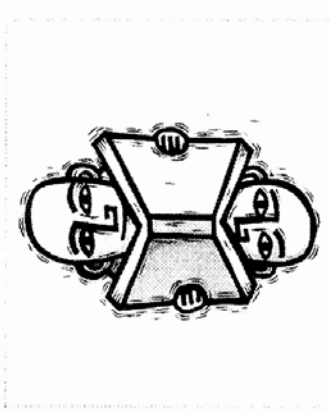
본사 주지이면서 자동차도 없어

존경심이 피어났다. 스님을 만나지 않고는 지닐 수 없는 그런 마음이다. 오래 전 불가와 인연을 맺게해주신 덕숭산 혜암 큰스님을 뵈올 때 느꼈던 마음이 되살아 난 것이니 너무 오랫동안 선지식을 가까이서 뵙지 못한 까닭이리라. 그동안 선지식들은 너무 멀리 계셨다. 아니, 어쩌면 내가 너무 선지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머물며 그 일상까지도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을 '선지식'이라 생각하는 내게 스님과의 만남은 눈푸른 선지식을 만난 것만 같았다. 그것은 소박하되 언제나 수행자의 본분을 놓지 않고 정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봉 스님에게는 본사 주지스님들이 지닌 위엄과 자동차 같은 것은 아예 없다

놀랄 정도로 소탈하신 모습과 따뜻한 눈빛 사이로 칼 같은 광채가 번뜩 스친다. 그 잠깐동안의 빛이 사라지고 나면 아주 평범한 스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어디서나 뵈올 수 있는 그런 스님으로 말이다. 늘 수행과 노동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봉스님을 보고 '송광사 주지스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눈이 갑자기 커진다. 그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난다. 아무도 주지스님으로 보지 않는 데에는 승속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방수좌 출신만이 지닌 독특한 기운은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스님 말씀대로 그냥 농사나 짓다 어쩔 수 없이 본사주지를 하게 된 분이 지니는 매력 말이다. 아무리 봐도 그냥 농사나 짓고 참선수행만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송광사 종무행정을 완벽하게 전산화시켜 제방을 놀라게 한 것만 봐도 현대적 감각과 능력도 남다르게 지니고 계신 것은 분명하다.

오래 전 동학사강원에 있을 때 남도 쪽에 갔던 도반스님이 눈이 번쩍 뜨일 경전하나 복사해왔다며 내놓는데 보니 〈대전화상주심경〉이었다. 내용에 불교학 사전 속에선 찾아 볼 수 없는 확연함이 있었다. 게다가 이 책은 아주 드라마틱한 사연을 지니고 있다. 어느 시골의 노인이 지나가는 엿장수의 리어카에서 건져올린 보물이었단다. 자칫했으며 시골의 집 벽지나 불쏘시개가 될 뻔했는데 세월이 흘러 공부 잘 하는 수좌스님의 손에 들어가 선방에서 읽히고 있다고 했다.

그날 밤 자리에 누웠는데 그 책을 마저 보고 싶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대중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빠져 나와 책상서랍에 넣어 두었던 책을 꺼내 돌아서는데 도반 하나가 따라 붙었다. 우리는 그날 추운 개울가에서 후래시를 비춰가며



그 책을 읽으며 꼬박 밤을 새웠다. 살아 움직이는 언어를 만나니 죄복에 앉아 답답하게 꼼지락거리던 생각들이 일시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때는 그 책이 나의 선지식이었다. 깊을 '심(深)'자를 '골수에 사무친다'로 표현하며 '도를 알기 위해선 버리고 또 버려라. 다만 고요히 앉아 밤낮으로 돌이켜 비춰보면 해골 속까지 다 비추어 오온이 단박에 부서지리라.' 그렇게 공부하라는 선지식의 말씀에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옛날에 그 책을 구한 수좌스님이 번역본을 내 놓았다고 해 한권 구해서 책장에 꽂아두곤 까맣게 잊어버렸었다. 우연히 며칠 전 꺼내 읽다가 깜짝 놀랐다. 번역자의 이름이 '현봉(玄鋒)'이었다. 몇 군데 전화해 보고 나서야 송광사 주지 스님임을 믿을 수가 있었다. 그래, 스님에게 처음 느꼈던 그 소탈함 뒤에 있던 그 빛이 바로 스님의 수행과 지혜의 불꽃이 지나간 흔적이었나 보다. 나는 보는 성품으로만 그냥 사람을 볼 줄 알았지, 깨닫는 정기로 분명하게 보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하긴 그것도 자기 업을 따라 나타나는 법이니 내게 지혜가 없음 때문이리라.

▩ 서울 반야사 주지

도서출판 참수행

고도의 참수행인의 체험담

참수행과 참수행 건강법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참수행

삶과 죽음, 온갖 번뇌 망상과 괴로움, 이 모든것을 초월적 참수행으로 말끔히 해소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는 목적이 있다.



각권 10,000원 / 률정지음

도서출판 참수행
TEL : 02-2244-6002 HP : 011-707-6002
http://chamsuhaeng.pe.kr
http://chamsuhaeng.co.kr
E-mail : champyc@chamsuhaeng.pe.kr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낳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천식이 멀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찰나의 깨침

중국의 백림사(아북성 조연)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우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깨침의 숲을 거니는 기쁨(환희)을 몸소 경험해 보십시오.
- 세속적인 삶에서의 집착과 번민 그리고 갈등과 두려움의 얽매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절대적인 평온과 자유를 얻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실현 합니다.

□ 마음과 실체 없음을 체험
□ 생사와 시공을 초월한 무한의 세계를 체험
□ 스스로 업장소멸과 전, 외가 조상 천도 확인

부족함없이 사는 지혜를 자녀에게도 가장 값진 유산으로 남겨 주십시요

수련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총마음수련

心田堂 대광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교 사암연합회

임원 취임 공고

원 로 : 덕명 점곤 성호 만승 성진 범천 법광
고 문 : 정암 해월 원각 대광
회 장 : 지모 (묘법사)
수석부회장 : 법혜 (도선사)
부 회 장 : 초삼 (옥정사), 순행 (보명사)
사무총장 : 혜각 (극락암)
총 무 : 수운 (대자원)
교 무 : 무유 (금산사)
재 무 : 지만 (심우정사)
포 교 : 청봉 (보림사)
사 회 : 해성 (해광사)
통 사 : 묘관 (덕명사)
감 사 : 도실 (광명사), 수현 (반야선원)
청엽 (미황사)
봉사위원 : 일승행 (수효사), 이태원 (대성암)

이상 27명의 임원이 불기 2546년 1월 17일 오후 6시 기장군청 9층 회의실에서 제6대회장 이 취임식을 통해 여법하게 취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불기 2546년 1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교사암연합회

지범 스님 7년만에 새음반 '부처님 마음'



불음가수 지범스님(제즈 불공사 주지)이 제6집 앨범 '부처님 마음'을 내놨다.

13세 때 백양사 서옹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한 스님은 1992년 '부모은중경'을 발표하며 불음가수로 데뷔, 불음포교에 매진해 왔다.

이번 앨범은 95년 찬불 명상곡 '일께로 가오니' 이후 7년 만에 선보인 것으로 선시와 경전에 곡을 붙인 '봄꿈', '청산은 나를 보고', '어머니 마음' 등 모두 12곡이 담겨있다.

지범스님은 오는 5월 11일 제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 공연도 할 예정이다.

문화소식

영광갤러리 개관4돌 소장전

부산 영광갤러리 개관 4주년 기념 소장전이 2월 3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지역성을 토대로 11번의 개인전과 한국사진의 역사전, 휴스턴 포토메스 등의 그룹전 활동을 해 온 김아타 씨를 비롯, 연꽃을 주제로 사진활동을 해온 이경순 씨, 다큐멘터리 장르의 작업을 해 온 이삼일 씨 등의 작품이 선보인다.

茶전문 월간 '차의 세계' 창간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차전문 월간지 〈차의 세계〉(발행인 최석환)가 창간됐다.

창간호에는 '다선일미의 정신을 이어온 수산스님'을 비롯, '한국 선차의 수용과 전개' '명차기행-천하절경에서 우러나는 무이암차' '차인열전-친강국사'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실었다.

국내 첫 떡박물관 개관

전통 떡과 부엌살림을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 19일 서울 창덕궁 앞 국악로 거리에 문을 열었다. 배화여대 윤숙자 교수(한국전통음식연구소장)가 마련한 이 박물관에는 윤 교수가 지난 20여 년간 수집한 2천여점의 도자 식기류와 조리도구, 제례용구, 전통떡 조리기구 등이 전시중이다.

렌즈에 담은 천년신라의 '영겁과 찰나'

강우방 교수 '사진전' 16~31일 관훈동 학고재

노련한 미술사학자의 눈에 포착된 천년 고도 신라의 정신과 미학은 어떠한 모습일까?

국립경주박물관장을 지낸 미술사학자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 30여년간 직접 촬영한 경주 일대 자연과 신라시대 미술작품 사진 80여점을 선보이는 생애 첫 전시 '영겁, 그리고 찰나전'을 서울 관훈동 학고재 화랑에서 31일까지 갖는다.

카메라의 구조도 모르고, 사진 찍는 방법도 배운바 없는 강씨는 끊임없는 시행착오 끝에 스스로 터득한 사진 실력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강씨가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사로 경주생활을 시작한 1970년~82년 당시 찍은 흑백사진들과, 지난 97년~2000년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재직할 시절 찍은 경주의 산과 들판, 능과 탑, 불상 사진이 전시된다.

지금도 학생들과 답사에 나설 때면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앞장선다는 강씨는 국립경주박물관장을 역임했던 지난 5년 동안에도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절로, 능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한 찰나를 포착하기 위해 수십, 수백 컷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인지하게 된 것은 경주의 공기와 빛 때문이었다. 작품도 작품이지만 경주에서 최근 다섯 해를 보내면서 발견한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무상한 모습이었다. 작품은 그 일부에 불과했다. 경이로운 자연에 눈이 떠졌다고 할까. 그러면서 예술작품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다가선 느낌이었다."

이번 전시가 문화재 사진전이 아님을 강조하는 강씨는 "능이나 탑, 불상 등이 중심 소재를 이루지만 그것은 다만 소재에 불과할 뿐 이들 미술품을

경주 일대 자연·문화재 명암 대비로 생명 넣어

'오브제'로 파악하고 그 본질이 잘 드러날 때를 포착하려 했다"고 말했다. 미술사 연구의 과정에서 우리 자연과 예술을 렌즈를 통해 해석한 바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강씨의 사진은 자연 속에서 연출된 이미지를 담아낸 여느 사진들과는 거리가 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탄지(彈指)의 순간에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것, 영원 속에서 찰나를 붙드는 것, 찰나에 사물의 변화를 멈추게 하여 영원히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진마저 변한다. 허나 그때 절망감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느낌, 불가사의한 기름을 느낀다. 영겁과 찰나는 상즉상입(相卽相入)하는 것이다. 혼연일체가 되는 불이(不二)의 상태를 사진에서 때때로 나는 느낀다"라고 말하는 강씨. 그래서 그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를 '영겁, 그리고 찰나'라고 이름 붙였는가 보다.

강씨는 이번 전시회에 내놓지 못한 사진까지 총 233장을 담은 사진집 〈영겁(永劫), 그리고 찰나(刹那)〉(열화당)도 펴냈다.



◇석굴암 십일면 관음보살상은 웃고, 분노하는 여러 작은 얼굴 표현을 통해 근기가 다른 중생 모두를 구원하려는 자비심을 극대화 했다.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인 터 뷰

"부처님 가르침 오롯한 동화 쓸터"

한국일보 신춘동화 당선 봉현주 씨



"진짜 실력을 갖추어 불교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할 수 있는 참다운 불교동화를 쓰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올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동화 '보리암 스님'으로 당선된 봉자 봉현주씨(48)의 말이다.

봉씨는 10년 전부터 문학을 공부해오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동화에 뛰어들었다. 작가 이상배 선생에게 지도를 받으며 "동화야 말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문학"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처음 도전한 신춘문예공모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병든 할아버지를 위해 고사리를 뜯어다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린 상구와 그 고사리를 팔아주는 보리암 주지스님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 이 작품은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신도인 봉씨가 대행 큰스님의 법문을 통해 접했던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응용해 동화적으로 옮긴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는 주부로서 불교동화를 대할 때 마다 무조건 여자를 음녀로 그리거나, 동화속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법문을 하려고 하는 따위의 어색하고 동화적이지 못한 작품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봉씨는 "무궁무진한 불교 소재를 개발해 소재적으로 풍부하고, 내용적으로도 알찬 동화를 쓰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교직 정년후 연지춤 연구 열심"

'시조세계' 신인상 당선 오영희 씨



조계종 포교사로 활동 중인 오영희씨(64)가 최근 계간 시조세계 제5회 신인상을 수상했다. 오씨의 고향이기도 한 경남 하동 섬진강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조 '섬진강 소견'으로 시조시인으로 등단한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춤으로 표현하는 아미타구품연지춤 연구회와 아마추어 시동인모임인 무차시낭송회를 운영하고 있는 오씨는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생활 속에서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나 아쉬운 순간 순간을 우리 시조의 멋을 통해 표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두 모임 외에 한국석불문화연구회와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오씨는 석불답사, 중국불교유적답사, 인도불적 답사때의 환희로운 순간들을 시조로 남겨 지인들에게 보낼 정도로 불교문화와 우리 시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지녔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로 시작되는 나옹선사의 노래처럼 마음 한가운데 맑은 우물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오씨는 최근 고향을 꿈꾸는 마음으로 사이버 공간에 카페를 열어, '하동 포구 팔십리'를 노래하고 있다. (http://cafe.daum.net/hadongsongli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제주도에 다녀왔다. 밤바다에 나가 거센 파도가 부서지는 방파제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흰 물결을 앞세우고 도도하게 밀려오는 파도의 모습이 마치 무리 지어 질주하는 말떼 같이 장쾌했다. 사정없이 벽에 부딪혀 흰 포말을 그리고 부서지는 거친 파도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가슴속에선 까닭 모를 감동과 흥분이 피어올랐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野生)과 자유의 정신!

산과 바다와 구름이 아기자기하게 어울리는 제주의 풍광은 언제 봐도 이국적인 정취를 안겨준다. 차창을 통해 제주 특유의 완만한 오름(기생화산)들이 빚어내는 색다른 능선미를 감상하다가, 문득 '관광'이란 말의 어원이 생각났다. 그것은 주역의 계사에 나오는 말로서, '관국지광(觀國之光)'의 준말이다. 말하자면, 관광이란 단순히 풍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신(혼)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방의 최고의 산물은 무엇일까? 지방마다 특산품이 있지만, 그 지방을 대표하는 산물은 결국 '인물(人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인물의 정수는 고고한 정신일 것이다.

제주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유배문화'라고 할 수 있다. 바다 너머 험한 땅 제주도에 유배 왔지만 처절한 고독을 딛고 자신의 학문과 예술을 완성한 이도 있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추사 김정희(1786~1856)이다. 9년 간에 걸친 인고(忍苦)의 유배생활은 개인에겐 불행한 것이었지만, 독자적인 사상과 예술의 세계를 확립한 '추사체(秋史體)'가 이 궁벽한 벽지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하늘의 묘한 섭리를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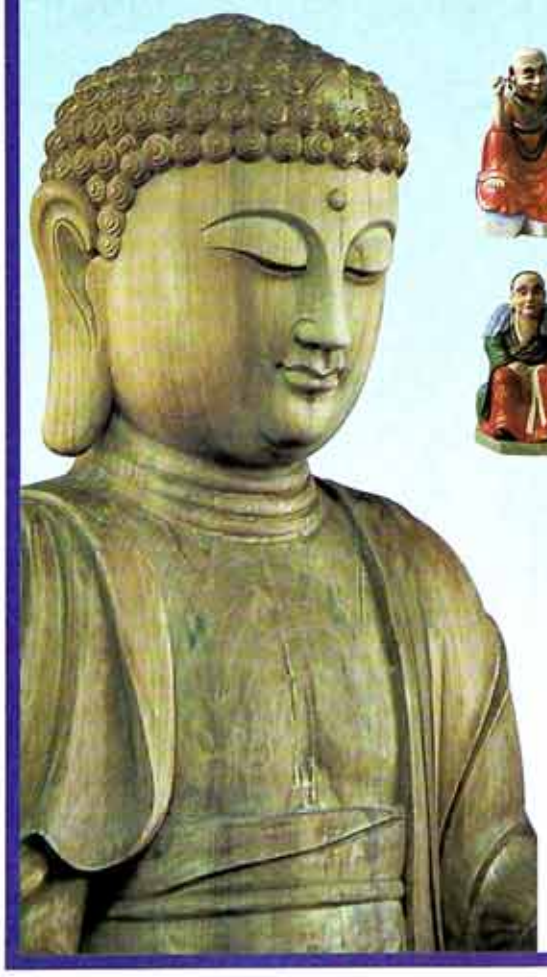
추사 '세한도'

예술의 본질 '겉보다는 속' 이 또한 不二禪

추사가 유배해 살던 초가는 제주도 내에서도 외진 서남쪽 끝에 있었다. 그곳에서 그려진 추사의 '세한도(歲寒圖)'는 고적하고도 탈속한 심경을 노송과 초가집을 빌어 표현한 작품으로 국보 제180호이다. 제자인 역관(譯官) 이상적이 연경에 다녀올 때마다 구해온 진귀한 서적을 유배객인 자신에게 꾸준히 보내오는 데 대한 고마움의 보답으로 추사가 그려준 것이다. 그림과 함께 쓰인 글의 내용은 '추운 겨울철이 된 뒤라야 송백(松柏)이 푸르게 남아있는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으로 변치 않는 친지간의 우정을 노래한 것이다.

평생을 같이한 부인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어쩔 수 없었던 고독한 유배객 추사에게 가장 위안이 되었던 것은 바다 건너 해남 대둔사 일지암에 살았던 지기(知己) 초의선사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유배가 풀린 뒤 서울로 돌아온 추사는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과천과 봉은사를 오가며 서도와 불교신앙생활에 열중했다고 한다. 그의 대표적 난초 그림인 '불이선란(不二禪蘭)'에 쓰여진 다음의 문구는 기법보다는 정신(文字香 書卷氣)이 중요하다는 추사의 예술관이 잘 나타나 있다. "난초를 안 그린 지 20년 만에 우연히 그려냈다. 문을 닫고 마음 속의 자연을 거듭 생각해보니, 이것이 바로 유마(維摩)의 불이선이다." 즉 난초는 그 정신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온갖 어려움을 겪어낸 노대가(老大家)가 본 예술의 본질은 '겉보다는 속'이며, 이것은 그대로 인생에도 적용되는 원리인 것 같다.

■문학평론가





목조각에 장인의 혼이 깃든 작품

성불조각원

•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 성불조각원은 모든 작품을 옛 전통기법으로 재연 합니다.
• 사찰에 필요한 모든 목조각을 주문 제작 합니다.

취급품목: 목불상, 사천왕, 16나한, 500나한, 법상, 가마, 불전함, 경상 등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문의전화: 033-263-1102 • 017-379-0590

전국대리점 모집

'오른손이 하는일을…'

자비심만이 인류문제 해결

달라이 라마 지음

달라이 라마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나무심는사람)에서 모든 인간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윤리적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상하게 일러준다.

달라이 라마에게 윤리란 종교적인 명령이나 딱딱한 행동 규범이 아니다. 모든 인간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달라이 라마는 윤리적인 행동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행한 행동에 따라 각기 다른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업보)이다. 카르마의 원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쌓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 현생과 다음 생이 결정된다. 결국 자신의 행복은 자신에게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책에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푸는 해결책은 자비심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위해 일반적인 윤리 원칙에서부터 매스미디어, 교육, 환경, 군축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초적인 순수성을 깨닫고 행동한다면, 모두가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사회에서 살 수 있고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영적 혁명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달라이 라마. 독자들은 이 책에 실린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참 행복론에서 달라이 라마 사상의 진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값 9천원.



한국 전통 佛畵제작 기법 소개

불화 시리즈 2차분 4권

전국 사찰 및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불화를 집대성한 〈한국의 불화〉 시리즈 2차분 첫 4권이 최근 출간됐다. 〈동화사〉(상 · 하편과 〈고운사〉(상 · 하편이 바로 그것.

〈동화사〉 〈고운사〉 편은 불화의 전체 모습뿐 아니라 부분도를 함께 수록하여 현대의 불모(佛母)들이 한국의 전통불화 제작기법을 참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원화의 색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촬영과 인쇄, 제작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기자재와 첨단기법을 사용하여 불화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직접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불화의 명칭과 봉안처, 조성연대, 조성불사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들, 불화 조성에 필요한 재료와 비용을 보시한 시주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화기(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어 연구자들이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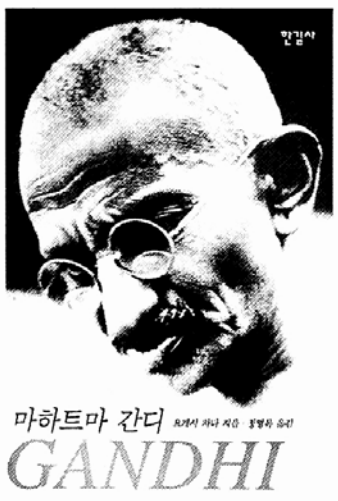
각 권은 본문과 부록으로 나눠, 본문에는 불화의 유형과 예배의식 절차에 따라 후불탱, 괘불, 보살탱, 신중탱, 각단탱, 각부탱, 영탱, 도량장엄탱 등의 순으로 불화를 실었다. 이들 불화에 대한 해설과 불화 이해와 연구에 자료가 되는 화기 원문, 불화 소장 본 · 말사의 역사, 영문 초록을 부록으로 붙였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은 1989년부터 전국 1천5백여 사찰 및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불화들을 조사하여, 조사 자료를 토대로 96년부터 매년 4권씩 〈한국의 불화〉를 발간해 오고 있다. 2000년에 1차분 20권이 완간됐으며, 2005년까지 2차분 20권이 발간되면 〈한국의 불화〉 시리즈는 모두 40권으로 마무리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마하트마 간디'

요게시 차다 지음

인도 國父보다 '인간 간디' 탐구 역점



자유쟁취 때까지 험난 역정 좇아

암살서 화장까지 현장 목격담 기술

"이 고통 받는 세계에 비폭력이라는 좁고 곧은 길 외에는 희망이 없다. 나와 같은 수백만명이 평생 동안 이 진리를 증명하는데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실패일 뿐 영원한 법칙의 오류는 아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영원한 화두인 비폭력을 주창한 간디의 일생을 담은 평전이 나왔다. 하지만 이 평전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기문 투의 찬양과는 거리가 멀다. "간디를 이야기할 때 인도가 영국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는데 그가 기여한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인식이 타당한가"는 지은이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객관적인 시각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지은이는 인도의 자유기고가로 1948년 1월30일 간디의 암살 현장과 화장되는 역사적 현장을 직접 목격한 요게시 차다 씨.

그는 들머리에서 지금까지 나온 간디에 관한 신화의 껍질은 잠시 벗어 던지자고 제안한다. '마하트마(힌두의 성자)' '인도의 국부'라는 호칭으로는 인류문명의 역사에서 간디가 차지하는 자리를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성과 속을 구분하는 눈으로는, 민족운동을 하고 정치 현장에 나서는 일이 곧 진리를 구현하는 일이자 도를 닦고 신을 섬기는 일이었던 간디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간디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존재로써 '인간 간디'를 탐구한다. 수줍음 많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가 풋내기 변호사를 거쳐 억압받는 남아프리카 인도 민중을 구원하고, 영국 식민통치에서 비폭력 저항주의를 내세우며 자유를 쟁취하기까지 험난한 인생을 좇는다.

이처럼 간디에 얽힌 모든 이야기와 주변의 생을 아우르되 무엇보다 인도의 근대사, 그리고 독특한 그의 후반부의 생에 주목한다. 특히 암살계획, 실행, 또한 암살자의 재판 등 최초로 간디의 암살을 둘러싼 정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도 특징이다.

암살자 고드세는 5시간 동안 선채로 왜 간디를 죽였는지에 대해 진술한다. 진술서에서 고드세는 "진리와 비폭력의 이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초래한 폭력적 평화주의자"이며 "오직 그만이 모든 사람과 사물의 절대적 재판관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한다. 방청석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디에 대한 고드세의 비판은 설득력이 있었다. 이처럼 간디는 이슬람교의 옹호자 또는 비현실적 몽상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간디의 '비폭력'은 그 자체가 절대 목적은 아니었다. 그에게 비폭력은 저항의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소 지루한 인도 근대 정치사라는 복병이 있긴 하지만 850쪽에 이르는 두툼한 분량에 비해 읽기가 지루하지는 않다. 치밀한 사실 자료로 인간 간디에 접근하려는 노력 때문일 것이다. 값 2만2천원.

출판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 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파아나두라 대논쟁	오 진	운 주 사
2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3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 택	김 영 사
4	내가 본 부처	도 법	호 미
5	봐라 꽃이다	김 영 옥	호 미
6	생활 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7	운명을 뛰어넘는 길	원 황	불 광
8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 지 외	민 족 사
9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연 호 택	여시아문
10	빠띠삼비다막가 역주	임 승 택	가산문고

도서 안내 : (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숭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2,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모택동 자서전'

남종호 옮김

사상 형성과정 인간적 조명

지금까지 모택동의 정치적 모습과 그의 사상 등을 그린 평전, 연구서 등은 많이 발간되었지만 그의 자서전이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택동 자서전〉(다락원)은 모택동이 직접 자신의 일대기를 서술한 책은 아니다. 그가 대장정 이후 연안에서 소비에트 건설에 전념하고 있을 때 그곳을 방문했던 미국 기자 에드가 스노에게 자신의 삶을 구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여 모택동이 직접 꼼꼼히 수정해 완성했다.

이 책은 모택동의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대장정을 통해 연안에 도착했을 때까지의 그의 삶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판된 어떤 글보다도 그의 사상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인간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당시 부르조아 계급의 입장을 반영하는 아버지와의 갈등과 투쟁, 뜻이 맞는 친구 즉 동지를 찾기 위한 그의 노력, 학교생활과 군대 생활, 그리고 공산당 창당 이후 활동 중의 사소한 단면을 통해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모택동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모택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이데올로기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틀이 잡혀가는지를 깨닫게 된다. 값 9천8백원.

불교의식

책 통해 의식현장 생생히

요즘 갈아선 불교의식을 꼭 발품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책만 잘 건져도 불교의식의 반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식의 현장까지 이끌어 줄 불교의식서를 소개한다.

가장 먼저 소개할 책은 뭐니뭐니해도 안진호 스님의 〈석문의범〉이다. 상 · 하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송주, 예경, 축원, 시식, 장의, 점안, 이운, 수계 등 불교의식을 는가 하면 〈다비방생의식문〉(삼영), 〈방생의식〉(보련각), 〈연화의식집〉(큰수레),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법〉(여래) 등 예불이나 영가천도 등 분야별로 의식을 다룬 책들도 있다. 이 가운데 〈연화의식집〉(큰수레)은 한국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영가 천도 의식문을 엮어 우리말로 옮기고 풀이했다.

지금까지의 책들이 염송용 불교의식



각종 의식 집대성 '석문의범' 권장

사상적 배경 · 의미 수록서도 다수

집대성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는 법륜사에서 펴낸 〈석문의범〉이 있다. 이 책이 부피가 커서 부담스러운 불자가 있다면 〈상용불교의범〉(보련각), 〈불문의식총서〉(명문당)를 권해본다. 현재 사찰이나 불자들이 많이 수지하는 의식집 가운데 하나로 웬만한 의식은 거의 수록돼 있다. 이 외에도 불교의식집으로는 〈한국불교의식집〉(민족사), 〈일상의식집〉(큰수레), 〈일용 불교의식〉(정우서적), 〈제반의식요집〉(선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불교의식을 집대성한 책이 있는가 하면 〈다비방생의식문〉(삼영), 〈방생의식〉(보련각), 〈연화의식집〉(큰수레),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법〉(여래) 등 예불이나 영가천도 등 분야별로 의식을 다룬 책들도 있다. 이 가운데 〈연화의식집〉(큰수레)은 한국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영가 천도 의식문을 엮어 우리말로 옮기고 풀이했다.

지금까지의 책들이 염송용 불교의식문이라면, 〈한국의 불교의례〉(운주사), 〈불교의식해설〉(정우서적), 〈불자예절과 의식〉(불광), 〈한국중세의 불교의례〉(문화과지성사) 등은 불교의식의 사상적 배경과 의미를 알 수 있는 책이다.

근대적 포교운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용성 스님이 일제 하에서 〈우리말 의식집〉을 처음 발간한 이래 많은 이들이 염불의식의 우리말 번역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말로만 의식을 집행하기에는 말 쓰임새와 뜻풀이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기도 · 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불교의 3대 신앙 지침서

신간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뿐만이 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
Ⅰ 극락을 여는 미타신앙 Ⅱ 아미타불의 본원
Ⅲ 염불의 공덕 Ⅳ 칭명염불 수행법
Ⅴ 관상염불 수행법 Ⅵ 천도와 미타신앙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 방법은?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4×6판 / 값 3,500원

기 도



총 6장 52편의 다양한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디지털 대장경 이용 쉬워진다"

장경硏, 21일 '고려대장경 2002' 설명

디지털 대장경의 이용이 한결 더 쉬워진다. 지금까지 별도의 프로그램 안에서만 열람과 검색이 가능하던 단계에서 나아가 개인용 컴퓨터 상용 프로그램에서도 운용이 가능해진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21일 증화불학연구소 주최로 대만에서 열린 제4회 중화국제불학회에서 세계 첫 한문 디지털 대장경인 고려대장경의 2002년판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제3분과(전자 대장경)에서 '고려대장경 2002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 허인섭 고려대장경연구소 학술부장은 한 마디로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범용화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장경 2000'과 '2001'은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 안에서만 작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고려대장경 2002'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 운영체계에서 제공하는 상용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MS Word)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열람은 물론 검색까지 MS Word에서 가능해짐으로써 대중에게 한 발 더 다가간 셈이다.

학자나 전공자 등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 동안 문제점이 제기돼 왔던 표점을 집어넣었다. 표점은 문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약속해 놓은 '부호' 또는 '점'이다. 한문을 읽을 때 해석이 편리하도록 단락을 나누고 마침표, 쉼표, 느낌표, 따옴표 등의 문장 부호를 집어넣는 작업이다. 문장 속의 정보를 가늠하는 최소의 정보 단위이자 원전을 한글로 옮길 때 기준을 세우고, 번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고려대장경 2002는 마침표(.) 쉼표(,) 모점(、) 세미콜론(;) 느낌표(!) 콜론(:) 따옴표(「1차 인용문」 「2차 인용문」) 등 8가지 표점 부호를 첨가했다. 뿐만 아니라 단락을 나눠 보여주고, 단락 나누기와 표점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기능 등 7가지 기능이 새로 첨가돼 이용자가 읽기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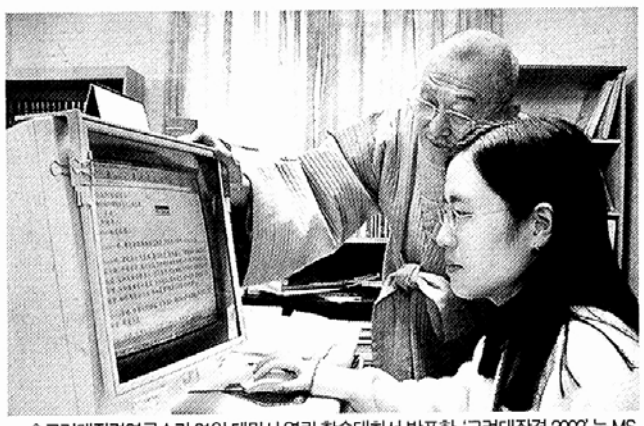
MS Word서 열람가능
표점 · 단락 나눠 '읽기 쉽게'
신수대장경과 통합 검색도

또 하나 보탠 기능은 중화불학연구소에서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수대장경〉과의 통합 검색 기능이다. 〈신수대장경〉과 〈고려대장경〉을 동시에 검색해 같은 문장에서 서로 다르게 쓰인 한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허 부장은 "우선 한문 대장경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문, 범어, 영어, 팔리어 등 다언어 경전을 동시에 열람 · 검색할 수 있는 통합 대장경 구축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체자는 500여 가지지만 1000여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상용화'에 치중하다보니 불완전한 코드 체계로 이체자 검색에 약간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글자나 폰트 이름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이체자 검색이 가능하나, 정자(正字)에 딸린 이체자까지 한꺼번에 검색하는 것은 MS Word상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5월 부처님오신날(19일)을 전후로 '고려대장경 2002'를 정식으로 출시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3월부터 홈페이지(www.sutra.re.kr)에 그 동안의 표점 작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고려대장경연구소가 21일 대만서 열린 학술대회서 발표한 '고려대장경 2002'는 MS Word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범용화에 가장 주안점을 뒀다.

동국대 사이버박물관 '오픈'

소장 국보 · 보물급 26점 3차원 디지털 영상작업

동국대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소장 유물을 3차원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주는 '3차원 사이버 박물관'의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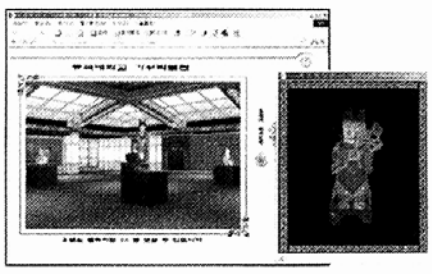
동국대는 불교 문화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요 불교 문화재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에 원형대로 재현해 내는 사이버 박물관을 만들기로 하고, 1차로 동국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애대왕 석탑 사리호, 납석삼존불비사, 금동아미타삼존좌상, 목조관음보살입상, 목조갑아미타삼존불상 등 26점의 국보 ·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3차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마쳤다.

17일 시연회를 가진 3차원 디지털 아카이브는 3차원 컬러 레이저 스캐너로 표면 형상 및 색상을 동시에 측정한 후, 얻어진 수백만 개의 3차원 점군(40미크론, 1미크론=1mm의 1/1000) 데이터를 삼각형으로 연결해서 흘리건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으로 완성됐다. 기존 사이버 박물관은 2차원 영상 방식이 대부분이고, 3차원으로 보여주더라도 유물 형상과 색상을 따로 촬영한 후 형상에 색상을 입히는 매핑 방식이었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와 (주)엘엔비테크(대표이사 한창석)가 공동으로 개발한 3차원 디지털 아카이브는 게임 · 애니메이션 · 영화 등 각종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해당 문화재가 도난 또는 훼손될 경우 원형 복원, 복제품 제작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 스님은 "장기적으로 동국대 박물관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불교 문화재를 차례로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불교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관리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국대 홈페이지(www.dongguk.edu)에 접속하면 3차원 사이버 박물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부도 탑신은 팔각 사리기 본떠"

소재구 씨 주장 … '팔각당 건물說' 뒤집어

신라 하대 선종의 전래와 함께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부도의 탑신이 팔각의 사리기 모양을 본 뜬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부도의 원형은 팔각당 형태의 건물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학계의 통설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펴내는 반년간 학술지 〈미술자료〉 67호에 발표한 논문 '신라 하대 승탑 조영사 연구'에서 소재구(국립중앙박물관 · 사진) 학예연구관은 "승탑의 팔각당형 탑신의 직접적인 모델은 팔각당형 건물이 아니라 팔각당형 사리기"라고 주장했다.



소 연구관은 "844년 조성된 염거화상탑(국보 104호)을 비롯한 일련의 승탑 탑신부의 밑단에는 받침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학계의 통설처럼) 팔각당형 건물이 승탑 탑신의 직접적인 모델이 되었다면 이처럼 공예적인 받침대가 부착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만약 그렇다면 팔각당형 건물의 기단 자체가 승탑의 기단이 되어야 하거나, 불상대좌형 기단이 부착된 팔각당형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연구관은 "팔각당형 건물이 사리기의 모델이 되어 사리기의 조형이 공예적으로 진전되고, 승탑의 탑신은 전적으로 사리기의 공예적 조형을 본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소 연구관에 따르면, 부도는 처음에는 석탑의 기단 위에 간단한 사리기형 탑신을 올렸다가 나중에 석탑의 기단이 불상의 대좌로 대체되고 단순한 팔각 사리기형 탑신도 화려한 팔각당(八角堂)형으로 발전하게 된다.

소 연구관은 "같은 유형의 팔각당이라 해도 선가에서는 실제의 팔각당 건물보다는 팔각당형 사리기를 승탑의 탑신 모델로 채택하는 것이 더욱 불격(佛格)과 동등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점은 승탑의 기단을 불상 대좌와 동일하게 조성함으로써 선승의 지위를 불격으로 격상시킨 점과 동일한 상징적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학술 · 문화재 단신

서울시 학예직 13명 공채

서울시는 오는 4월 개관하는 서울역사박물관 신규 학예직 인력 9명과 서울시립박물관 4명 등 학예연구사 13명을 공개 채용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은 한국고고학(1명) 민속학(2명) 한국미술사(3명) 건축사(1명) 보존과학(2명) 분야에서 학예직을 채용한다. 역사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하며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립박물관은 회화, 조소 및 공예 전공자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교부는 2월 1~22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metro.seoul.kr) 참조.

박물관 특설강좌 수강생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박물관회는 제26기 박물관 특설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박물관 대학'으로 불리는 이 강좌는 고고학, 역사학, 미술학,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전통문화 각 분야에 걸친 60여개 강좌와 전시실 교육, 국내외 고적답사로 구성된다.

10개월에 걸쳐 총 150여 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좌의 80%이상을 수강하고 수업상태가 양호한 수강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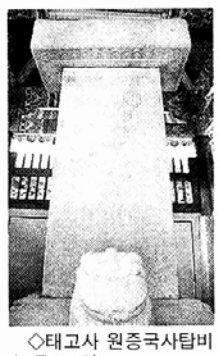
선착순 모집이며 원서 접수 및 등록은 31일부터 2월 6일까지다. (02) 398-5193

高僧 다시보기

보우 스님과 조계선풍

태고 보우(太古普愚,1301~1382)스님은 우리 나라 불교계의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중흥조로 숭앙되고 있는 고승이다. 스님은 원나라 간섭기 후반인 1301년에 문하시중 판리병부사 홍연과 삼한국대부인 정씨 사이에서 태어나 13세에 출가하였다.

스님은 가지산문의 법을 계승하여 득도하고 1346년(충목왕 2)부터 2년 간 원나라에 머물며 임제 고승 석옥청공(石屋淸珙)스님에게 법을 인가받았다. 귀국 후 왕사로 책봉된 스님은 '원융부'라는 승정 기구를 두어 난립된 구산문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또한 백장청규로서 불교계를 쇄신하고자 하였고 한양천도를 주장하는 등 정치의 혁신을 주청하였다. 그러나 화엄종승인 신돈의 등장과 반대세력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속리산에 금고되었다. 말년에 국사로 책봉되었다가 1382년에 입적하였다.



◇태고사 원증국사탑비(보물611호).

스님은 보각국존 일연스님과 그의 상수제자인 보감국존 혼구스님의 가지산문의 법을 계승하였다. 일연 스님은 가지산문이면서도 조동종 선풍 등 다양한 선풍을 수용하면서도 멀리 지눌 스님에 의해 수용된 간화선을, 혼구 스님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였던 몽산덕이(蒙山德異)스님의 선풍을 수용하였다. 보우 스님은 지눌 스님이 수용한 임제종의 간화선을 우리 나라 불교계에서 본격적으로 유포하고 몽산선풍을 받아들여 '무(無)'자 화두를 참구하여 깨달은 후 선사를 찾아 도를 인가받는 전통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 임제종의 정맥을 이루고 있는 석옥 스님의 스승인 급암종신(及庵宗信) 스님의 도반이었던 고봉원묘(高峰原妙, 1238~1295)스님의 선풍도 수용하였다. 보우 스님이 1333년 감로사에서 분심을 내어 '성질이 나약하고 게을러 불법 대사를 성취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고행하다가 죽느니만 못하다'고 한 것도 그의 영향이다.

고려불교계 간화선 본격 유포
몽산선풍 수용 '無'자 화두 참구

이렇듯 스님은 석옥청공스님의 사법제자라기보다는 지눌 스님과 일연 스님 등 국내의 선풍과 석옥 스님, 몽산 스님, 고봉 스님 등 중국의 선풍까지도 종합하여 고려의 독특한 선풍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스님의 이러한 선풍은 여말이후 조선초까지는 크게 발현되지 못하였지만 조선중기 서산대사 청허 휴정스님과 그의 문도들에게 재발견되어 지금까지 우리 나라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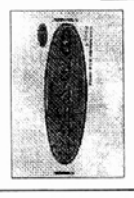
누구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쩍이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투시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겉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청신 김성진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 전국 서점 판매중

와지의 신간
다시 풀어보는 구성학의 사주풀이
문길여 선생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국내 최초의 역학 지침서
구성학이란 우주의 돌고있는 을 이용하여 우리의부족한 을 보충시키므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구성학을 알면 운명을 알고 운명을 알면 흉운을 길운으로 바꾸어 모자라는 기를 보충시킬 수 있다.
◆ 구성학의 비밀을 소개한다
1. 점쟁이 역술인 무속인의 운명
2.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자의 운명
3. 결혼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여자의 운명
4. 가정의 변화 직업의 변화가 많은 여자의 운명
5. 부동산 4와 4의 대충의 운명
7. 일백에서 구자까지의 뜻


문길여 著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A5신/양장본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15,000원(大)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 신국판 / 양장본 김용식 저 /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 / 이선암 진호일 공저 /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 / 양장본 / 송월스님 지음 /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섭심부 신국판 / 양장본 / 申坪 /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 법무博士 /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 백광 지음 /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 양장본 이상옥 지음 /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 / 양장본 진상백 저 /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 김운중 편저 / 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 양장본 김성진 저 /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심볼이 대백과 신국판 / 정현우 저 / 정가 17,000원
17. 명가풍계의 가상학 비결 신국판 / 김용식 저 / 정가15,000원
18.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 / 양장본 / 문길여 著 / 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 B/D 3층 T.921-8434 F.929-3470

Engaged Buddhism
격월간 참여불교 신년호 발간!
이번 참여불교 신년호는 '깨달음의 길은 생활 속에 있다'를 특집으로 싣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니다 싶은 얘기지만 불교를 지식 혹은 신비적 도통주의로 접근하지 않고 생활 혹은 삶으로서 진실되게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2002년 1,2월호 (통권 5호)
특별기고 금강경의 법문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 불교와 직업노동 그리고 시민정치
만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청화스님
새기획연재 절집 건축과 생태주의 / 동서문화의 시작과 분기, 그리고 동서미술
신년특집 깨달음의 길은 생활속에 있다
일상속에서 수행하며 사는 삶 / 오현명
바른 여덟가지 길을 향해 / 거해스님
티베트인들의 지혜와 명사 / 쵸펠스님
'세계'에서 '사람'으로 / 이현주목사
성품과 일치를 위한 애니어그램 / 황지연신부
불교의 눈으로 영화읽기 '조폭영화 〈달마야 놀자〉와 불교대중문화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우 110-340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30-6 신화타워 205호
전화 (02)745-7799 팩스 (02)744-3424 buddha21@buddgate.net
격월간 〈참여불교〉는 전국 70여개 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참여불교와 관련된 좋은 기고문을 싣고자 합니다.
판매가격 7,000원 / 1년구독료 35,000원 / 구독문의 : 02-745-7799

일상에서 마음속 부처님 찾으라

탑돌이 하는 마음자세

문 선원 도량에 도량탑을 얼마 전에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탑을 세우신 연유가 무엇이고 탑돌이를 하는 마음자세는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여러분이 탑입니다. 여러분이 탑을 만들어 놓고 탑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형상으로 탑을 만들어 놓고 탑돌이를 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맨날 탑돌이를 하고 계십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루종일 움직이면서 돌아가는 그게 탑돌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죠? 죽어서 뭘로 돌아 나오든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씨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돌다보면 항상을 하는 거지 어디 끊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이 도리를 아시란 말입니다.

이해만 하고 이론적으로 알기만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는 그 자체를, 일체 나쁘고 좋은 것을 다 자기 주인공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공(空)에서 나온 거 공에다 놔라, 말겨놓고 믿어라, 지켜봐라. 그러면 홀연히 참이라는 게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그 생명수의 맛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요렇게도 맛이 나고 조렇게도 맛이 나고, 천차만별로 좋은 맛이 나는데, 도대체 그 맛은 정말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좋은 꿈 나쁜 꿈 마음먹기 달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 참선인 줄 아셔서는 안됩니다. 눈 하나 깜빡거리고 이렇게 도는 것도 다 참선이에요, 다! 여러분은 "변소에서 어떻게 부처님 생각을 합니까?" 이러거든요. 아, 자기가 변소에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해가 똥구덩이는 안 비춥니까? 똥구덩이라고 해가 돌아서 깨끗한 데로만 해가 가던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으니 그런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탑돌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탑돌이를 하고 들어온 그 여러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탑돌이를 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저 탑이 성스럽고 부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들이 그렇게 그 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탑돌이를 하고 왔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내 진정한 마음, 수많은 우주간 법계에, 위로는 삼세의 부처님들이나 역대 조사들, 선지식들, 유생무생이 다 한데 합친 내공의 탑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전을 다 돌아도 끝이 없는 돎이 바로 탑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탑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는데' 요런 고정된 관념 속에서 도는 게 아니라, 우주 만유의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그 향과 밝음이 이 대천세계에 다 비추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탑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공에 있는 마음에 밝음이 없다면 그 밝은 빛을 서로 서로가 상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밝히고자 해서, 또 내 마음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역력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고, 생활을 하면서 내면의 부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대로 탑을 도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내공의 탑을 다 밝혀서 사시기 바랍니다.

태몽 의미는?

문 옛날 어른들은 태몽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여 함부로 발설도 하지 않으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이 우리 생활에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남아 있다고 봅니다. 태몽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답 우리가 사는 데도 지역 지역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물에서 사는 생명체가 공부를 해서 인간으로 환생을 한다면, 말하자면 물에서 사는 것이 보이는 태몽으로, 물에서 나와서 보이는 이치가 있고요. 또 산에서 생기는 거는 산에서 보이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떠한 물체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뱀을 보았다고 해도 뱀으로 보지 말고 용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죽거리는 것을 용(用)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글자 없는 표시인데 그게 용으로 보였다고 해서, 말하자면 옛날에 글자 모르는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통보를 하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관을 그려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듯이, 꿈에 보이는 거는 좀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꿈 그대로 봐 버리면 힘듭니다. 그대로만 생각하신다면 그대로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큰 용을 봤다 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에 아주 화력이 대단하게, 크게 화력을 펼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용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용이 꿈에 여의주를 물었다 이럴 때는, 본래의 그 사람이 살 때 많은 공을 닦고 공덕을 받아서 그 공덕 안에 여의주를 받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이 움죽거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스럽게 무(無)의 세계나 유(有)의 세계를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자유자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름이 빛날 수 있다는 거를 표시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배를 얻었다는 경우도 있는데, 먹는 배를 볼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도 원한도 사지 않고, 동물들에게도 원한을 사지 않고 아주 온순하게 세상을 살았다는 뜻을 표현한 겁니다.

공자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공자님 어머니가 6년을, 좋은 아들을 달라고 빌었는데 6년을 다녀도 영 태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 해에는 안 가고 있는데, 꿈에 거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야, 네가 원하는 대로 주려고 영령들이 들어오는 대로 아무리 골라도 지금까지 그런 좋은 영령들을 고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인제 골라 왔으니까 빨리 오너라." 이래서 7년 되던 해에 거길 갔단 말입니다. 갔다 와 가지곤 바로 태기가 있어서 낳은 분이 공자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태교라고 할 때도 마음을 오직 태교를 위해서 쓴다면 위치나 성격 모든 거를 달라는 대로, 형상도 좋게 보완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을 지혜롭게 불리가 터진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끔 자꾸자꾸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그게 다 같이 한마음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식을 낳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러고들 하는데, 아들이고 딸이고 낳기만 한다고 수가 아닙니다. 좋은 영령들을 갖다가 인연을 삼아야지 좋은 영령이 아니라면 항상 부딪치고 싸우고 그렇게 되니깐 좋은 영령으로 인연을 맺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꿈을 어떻게 꿨든지 그거는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한 사람의 성격도, 여러 안 좋은 조건들도 바꿔 놓을 수가 있는 것이 이 마음의 작용인데 하물며 꿈이겠습니까. 그러니 나쁘게 꿈을 꿨다 해서 이럴까 저럴 까 걱정하기 보다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한마음 자리에서 다 통신할 수 있게끔 맡겨 놓으시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입니다.

함이 없이 행하며 살려면

문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행하려 하면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어 여쭙니다. 일에서 손을 놓고 있을 땐 조금 여유한 듯 하다가도 일을 시작하여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겠다 하면 생각을 놓쳐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함이 없이 행하라' '생각함이 없이 생각하라'를 어떻게 해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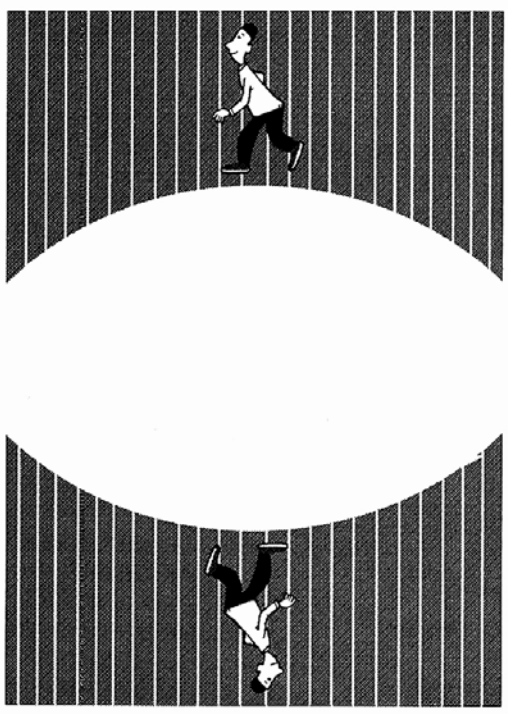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헌

共生 · 共用 · 共食 깨치면 현실 그대로가 불국토

답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다 놓으라고 하니 이 세상을 살아 나가려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놓고 함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소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 몸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몸 속의 생명들을 예를 든 겁니다. 보십시오. 혼자 한 겁니까? 심부름한 거지. 먹이기 위해서, 그 생명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못 벌게 되는 것도, 못 벌어서 굶주리게 하는 것도, 돈을 잘 벌어서 잘 먹이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혼자 한 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착하게 그냥 가만히 목석처럼 있어라' 이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이 없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함이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너가 한 게 아니라 진짜 너가 한 거니라 그랬죠? 그렇다면 개별적인 너가 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너가 한 거라는 소립니다.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혼자 먹고 살 양으로, 혼자 누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공동으로,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하지 말고 내 주인으로서 한마음이, 한마음 속에 주인공이 하는 거니깐 나는 심부름만 해준다 한다면 그렇게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해롭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또한 버리지도 않을 것이요, 아주 규모있게 잘, 즉 말하자면 중도에서 잘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함이 없이 하시라 이 거지, 누가 '꼼짝 않고 목석처럼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마음이 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물을 먹으면서도 먹은 사이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먹은 사이가 없습니다, 여럿이 먹었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물 한 모금 먹어도 혼자 먹는 게 어딨습니까? 여럿이서 다 먹고 있죠. 그리고 여럿이만 먹습니까? 내가 먹어서 똥누고 오줌 눈 거를 또 다들 먹고 또 내놔요. 내놓으면 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 또 먹기 때문에 항상 먹으면 나오고 서로 다 같이 먹습니다.

이 미묘한 도리를 우리가 알아서 챙긴다면 함이 없이, 모두 내가 하는 일이 없이 하는 것이고, 나는 그저 심부름하고 관리인이고 집합소입니다. 난 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 망가져도 "너희들이 고쳐서 살어." 이러는 거나 한가지죠.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치에 닿나 안 닿나 좀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데 집이 헐어졌다면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치지 다른 사람이 집을 고칩니까?

자기네 몸뚱이가 속에 있는 생명체들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들어 있기 위해서 집을 지었고 형성을 시켰고,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들고 있는 자기네 주인들이 고쳐야지, 아니, 집이 집을 고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깐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라 이런 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일체 만물만생과도 가설이 돼 있지마는 일체제불하고도 직결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하고도 직결이 돼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말로 하고 몸이 움죽거리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함이 없이 하라 이런 소립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서 하신다면 남한테 미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고 생활을 그대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인류는 발전하고 있는지…

문 신문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의 텔레반과 빈라덴의 알카에다가 미국에 항복했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텔레반은 몇 천년 된 부처님 상을 대포로 때려부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고요, 미국은 그런 텔레반을 테러를 비호했다고 몇 백억 달러를 들여 두들겨 팼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은 지하드(성전)을 외치면서 자살공격을 감행하고 이스라엘은 돌로 대항하는 팔레스타인을 탱크와 미사일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본토에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니 우주에서 막는 신무기를 개발한다고 하고 다른 나라는 반대하고 그렇답니다.

우리 지구를 보면 한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데 몇 십 조 달러를 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돈 천 원이 없어 굶어죽는데요. 유사이래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왜 싸우지 않고 지구의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사이좋게 사는 법을 찾지 못할까요. 과연 우리 인류는 진화,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우리가 진리를 학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배운다면 갈래갈래, 가지를 다 벌여서 이름도 알아야 하고 모든 걸 배워지만 이건 참선입니다. 선(禪)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한데, 공부할 때도 한 군데로, 내면 한 군데로 모아서 놔라 이런 뜻입니다. 모아서 놓지 않아도 한 군데다 놓으니까 모아지죠? 그렇듯이 모두 일체 돌아가는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말하자면 그 천차만별의 일들을 어떻게 이름으로 지어서 다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일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마음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만은 일체가 모두 돌아갑니다.

항상 누적되지 않게, 겁내지 말고 모든 것을 거기다 놓으라 그랬죠. 진짜로 믿고 거기다 놓으면 그냥 모두가 움죽거리게 된다구요. 그런데 움죽거리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라 안 움죽거리는 것도 움죽거리는 것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나가려면 잠시라도 참나찰나 안 움죽거리게 할 수 있어야만이 움죽거리게도 할 수 있죠.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면서, 즉 말하자면 이어지면서 한 바퀴 돌아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미래도 한 바퀴 돌아서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과거도 현실로 미래도 현실로, 일초 전이 과거, 일초 후가 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삼 세를 둘 아니게 넘어갈 수 있어야만이 우주의 모든 것을 그냥 한 군데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셋으로, 여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한 군데로 하나로 뭉쳐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서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것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어떠한 용도가 생긴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제각기 놓고 제각기 배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 놓기만 하면 앞서에 입력된 건 다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되는 것이 현실로 나오게 돼 있다. 나오게 돼 있는 그 원력이 바로 그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겨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진을 하다가 후퇴를 해야 하기도 하고, 후퇴를 했다가 전진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도 전진하는 것도 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말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다면 내면에서 자기의 뜻이, 가르치는 뜻이, 길잡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상을 온전히 알면 그대로 여여하게 불국토인 것이고, 모르면 불국토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깨우쳐서 둘이 아닌 도리를 감지하고 또는 이 세상이 공생(共生)으로서, 공용(共用)으로 돌아가고 공식(共食)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대로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국토가 아니다, 불국토다 하는 것을 비유를 하자면,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금속도 다 똑같죠? 그런데 사람들이 용도에 따라서 끌어다 쓰는 데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것은 저런 것이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전력은 다 똑같은데 말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은 다 똑같은데 모습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죠. 달라지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사단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불국토고, 아주 자유스런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우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냥 콧방귀 탁 뀌고 싱긋이 웃고 돌아가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죽으면 어쩌나, 우리 식구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냥 발발발 떨고 찔찔 매지 않습니까? 그러면 콧방귀 뀌고 웃으면서 돌아서는 사람하고, 죽을까 봐 벌벌 기고, 살지 못할까 봐, 채일까 봐, 맞아 죽을까 봐 벌벌 긴다면 그거는 불국토가 아니라 지옥일 테죠. 그래서 생각 하나 차이로 불국토냐, 지옥이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국토도 한 마음에 있는 것이고, 지옥도 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일체 만물만생을 다 이끌어서 서로가 상응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불국토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하나에 일체가 달려 있는 것이니 내 마음을 발견해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나 하나만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니 이 묘법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벗어나고파…

문 스님, 마음의 도리를 생의 목표로 알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청년회 법우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사람이 몸을 벗으면 강을 건너게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내 앞에 강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뛰어들지를 못하고 주위를 서성거리기만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얼마나 허무하고 제 자신이 한심스럽던지 한동안 자책이 들면서,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내 몸이 정말 있는 줄로만

☞ 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그릇' 준비돼야 부처님 응신

☞ 17면에서 계속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왜 그토록 살아 생전에 이 마음공부를 해서 벗어나라고 하셨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내가 없는 도리를 체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아 생전에 벗어나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몸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침 주세요.

답 그렇게 물에 뛰어들 수 없었던 거는 자기가 있다는 증거거든. 자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못 뛰어든 거지, 자기가 없다는 거를 알았으면 뛰어들 것도 없고 뛰어들지 않을 것도 없지. 그냥 무사통과지. 그런데 자기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답답한 것도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 내가 없다는 걸 알면 답답한 것도 없어. 왜냐하면 세월이 끝도 없고, 시발점도 없고 종점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람이 이렇게 살아 있을 때에 구경경지를 이루어야지 죽고 나서는 부딪침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나도 못해. 여기서는 이렇게 내가 있고 상대가 있고, 나무니 돌이니 사람들이니 나쁜 거니 좋은 거니 다 이렇게 상대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지만, 그리고 눈 달리고 귀 달렸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죽고 나서는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대승이 되고 살아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찰나찰나 화해서 한 발 디디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디디면 한 발 없어지고, 이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이거 들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이거 하면 저거 해야 하고 이럴 뿐이지, 그건 바람같이 그냥 자꾸 한데로 돌아 달아나가고 만다 이 얘기야. 우리가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듯 말이야. 우리가 만날 했던 거 되풀이하고 있잖어. 먹고 싸고, 되풀이하지? 그리고 자고 깨고. 그런데 그게 남아 있는 게 있느냔 얘기야. 초월해서 그냥 돌아가니까 남아 있다 남지 않았다 이런 말도 붙일 게 없는 거지. 우리 먹고사는 것도 아무것도 붙일 게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한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인생이 돌아가는 게 이 육신이 온 것만 해도, 사람으로 온 것만 해도 참,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걸 한탄 말고 열심히 닦아라 이 소리지. 열심히 닦으라니깐 또 뭐 닦을 게 있어서 닦으라는 줄 알지 말고. 물건이 없는데 닦을 게 어딨고 먼지 앉을 게 어디 있겠니? 육조스님 말씀말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발 한 발 자꾸 없어지는데, 내가 뚜렷하게 있어서 지금 산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야.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환상으로 지금 상대를 부딪치고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서 그 뜻을 알아야 불구덩이도 물 바뀌도, 지옥고도 늠름히 갈 수 있어. 오히려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발자국마다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영화가 따로 없다 이거야. 지금 산 사람들도 탈렌트들이고, 죽은 영들도 탈렌트 영들이고 세상 돌아가는 게 전부 연극이고, 모두 전설의 고향 같고 그래.

그러니까 먹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입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살 양으로 사람 죽이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 한 불도량에는, 그 한 도량은 너무나 신선하고 좋아서 낙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자유롭고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도 괴로움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여기서 살 때 보던 물질적인 것들을 다 보고 해보기도 하고 이러고 돌아가니까 그게 극락이지 어디냐? 그래서 그런 극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중세계를 벗어나니까 극락이다 이거야. 그러니 살아 생전에 이곳에서 그 불도량의 맛을 봐야지 어디 가서 다음 세상에 그런 것을 기대할 데가 있겠나?

질병의 고통 벗어나려면…

문 사람마다 불법에 드는 인연이 다르지만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 동안 무척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년 전부터 스님의 법을 만나게 되어서 제게 닥친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안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다 스님의 좋은 가르침 덕분으로 생각하오며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니 사고를 당하거나 또 오랜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니고 다루어야 궁극적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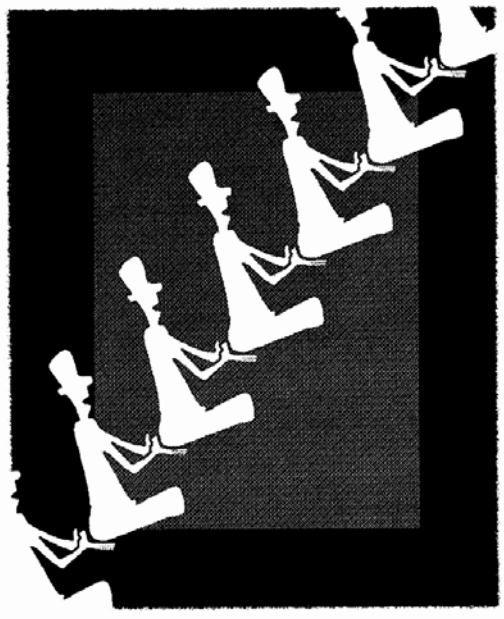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 부처님이 나투시는 법을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못 보실 겁니다.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왔고 꺼지는 것만 보게 되지 전력이 들어으고 나가는 거는 모르듯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말하자면 이 천지와 우주 전체에 삼라만상이 직결돼 있는 그 마음, 가설이 돼 있는 직결처에다가, 즉 자기 안테나에다가 모든 거를, 아픈 것도 ?너밖에 낫게 할 수 없어.?하고 거기에다 놨을 때는, 부처님 마음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순간 한찰나에 나투셔서, 약사로 나투어서, 즉 말하자면 낫게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자기의 그릇이, 즉 마음의 그릇이 돼 있음으로써 부처님의 마음이 나투시니까 즉 응신으로 나투어서 약사로 나툰다는 겁니다, 화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속에 같이 하는 거죠. 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낫게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뜻을 모두들 모르겠지만 이것은 심성과학이라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모두를 과학적으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 때에 '네 몸을 건강하게 이끌고 갈 수 있잖아.' 할 때에 바로 일체제불의 마음은 한찰나에 드시고, 그릇 없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야만이, 즉 깨우친 사람이라야만이 찰나찰나 왕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코스로 거기에다가 그냥 받아준다면 그대로 약사로 화하셔서 거기 응해주십니다.

그러니 정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재료로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코 믿어야만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참 생명수의 맛을 볼 것입니다.

다음에도 부부가 되는지…

문 예전에 스님께서 수레를 끄는 당나귀와 그 당나귀를 심하게 다루었던 주인이 남편과 부인으로 나와서 반대로 무척 맞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부부로 살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할 적에 똑같이 또 부부로 태어납니까? 몹시도 궁금합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구박을 많이 해서 다음에 몸을 바꿔서 태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답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답니다. "당신은 여자가 되고 나는 남자가 되고, 한번 바꿔서 살아볼까 하노라." 그랬답니다. 그렇게 수 해를 사랑을 하면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그 이튿날 부인이 마저 죽더랍니다. 그 부인과 남편이 하루사이에 죽으니까 장사도 같이 지내버리고 제사도 같이 지냈답니다. 그런데 자식들 꿈에 말입니다. 부부가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얘야! 아버지는 너희 자식으로 나가느니라. 그런데 나는 여기서 태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 "너희 아버지는 너희 집 딸로 태어나고, 나는 저기 가서 너희 아버지보다 먼저 태어나야겠다." 이러더랍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를 아내로 삼으려면 내가 먼저 태어나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더랍니다. 자식이 꿈을 꾸고선 야! 이상하다고 나한테 물으러 왔어요. 정말 있었던 이야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하셨느냐니까 평소에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랬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먹고 가느냐는 게 제일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바세계의 모든 거를 다 그냥 훌떡 벗어버리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선한 것도 놓고 악도 놔라!" 이랬거든요, 우리 공부하는 데는.

왜냐하면 선하게 살다보면 또 악이 붙어 돌아가니까 선도 놓고 악도 놔야 되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굳이 뭐, 나온다 들어간다 할 것도 없죠. 왜? 여러분이 난데 내가 왜 몸을 받아서 또 나옵니까? 여러분도 이왕 나온 몸들도 많은데, 그렇죠? 아, 순간순간 여러분이 내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사람 모습을 좀 잘 그려가지고 나왔다 하면 너 집이 참 잘 돼 있구나, 그러면 거기 좀 들어가서 며칠 살다 나오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유자재하고 살 생각을 한다면 그렇구요. 그렇지 않고 살면서 싸우고 고생을 하고 그냥 아웅다웅하면서도 정이 드는 것이 좋다면 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그 몸 그 모습으로 얼마 더 살겠습니까 화나더라도 사랑하세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구박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살면 그 몸으로, 그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시면서, 그저 화가 나시더라도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또 남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언제나 지혜로운 폭넓은 그런 대장부로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아주 늠름하게, 수백 명 수천 명을 자기의 한생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장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스님! 불교TV 나옵니다.

2002년 3월부터 전국 산중사찰 및 난시청 지역에서도 불교TV 시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상포교의 새로운 장이 될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이 2월말까지 예약가입 할인 행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예약 가입자에 대한 혜택
- 예약가입기간: 2001년 12월3일부터 2002년 2월28일까지
- 예약가입기간에만 위성수신기를 한대당 69,000원에 할인판매 (3월부터 정상가격으로 환원 200,000원이상)
- 가입비 및 설치비: (40,000원) 무료
- 1개월 무료 시청

월 시청료
- SKY-ON(불교TV를 비롯하여 32개 채널+오디오 10채널): **월 8,000원**
- SKY-무비(SKY-ON+영화채널 7개등 총 39개 채널+오디오 10채널): **월 12,000원**
- SKY-패밀리(전채널 시청 총 72개 채널+오디오 40채널): **월 18,000원**

btn

예 약 가 입 전 화
불교TV 사업부 02-3270-3366~7

※수신기 설치는 2002년 2월부터 3월중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기존 수신기(KBS시청 가능수신기)는 희망시 교체가능 합니다.

24시간 어린이집 '퇴근 늦어도 OK'

구룡사 운영 강남 선재 어린이집 등 서울에 70곳



◇서초 연꽃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육교사와 함께 장난감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다.

여성의 야간근무와 엄마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24시간 어린이집이 서울시내에만 70여 곳 운영되고 있다. 구립이 2곳, 사립이 50여 곳이고 이중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곳은 구룡사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강남 선재어린이집, 서초 연꽃어린이집, 서초 장미어린이집이 있다.

야근 잦은 맞벌이 · 자영업자들 큰 호응

보통 어린이집은 '종일반'이라고 해도 오전 8시에 맡기고 오후 6~7시경에는 데리고 와야 하지만 24시간 어린이집은 밤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야근이 잦은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강남 선재어린이집에는 주간에 180여명이 있고 이중 오후 6시 이후까지 남아있는 어린이는 30~40명에 이른다. 또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는 아이도 하루 평균 5명 정도다. 선재어린이집 이영순 원장은 "야간보육은 안전이나 아이들 건강문제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지만 아이들이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수용 시설이 많지 않아 연령별 대기자가 40~50명 되는 곳도 있다. 24시간 보육기관은 기본적인 시설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쉽게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은 매년 3월에 받지만 수시모집도 가능하다.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어린이, 편부모가정, 맞벌이 부부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보육료는 공립의 경우 기본 보육료(만 1세 미만 19만 5천원, 만 2세미만 15만 9천원, 만 2세 이상 15만원)에서 야간은 20%, 24시간은 50%의 요금이 부가된다. 사립 시설은 약 60% 정도 더 비싸다.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보육정보센터(http://children.metro.seoul.kr)나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http://www.mahayana.or.kr)에서 얻을 수 있다.

■서울시 24시간 어린이집

위치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
강남	선재어린이집	561-3421	대치4동 916-23
강동	둔촌어린이집	474-7445	둔촌동 81-4
강북	미아1동 어린이집	986-2612	미아1동 791-2119
강서	까치산어린이집	699-2181	화곡8동 341-11
관악	신봉어린이집	877-3121	봉천본동 942-29
금천	금천어린이집	803-1366	시흥3동 791-42
금천	기쁨어린이집	895-8225	독산1동 1006-144
동대문	초롱어린이집	2245-9544	답십리3동 557-1
동작	백로어린이집	816-1031	상도2동 산7-1
서초	연꽃어린이집	521-1750	서초1동 1642-15
서초	장미어린이집	3474-6333	서초2동 1363-3
서초	사랑의어린이집	3477-9818	잠원동 60-5
성동	홍익어린이집	2293-2596	하왕십리1동 286-135
성북	안암어린이집	923-6046	안암동 2가 140-4
송파	장원어린이집	412-6661	잠실본동 211-36
양천	다솜어린이집	2646-8909	목2동 131-3
양천	신정3동 어린이집	694-7006	신정3동 1208-5
영등포	꿈나무어린이집	848-1001	신길6동 3741-18
중구	신당1동 어린이집	2233-9478	신당1동 304-720
중랑	보경어린이집	438-3365	망우1동 146-41

여성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여성 단신

미취업 대졸 여성 IT교육

여성부는 미취업 대졸여성 1080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인 정보통신(IT)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IT 핵심 분야인 자바, 보안 분야를 비롯해 웹 디자인, IT 전문 강사 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on-line의 이론과 가상 시뮬레이션 교육, off-line의 실습과 실무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기반, 실무, 고급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과정의 교육비 70%는 여성부, 3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21일부터 기반 과정 21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한다. 참가신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첫 육아 전문방송국 개국

국내 최초의 육아 전문 케이블 방송인 육아TV(www.ugatv.com)가 7일 개국했다. 육아TV는 태교부터 육아까지 0~6세 아이의 성장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채널번호는 각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태교음악 및 아이의 뇌 발달에 좋은 음악을 소개하는 '음악이 있는 풍경', 육아 정보와 민간 속설 가운데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김연주의 I-매거진',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의 출산 체험기와 육아법을 소개하는 '원종배의 나의 사랑 나의 아기' 등이 있다.

책 · 옷 등 재활용품 싼값 판매

알뜰가게 '내친구 초록이'

박완서 씨 소설책 기증
재생비누 · 신상품 불티
헌물건 인식…안타까워

"지금 입고 있는 이 치마도 여기서 이천원에 샀어요"

'내친구 초록이'에서 구석구석 쌓인 물건을 고르던 이미주(43)씨의 자랑이다.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를 위해 2000년 7월 문을 연 알뜰가게 '내 친구 초록이'(위원장 이금현)에서는 개인이 가져온 재활용품과 기업이 기증한 옷, 장난감, 환경상품을 시중보다 싼값에 판매하고 있다.

가게 한켠에 세워진 책꽂이에는 소설가 박완서 씨가 보내준 책들이 꽂혀있다. 박씨가 자신의 신간이나 등단 작가들이 보내준 책들을 이곳에 기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초록이'에는 재활용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7~8명 정도 들른다. 꾸준히 찾아오는 분들 덕분에 재생비누는 나오자마자 금방 팔려 나간다.

이금현 위원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건을 너무 쉽게 버린다"며 "아직 재활용품을 '헌 물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뜻 재활용품들을 가져오고 구입하는 분들이 있어 보람을 느낀다"는 '초록이 지킴이'들이 있어 오늘도 '초록이'의 환경지수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내친구 초록이'에 쌓인 재활용품.

'내친구 초록이'와 친구하기

△자신은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옵니다.(의류, 아동용품, 도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생활 속에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습관을 키웁니다.

△찾아가기: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안암로터리에서 바로 보입니다. 02)926-5616

△이용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후원계좌: 조흥은행 980-04-095494 예금주: 희망학교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 사장상

불교와의 첫 인연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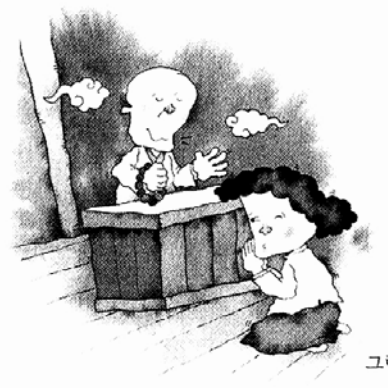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와병중 둘째와 대행 큰스님 친견
한참 보시더니 "10년 기다려라"

사실 나는 가끔 교회에 다니는 어설픈 기독교 신자였고 집사람 역시 기독교와 관련이 깊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고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무조건 집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하에 혜안스님께 집사람을 만나 얘기 나눠주시길 부탁드렸고, 스님께서는 흔쾌히 응해주셔서 스님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다. 스님께서는 집사람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씀을 나누고 가셨다. 집사람은 스님과의 대화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았다. 집사람은 그때 스님께서 주신 큰스님 행장기와 선원에서 출간한 각종 불교 안내책자를 열심히 읽었고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아나갔다. 그러던 중 나는 혜안스님의 안내에 따라 안양에 계신 대행 큰스님을 친견하게 되었다.

나는 큰스님 방으로 올라가 "큰스님, 우리 아이가 아픈데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옷을 갈아 입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 큰스님께서는 "뿌리가 썩었으니 뿌리를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이는 더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이 일상적인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고 오히려 실망스러웠다. 며칠 후 우리는 몸이 아픈 정여를 스님께 보여드렸다. 스님께서는 한참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10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10년 후가 되면 정여가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뜻인지 10년 후에 옷을 갈아입을 것이라는 뜻인지 또는 무작정 10년 세월이 지나가면 너희들도 적응해서 살 것이라는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사실 그때는 10년을 기다리면 우리들의 마음이 변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했었다. 그러나 집사람은 달랐다. 그때까지는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던 집사람이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어느덧 3년이 지나 95년이 되었는데 마침 러시아로 6개월간 출장 갈 일이 생겼다. 나는 정여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싫어 가족 모두 러시아에 가서 살자고 제안했다. 거기서 큰 아이는 좋은 음악선생님을 만나 올해 여름까지 있게 되었다. 작은 아이 역시 러시아에서 엄마와 함께 잘 지내게 되었고 나는 방학 때마다 러시아로 가서 가족과 지내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1999년 12월 방학이 되자 한국에 혼자 돌아와 부지런히 밀렸던 일을 처리하며 정여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샀다. 모스크바로 돌아가기 3일전 전화를 했더니 정여가 조금 불편해 한다고 했다. 나는 가슴이 덜컥했다. 이제 미운 마음 다 사라지고, 삶이란 것이 눈에 보이는 형상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렵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정여도 몸은 어렵지만 충분히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계속)

김규년(울산시 남구 무거동)

귀 대창 불교 건축

-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 환영

귀 대창 목재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 1자 ~ 2자까지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전화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봉 합장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리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1.중방 바지 · 조끼 w150,000 ●재질: 모직(울50%)
2.동방 · 바지 w160,000 ●재질: 모직(울50%)
3.두루막 w140,000 ●재질: 모직(울50%)

누비



4.동방 바지 · 조끼 w200,000 / w60,000 ●재질: 면+기볍고 보온성이 높고급솜
5.동방 바지 w220,000 ●재질: 면+기볍 보온성이 고급솜
6.두루막 w160,000 ●재질: 면+가볍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솜

잔누비 조끼·옴베



※ 장심,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7.서초 바지 w60,000 / w70,000 ●재질: 면+기볍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솜으로 흠흠하게 누볐음
8.조끼+옴베 w60,000 ●재질: 천박고 활동적인 고급재질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5분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지역 대리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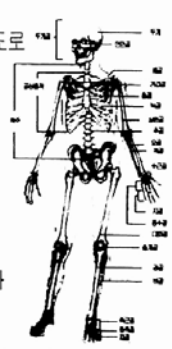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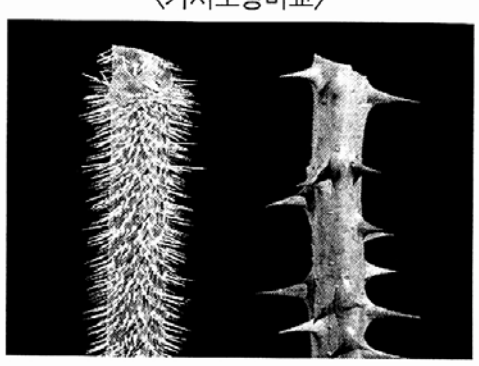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고려가시오가피

가시오가피로 만든 제품은 일반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다릅니다.

GOLD 품질보증보험 1억원가입 1억원지급

〈가시모양비교〉



• 가시오가피 : 바늘가시 • 일반오가피 : 삼각가시

오가피 전문회사에서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신청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가시오가피 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문의전화 02-517-0809, 5333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부전스님 구합니다
011)9719-3879
031)453-4965

행자 모심
고졸이상 40세 미만
대학원까지 학비 후원 함
02)917-3363

각종의식, 불공 기타
스님 필요한곳
은 **연락**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불자간호사 구 함
40세 이상
▶인덕 노인 복지관
02)385-8205~6

조계종 미륵당 고불사
• 석조여래 약사대불 본당
• 서울교당 불지촌
• 기체험 기치료 인생상담
041)566-0358
02)3444-4376
역학, 선체조, 기공문도 모집
www.bulljichon.com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부산)
▷봉고기사 모집합니다.
051)542-4630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문답집 「입뚤에 국회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취모검과 같이 예리한 지혜검의 휘두름, 근기에 응하여 모지람이 없는 자재한 답변에 묵은 갈증이 해소되는 통쾌함을 맛볼 것입니다.
전강, 경봉, 숭산, 묵산 선사님들과의 명쾌한 문답이 실려 있으며 중앙일보의 〈한국불교의 큰스님 선문답〉 열 분의 기사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별답을 함께 실었습니다.
☞ www.zenparadise.com
값 5,000원
☎ 02-522-0122 도서출판 불통

함께 사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기도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055)552-4542
011)855-11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불심이 돈독한
40세~60세의 공양주보살님
인연을 기다립니다
구례 화엄사
061)782-0016

함께 기도하실 비구니 행자스님을 모십니다 (40세이하)
▶대구 송현동
053)627-2357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개발 벤처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국내 최초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황토 베개 개발
※ 전국 대리점 모집
(주) 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문의 대구 (053)474-8228 www.TVbuddha.co.kr
• 신입생 모집(3월 초) - 제 70기
- 도심속 7층 대법당, 최첨단시설(탁아방 있음)
- 정규반, 통신반, 인터넷반 -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서장 등
- 선착순 3천명(연령, 학력제한없음)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의 저자 우학스님 직강 및 큰스님 특강
• 행자(예비스님)모집
- 행자 전문 도량 - 행자원 있음 (전통과 신교육의조화)
- 엘리트 스님양성 목표 (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 3월초까지 입방해야 내년 가을에 수계를 할 수 있음.(조계종)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겉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범패 모집과 사찰을 신도 중 같이 운영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찰부지 12,500평 중 대지 500평
사찰운영 중 범패 초급반 중등반 고급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011)661-9119
031)865-4893

오 참 법 수 행
업장소멸로 청정한 자성을 봉영가로 인해 난치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병시식 영가천도로 완치 자신 항.
※ 바른 수행 설법강좌
- 진정한 수행자의 길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0
호동골토굴 017)859-1389

부전스님 초빙합니다
출가하실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도봉산내에 위치한 전통사찰입니다. 연락을 바랍니다.
02)3491-4848
019)254-4883


사 람 찾 음
송 예 헌
아들이 애타게 기다림
※ 연락주시면 사례하겠음
019)266-6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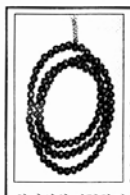
사찰 양도 안내
• 위치 :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부근 시장건물 2층
• 입대평수 : 40평
• 법당 : 삼존불, 지장전, 신중, 산신, 칠성
• 방사 : 3개, 화장실, 욕실, 도시가스
• 보증금 : 2천 5백만원 • 월세 : 70만원
• 시설비 : 절충가
• 특징 : 교통편리지역, 인구밀집지역, 기도영험도량
• 위치 : 성남시
• 부지 : 30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15평
• 산신각 : 3평
• 매가 : 4억원
• 특징 : 1) 주변경관수려함 2) 깨끗한 계곡물 흐름 3) 증개축이 가능한 곳임, 대중교통 인접지역
사찰정보센타 **금강기획** 전화 : 02)736-3578~9 fax : 02)736-3589 휴대폰 : 011-789-2255

행자스님, 처사님 (기도하실 분) 함께사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61-6644

고급 보이차
廣雲貢餅 · 七子鐵餅
外 각종 보이차 전문
017)406-6682

함께 사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기도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055)552-4542
011)855-1116

사찰 안내
• 부지 : 일만평
• 용도 : 사찰 및 사회복지시설
• 위치 : 관악산 사당역 부근
• 자연녹지 주거지역
• 가액 : 평당 25만원
011)241-0408


벼락맞은 벽조목 염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 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염주,단주,인감 도장등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서원합격,결혼성취,부부화합,사업번창,건강쾌차,매매,사고에 방,취업,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주십시요.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 011)9585-4908
염주 大 12만원,中 6만원 단주 6만원, 인감 5만원
농협703088-52-037905 이민택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시 근교
• 대 지 : 900평
• 법 당 : 40평(목재)
• 요 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산세수려하고 계곡 좋음
• 위 치 : 경남 양산 시내
• 부 지 : 180평
• 법 당 : 30평(목재)
• 요 사 : 40평
• 양도가 : 2억
※ 역사 깊은 도심 도량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60세 미만
031)952-7905

법당 보살님 구합니다
▶거재도 노자산 혜양사
055)633-217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3-3004
02)359-7766

사찰 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50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5대
• 가액 : 1억 6천
011)9756-4845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칠성탱 신중탱 8금강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십왕탱 천왕탱 나한탱(오백나한) 산신탱 용왕탱 독성탱
◇ 무속중합탱(각종족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TEL : 041) 541-3545 H · P : 016) 751-3545
홈페이지 : www.bongen.pe.kr
(불모 오재택의 작품사진 2000여장을 보실 수 있읍니다)
불 모 오 재 택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34평
• 부지 : 187평
• 가액 : 1억 2천
• 위치 : 충남 아산
• 법당 : 40평
• 요사 : 50평
• 부지 : 998평
• 가액 : 3억 2천
• 위치 : 강원도(동해안)
• 법당 : 27평
• 요사 : 30평
• 부지 : 230평
• 가액 : 2억 8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근교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6평 • 가액 : 1억 7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사천 삼천포 10분거리
• 부지 65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 40평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 가액 : 2억
차량 진입 가능, 차고 있음
02)379-9900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 사천 삼천포 10분거리
• 부지 65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 40평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 가액 : 2억
011)9528-1686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 580평
• 법당 : 15평
• 삼성각 4평(조립식)
• 요사체 35평(현대식) 교원가능
• 가액 : 9천 5백만원
043)832-4785

기도영험도량안내
• 위치 : 김천 톨게이트에서 20분거리
• 2억 2천(주인직접)
• 산세수려, 교통원활
017)513-4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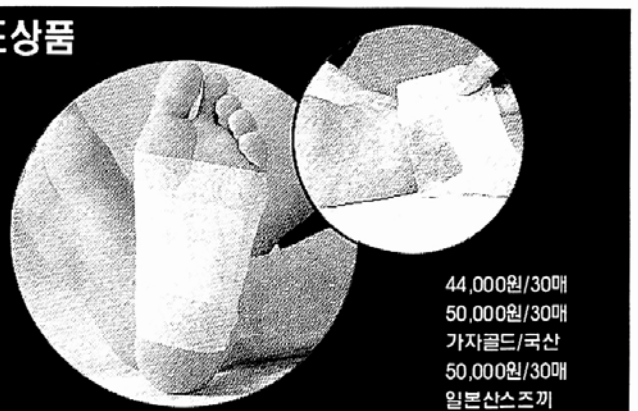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6평 • 가액 : 1억 7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로구 소재(인왕산 자락)
• 부지 : 2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2층 임시법당)
• 요사 : 30평,산신각 15평(2층 목조, 단청)
• 법당터 : 80평(허가필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7억원
• 특징 : 인왕산 자락의 전통사찰로 산신기도처로 좋으며 현재까지 공사비 5억투여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소재 (이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부지 : 230평(종교부지)
• 법당 : 35평(2층 목조, 단청)
• 요사 : 35평(1층)
• 주지실 : 10평(목조, 황토)
• 가액 : 2억 5천
• 특징 : 도심 인근 사찰로 기도정진 할 도량과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동령불사 전국소재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전화 : 02)326-1060, 대구 053)283-9698, HP 011-817-2836

사찰 터 안내
• 위치 :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소백산 국립공원 지역에 옥여봉(큰터) 198번지~220번지 만 2,000여평
• 평당가격 : 30,000~35,000
• 지목 : 전,답,대지
• 용도 : 기도원, 농장, 생수사업, 묘자리
• 15톤 트럭 진입 가
017-337-0479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빌라 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서 나만의 공간이되어 걸방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 0 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300만원(절충가능)
043)832-1580
018)375-0052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며 절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평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관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43)832-1580
018)375-0052


효도상품
44,000원/30매
50,000원/30매
가자골드/국산
50,000원/30매
일본산스즈끼
발은 제 2의 심장 천신의 반사구가 집중 되어 있다
목초수액시트는 동양의학 배독요법의 원리로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 시키기 위해 약초를 개어 붙이거나 고약등을 붙이는 방법과 같은 원리로 개발된 수액시트는 수목의 힘으로 우리몸에 쌓인 노폐물(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 통풍, 류마티스등 다양)을 배출 하여 혈액순환이 잘되어 몸이 젊아지게 되며 건강하게 하여주는 건강법으로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인기 상품입니다.
잠자는 동안 수목의 힘으로 상쾌하게
▲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분, 팔다리가 차고 시리다
●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 운동후 피로 회복에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분, 만성피로 약을 많이먹는 분
● 산후 또는 각종 사고후 고생하시는 분
● 어깨, 팔굽치, 팔목, 허리, 무릎, 발목등 사용
● 류마티스, 관절, 신경 - 불편하신 부모님께 효도 선물
가자목초 (02) 5454-010
농협 063-02-124288 (예금주:이수일)

지리산, 암자, 양도 또는 교환
• 경남 함양
• 준농림지, 건축허가 가능 지역 450평 (대지 120평, 과수원)
• 단층 스라브 1동 및 차고 창고
• 기타사항 지하암반수, 전기, 전화, 진입로포장, 국도변산속, 외딴곳, 전원주택도 가능, 기름 보일러
• 8천만원선 상호교환도 가함
011)836-1148 혜관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구포시장 내 덕천전철역에서 약 5분거리
• 평수 : 60평 방 4개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탱화, 산신탱화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011)804-0918
016)355-4264
055)386-746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근교
• 법당, 삼존불, 지장 108불 교통 및 조건 최적
• 평수 45평
• 큰방 2개, 대형 응접실, 주방
• 부산 포교적지, 사원시설 주차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300만원 (즉시 법회 가능)
011)563-4454

포교당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3층
• 평수 : 35평
• 법당, 방 2개 주방 1개
• 보증금 :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 2천, 절충가능
02)598-1326

신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지리산)
• 부지 605평, 황토 한옥 32평, 요사 9평 자연석 탑 둘레 25m, 연못, 남향 뒷산 5200평 매입 가능
• 가액 : 대출 5000만원에 현금 9천만원 공사비용 1억 9천만원
• 토굴터 2583평 중 대지 100평
• 가액 2천만원
055)96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6만평 도량안에 부지 2000평 동강내리 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 백호가 푸르러며 연못안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청국이고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방 8개 주방 법당 조경이 잘 되어 있음. 천탑 천불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 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건강관계로 급 안내
• 가액 : 2억 5천만원(답사 후 절충)
033)378-0555/018)223-2102

사 찰 안 내
• 서울근교 경관 수려한 광릉 내
• 대지 250평 외 활용가능한 땅 있음
• 건평 요사체 합 70평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02)525-8940

절터 안내
• 마산시 진전면 700평 - 1억 3천 적성산이 안산, 청룡백호 뛰어남 종교부지 400평 전용허가 도로완비 전기 있고 물 해결 기초공사 완공 됨 건축허가 후 착공만 하면 됨
• 양산 배내골 900평 - 1억 5천
현대풍수부동산써브
018-563-9575
(www.pungsu-serve.com)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 법당 2층 40평 방 3개
• 가액 : 2000만원에 60만원 3000만원에 50만원 시설비 900만원
032)887-0987

포교원 급 안내
• 부산시 사하구 낙동로
• 평수 : 40평(4층건물 4층)
• 보증금 : 3천만원 월세 20만원
• 시설비 : 700만원(절충가능)
051)293-0137

불교 이래서 좋다

김성진 청담정보고 3 · IT 신지식인

"마음 들뜰땐 좌선…어느새 안정"



불교가 좋은 이유를 한마디로 꼬집어 얘기하라면 일단 마음을 차분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반복되는 학교 생활을 하다보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럴때면 학교 법당에 가서 좌선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새 스트레스로 인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 앉음을 느낀다. 이런 점이 나를 사찰로 이끄는 이유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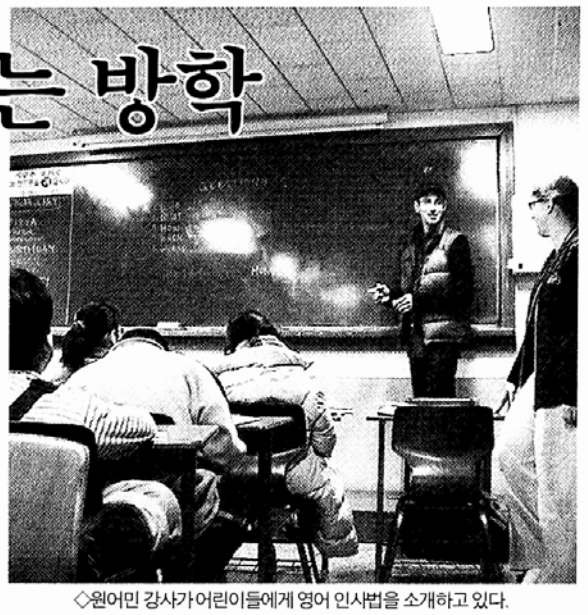
나는 시험을 보거나 컴퓨터 경진대회를 나갈때면 먼저 부처님께 기도를 올린다. 기도하거나 염주를 돌리다보면 긴장감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져 정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마칠 때도 역시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그렇다고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게 해달라는 식으로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려 최적의 마음상태를 유지해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게 가피를 주십사 할 뿐이다. 그러면 마음을 비우게 돼 혹 좋지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절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불교의 매력은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래서 나에겐 불교를 믿는 것 자체가 든든한 버팀목을 가지고 있는 듯한 좋은 느낌을 갖게 해준다.

종교라는 것이 대부분 마찬가지 겠지만 특히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정(靜)'적인 것 같다. 산중의 사찰과 들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독경과 염불소리… 등. 모든 환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마치 불교가 스쳐 지나가면 들떠 있던 모든 사물이 금방이라도 차분히 가라 앉을 것처럼….

'영어야! 놀자' … 신나는 방학

본사 주최 경주 '어린이 영어캠프'



◇원어민 강사가 어린이들에게 영어 인사법을 소개하고 있다.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죠)?"

"This is a pencil(연필입니다) "

17일 오전 10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내 강의실. 20여명의 어린이들이 파란눈의 외국인에게 영어로 질문하자 외국인 강사는 아이들이 이해 쉬운 단어를 써가며 천천히 설명 한다. 이는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하고 어학연수 전문 기관인 CIG Education이 주관한 불교계 최초로 열린 영어 캠프 현장. 지난 14일 기숙사 내 법당에서 입제식을 시작으로 2주간영어 학습에 들어간 캠프 참가 어린이들은 데릭, 칸, 마리안나 등 영어 지도 경험이 풍부한 3명의 캐네디언 강사와 함께 기숙생활을 하며 영어를 익히고 있다.

"처음에는 영어로 의사소통 한다는게 겁이 났는데 외국인 선생님과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니 영어가 쉽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황소정 · 경남 창원 안민초 5년)

"선생님, 언니, 오빠들과 함께 놀면서 영어로만 이야기 하니깐 마치 미국에 있는 것 같아요."(이민영 · 서울 신목초 2년) 어린이들로부터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온다.

5시간 교육외 다양한 그룹활동
불국사 · 박물관 등 문화체험도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참가한 어린이들은 캐네디언 강사들과 1대1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영어 수준에 맞게 두 개 반으로 나눠 영어를 공부한다.

이번 교육은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의 영어 교육시간 이외에 저녁때 이루어지는 영어 단편영화 만들기, 영문 편지와 일기 쓰기, 다양한 주제의 그룹 활동 등 비교적 빡빡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이외에도 강의실 밖에서는 불국사, 석굴암, 국립경주박물관 등 경주지역 역사 문화탐방과 무주 리조트에서의 스키 강습 등 체험학습도 함께 마련돼 생활영어를 다양하고 생생하게 배울 수 있다. 이런 효율적인 프로그램 때문일까. 참가 어린이들은 영어의 바다에 푹 빠졌다.

비록 단기간이지만 체계적인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이번 캠프의 장점. 외국인 강사들은 캐나다 공인 ESL(English Second Language) 교재를 가지고 발음교정에서부터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학습을 시키고 있고, 캠프가 끝난 이후 3개월 동안 E-mail을 통해 영어학습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www.buddhanews.com)으로 매일 참가자들의 교육 활동 모습을 공개한다.

캐나다 유치원에서 5년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마리안나 선생님은 "어린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영어를 배운지 얼마 안돼 대화를 나누다보면 가끔 한국말이 튀어 나오기도 하지만 캠프가 끝날때 쯤이면 영어와 친숙해질 것"이라며 웃음을 내보인다.

김두식 기자 doobi@bucdhapia.com



◇단체부문에 참가한 '계향팀' 이 예불의식을 집전하고 있다.

조계사 청년회 첫 집전대회

대상에 권오국 씨

"마하 반야바라밀다심경 과안자재…"

15일 저녁 조계사 대웅전. 조계사 청년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집전대회로 목탁과 독경소리가 울려 퍼졌다. 참가자가 목탁을 치다가 또는 경구를 잊어버려 머뭇거리는 등 웃지못할 실수를 해도 습의 의식대회여서 인지 사뭇 진지하다. 이번 행사는 청년회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

정우식 조계사 청년회장 등 1백여 청년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집전대회는 개인과 단체로 나뉘어 '예불의식' 에 대한 집전이 이루어졌다.

개인 5명, 단체 3개팀 등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대상(맑은소리상)은 금강부 권오국씨가, 단체상(장엄상)은 정향팀이 각각 수상했다. 또 우수상은 황지연, 장려상은 김은영씨가 각각 받았다.

심사를 맡은 원종스님(조계사 총무국장)은 "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전 신호 역할을 해주는 목탁을 잘 다루는 것"이라며 "목탁은 세게 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의식에 참여한 불자들이 서로 한마음 돼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명나게 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찬불가 동아리의 음성공양도 열렸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담배를 끊읍시다

담배 연기 속에 포함돼 있는 각종 유독성 물질과 발암물질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일찍 질병에 걸려 사망하게 된다.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피우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흡연후의 증상

1. 자주 피로를 느낀다.
2. 불면증에 자주 시달린다.
3. 감기도 더 자주 걸리고, 일단 걸리면 더 오래 앓는다.
4. 정밀작업을 할때 손이 떨린다.
5. 잇몸병도 더 많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
6. 소화불량도 더 많다.
7. 폐활량이 적어진다.

이외에도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우면 1차적으로 기관지를 자극함으로써 염증을 일으켜 기침과 가래를 만들며 기관지 벽이 두꺼워져 호흡기능을 약화시킨다. 또 기관지점막에 있는 섬모기능을 악화시켜 가래를 내뱉는 능력이 줄어든다. 따라서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은 폐밑 깊숙한 곳에 항상 가래가 남아 있어 그르렁 소리를 자주 내게 된다.

잦은 피로감 · 입냄새 · 소화불량 '원인'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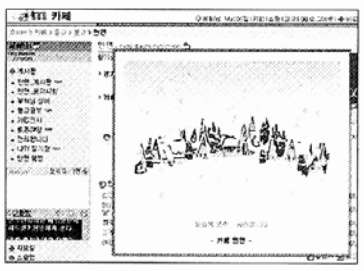
'다음넷 카페 인연'

진지한 이야기들 '가득'
매주 지역별 소모임도

"향기로운 인연의 바람을 타고 들어와 보세요."

이 말에 이끌려 가다보면 다음넷에 개설된 카페 '인연'(http://cafe2.daum.net/inyon)을 만나게 된다. 인연 닿는 중생들이 모인 '인연' 은 1999년 7월 5일 개설됐다. 회원수 6479명을 기록하며 불교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기 카페다.

불교카페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인연' 만의 비결은 무엇일까. 카페 주인 야소다라와 운영자 금강의 부지런함이 카페가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 뿐만 아니라 인연 매니아(?)들이 내 집처럼 꾸미는 다양한 코너들에서도 그들의 숨은 저력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매일 두세명씩 '인연' 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다양한 인연의 향기가 많이 들어있는 카페 '인연' 의 메인 화면.

'인연' 의 교리코너에서는 부처님 생애 연재가 올라와 있고, 불교공부 코너는 '불교교리문답', '경전 해설' 등이 소개돼 있다. 또 토론마당에는 교리문답에서부터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인연인들의 마음 속 깊은 다양한 얘기들로 가득하다. 이외에도 '나의 일기장' 코너는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익명 게시판 역할을 한다. 다른 익명 게시판처럼 함부로 욕을 하거나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 속의 아픔을 나누고자 글을 올릴 뿐이다. '인연' 의 유일한 소모임 '인연♡도서관' 은 지난해 10월 29일 생긴 것으로 법보시, 시청각 자료실, 휴게실로 꾸며져 있다. 도서관이란 명칭답게 이곳에는 교리, 불교관련 자료, 법문, 경전, 인물 자료 등 다양한 정보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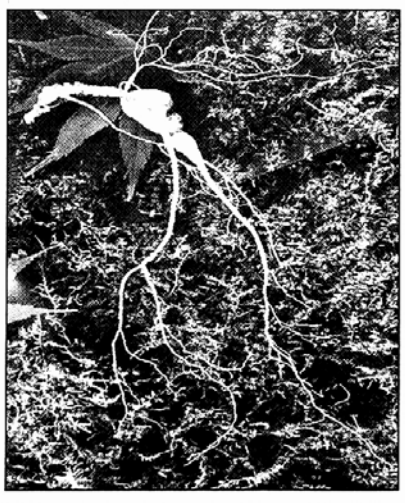
성지순례 활동으로 시작해 교리공부는 물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의 터가 된 카페 '인연'. 인연인 중에는 올 한해 매일 108배를 하겠다는 서원을 한 사람도 있고, 불교공부를 새롭게 열심히 해 보겠다고 팔을 걷어 부친 초발심자도 있다. 서울, 부산, 대전 등 각 지역별 모임도 일주일에 1~2회씩 만남을 가질 정도로 활성화 돼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 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 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55-7555

김동화박사 현창비 건립
한·일 공동, 상주 남장寺에


◇故김동화박사

한국근대불교학 기초확립…7월8일 제막

일제강점기에 일본 리쇼(立正)대학에 유학, 불교학 강사를 역임하며 조국인 한국에서도 한국근대불교학 방법론의 기초를 확립한 뇌허 김동화(雷虛 金東華, 1902~1980)박사. 한국근대불교학의 아버지이자 한일불교학교류의 대부로 존경받는 김 박사의 현창비를 한일 불교학계가 공동으로 건립한다. 특히 한국 불교계가 아닌 일본 리쇼대학 불교학부의 미토모(三友健容) 교수가 준비위원회 대표로서 주도적으로 이 현창비 건립을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일 양국의 현창비건립추진위는 오는 7월 6~7일 일본인도학불교학회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다음날인 8일, 현창비 제막식을 김 박사의 묘소가 있는 경북 상주시 남장사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미토모 교수는 현창비 건립을 위해 일련종 및 리쇼, 구마자와(駒澤), 다이죠우(大正), 도요(東洋), 오오타니(大谷), 류고쿠(龍谷), 미노부산(身延山) 등 각 대학의 불교학자 및 관계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창비 건립은 지난해 김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미토모 교수 등이 1월에 남장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다음달부터 동국대 교수와 현창비 건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 9월에 전국비구니회와 동국대 총장 및 불교대학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남장사 주지스님 등에게 건립취지문을 발송해 한국측 현창비건립위원회가 추진됐다.

또한 10월 23일에는 서울에서 김동화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센터가 문을 열고, 다음 달에는 〈김동화박사 전집〉이 간행되는 등 현창사업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미토모 교수는 11월 중순 일본측 현창비건립추진위원회 조직을 위한 위원에 취임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련종 및 각 대학의 불교학자와 한일불교교류협의회 등에 발송하면서 준비를 착착 진행해 왔다.

미토모(三友) 교수는 "현창비 건립은 김동화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한일 불교학자들이 단결해 과거의 한일 감정을 풀고 국경을 초월한 양국 불교학의 교류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의미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김동화 박사의 관련자료가 흩어져 현창작업이 지연되었으나, 탄생 100주년을 경과한 올해 비석건립을 실현하게 됐다"고 감회를 밝혔다.

근대 한국불교학의 초석을 다진 김동화 박사는 근대적 의미의 불교학 연구방법론을 받아들여 한국불교학 연구의 체계를 세운 학자다. 평생 22권의 저서와 200여 편에 이르는 논문과 논설을 남긴 그의 학문은 초기불교에서부터 소승 및 대승불교, 중국, 한국, 일본불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야를 섭렵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상월대조사 91회 탄신 법요식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1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 제91회 탄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삼귀의례, 대조사 법어봉독 헌향 헌화, 상단권공 및 조사영반, 봉축사(운덕 스님), 축사(조계종 총무원장, 충북도지사, 한나라당불자회장)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 스님 등 천태종 스님들과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유의재 충북도지사, 이광훈 단양부군수 등 2만여명이 동참했다.

이경숙 기자



미륵종 불동암 대웅전 낙성식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 불동암(주지 행인)은 지난 3일 총무원장 송정스님, 불동암 주지 행인스님을 비롯 2백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5개월간의 불사를 회향하는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한편 미륵종은 21일 오후 3시 김해 관음정사에서 '종단화합을 위한 신년법회 및 진해 불모산 산행'을 실시한다. (055)335-6683

화엄산림법회 훈훈한 회향

통도사, 법요식외 국악한마당 · 자비원위문

화엄산림법회 회향식이 열렸다. 통도사는 회향 법요식과는 별도로 11,12일 양일간 열린 국악한마당과 자비원 위문 방문은 예년에는 볼 수 없는 훈훈함과 흥겨움으로 화엄산림법회 회향의 의미를 더했다.

특도사 주지 현문스님을 비롯한 종무소 소임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설법전에서는 화엄산림법회 회향기념 국악한마당이 열렸다. 송해씨의 사회로 진행된 국악한마당은 김성녀씨의 찬불가, 신영희씨의 심청가, 최향순씨의 승무 등이 선보여 불자들에게 국악의 흥을 한껏 전했다. 이날 동참한 불자들은 한달여 동안 계속된 화엄경 공부로 느꼈던 환희심에다 국악인들이 펼친 흥겨운 국악 장단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한편 화엄법회 회향일인 12일 회향법회에 이어 통도사 부설 자비원에서 통도사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 자비원의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어 화엄법회를 값지게 회향했다. 이날 잔치는 대교반 선은스님을 비롯한 학인스님들이 화엄법회 기간인 12월 15일~신년 1월 12일 동안 법회때마다 법문 테잎을 판매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준비했다. 통도사 포교국장 오심스님, 선은스님을 비롯한 스님 25명과 포교국 산하 신행단체 회원들은 떡과 다과를 준비하고 찬불가와 흘러간 옛노래 공연을 펼치며 노인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양산=천미희 기자

福 메주
100% 純우리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깊은 맛을 빚어내는 옛날 메주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시리가 내려앉는 음력 10월이면 해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복매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정진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복매주는 영주에서 재배한 100% 우리콩을 기아솥에 넣어 장작을 때고 삶아 나무통에 넣은 다음, 손으로 디자태어 햇볕과 바람 진흙으로 만든 토옥에서 정성껏 말리고 발효시킨 자연발효 옛날 메주입니다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복매주로 담근 된장을 15년째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정성으로 만든 된장이 보인 쌀뜸물에 풀려 우리 몸의 기운을 돋구듯, 많은 불자님들께서 메주 불사에 동참하시어 무시겁으로 지은 업장님이 시원하지 풀리길 발원합니다
◑ 생산지 포항 금강정사
◑ 메주 1말 55,000원
◑ 참기름과 된장(죽염) 고추장 국간장 분말메주도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주 주문 연락처 : HP 011-203-6567 · 019-820-5587
포항 054) 261-2231 서울 02) 742-0172
부산 051) 514-3568 대구 053) 425-3063
울산 052) 245-0337 대전 042) 862-8638
청원 055) 299-5419 수원 031) 253-2677
군산 063) 452-7852 광주 062) 681-3268
김통 033) 644-9009 복식품

총지종, 신년하례 법회

불교총지종(통리원장 혜암)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총지사 서원당에서 신년하례법회 및 퇴임식을 봉행했다.

록정 종령, 혜암 통리원장 등 종단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수행월, 원봉, 혜산, 송하, 주신제 스승의 퇴임에 따른 은가사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이날 록정 종령은 법어를 통해 "오직 종단을 위해 정진력으로 일선교화에 임해준 스승님들께 감사한다"며 "현직을 떠나더라도 승단을 위해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13일 한마음선원 태국지원 대웅전 개원법회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있다. 사진 오른쪽 두번째부터 송기영 신도회장, 혜원스님, 혜단스님, 남혜정 여신도회장, 전원수 태국한인회장.

한마음선원 태국지원 대웅전 낙성

김국진大使등 300명 참석 점안·현판식

태국 방콕에 소재한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지원장 혜단스님)은 13일 불상 이운법회 및 점안식과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과 광주지원장 혜월스님 등 스님 10명과 4개 지원 법형제 합창단원, 김국진 태국대사, 전원수 태국한인회장, 송기영 신도회장 등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혜원스님은 "승보를 공경하는 태국의 불자들이 마음공부에도 정성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함이 없는 도리로 전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은 600여평의 대지에 50여평의 대웅전과 요사채 2동을 갖추고 있다.

김재경 기자

9천500년전 古代도시 印度서부 해안서 발견

인도 서부 수라트 해안 가까운 얕은 바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9천5백년 전 고대도시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16일 인도 정부가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5천5백년 전의 수메르 문명 유적(이라크 소재)이 인류 최고(最古)의 유적으로 알려져 왔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발굴현장에서는 건축자재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나무와 뼈의 조각들이 발견됐으며, 이들은 기원전 7천5백년 전 유물로 추정된다고 조시 인도 과학기술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인도 고고학자 라지글 박사는 "최소한 9천5백년 전에 이 지역에서 인간이 활동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인도에는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기원전 2천5백년)이 있지만, 이번 발견이 학계의 인정을 받을 경우 연대가 인더스 문명보다 5천년, 수메르 문명보다 4천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게시판

▲무료 한글교실=대구 자비의 전화는 무료 한글교실을 연다. 미주화 · 금요일(주2회)에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한글을 깨치지 못한 성인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 (053)753-9734

▲차량자원봉사자 모집=경산 백천사회복지관은 독거 노인들에게 밑반찬 및 도시락을 배달할 차량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배달지역은 경산시 읍면지역에 주1회 오전 11:30-12:30, 오후 3:00-4:30, 2회 배달한다. (053)811-1347

▲종합상담실 이용자 안내=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아동 · 청소년 문제, 고부갈등, 부부갈등, 성격문제 등 다양한 고민거리를 상담하는 종합상담실 이용자를 모집한다. 상담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이다. (02)385-1351

▲생활보조원 모집=공주 노인요양시설 금강원은 숙식이 가능한 여자 생활보조원을 모집한다. (041)853-1068

▲불교한문학과 개설=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한문학과를 신설, 입학생을 모집한다. 2년 과정의 불교한문학과는 한문법이론, 중국고전, 한문불교경전 등의 교과목이 개설된다. 모집인원은 50명. (02)732-1206

▲조계종 자원봉사단 신년 법회=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3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회관에서 2002년도 조계종자원봉사단 신년법회를 봉행한다. (02)723-5101

목탁소리

여성경시 시정돼야

천 미 희 (부산주재기자)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진리를 부처님은 '무상'이라 했으며 그것은 불교를 규정짓는 말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쉬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불교계의 보수적인 태도가 그러하고 또한 비구니스님이나 여성 재가자들이 스스로를 규정짓는 방식이 그러하다.

이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 얼마전 부산에서 일어났다. 부산교계의 출가와 재가가 지혜를 모아 시민운동에서 제 목소리를 내어보자고 18일 청정화합시민연대를 결성하면서 생긴 일이다. 몇 개월에 걸쳐 준비모임을 가지며 창립을 위한 조직을 꾸린 후 최종 준비 모임을 갔던 날, 한 여성신행단체장이 이런 지적을 했다.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NGO를 표방하는 이 단체의 공동대표에 어째서 비구니스님이나 여성재가가 단 한명도 없느냐?"고.

그랬다. 17명이나 되는 공동대표 명단에는 비구니나 여성 재가자는 단 한명도 없었고 운영위원이나 분과위원장에도 여성의 이름은 단 3명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산불교를 움직이는 많은 여성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현실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그 자리에서 그 지적이 받아 들여져 비구니 스님 한명과 여성 재가자 한명을 공동대표에 또 다른 비구니스님은 고문에 추대됐다.

그러나 공동대표 명단에 여성의 이름 석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누가 불러내 주고, 이름을 올려 주길 기대하기에 앞서 여성 스스로 변화하는 21세기, 시대적 요구에 걸맞도록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영역을 넓히려는 자각을 갖고 적극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활인(活人) 천역(天役者)자 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가?

명예와 양심을 걸고 역학사(易學史)에 한 획을 긋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또, 오행을 모르는 분을 위해 오행에 능통한 분을 위해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다시 썼습니다. - 효 사 -

세태 (世態)는 구체적이고 즉시적인 영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육임 신단(神斷)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시간만 보아 미리 그 사람의 사정과 특별한 비밀과 일의 결과를 묻기전에 내가 먼저 말해 주는 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날치 한 장에 매시간마다 적혀 있어 거기에 쓰여진대로 보고 말씀만 하면, 그 사람의 자세와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있는 책입니다. 육임은 신통(神通)한 학문으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은 아나 접근이 어려워 덮어버리기 십상인데, 그것을 쉽고 빠르게 활인천역자용으로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낮 사(巳)시 (9:32 -11:32 : 서울지역기준)에 사람이 왔거나 전화했거나 가서 만났을 때, 이 사(巳)시 칸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씀만하면 다 맞게 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말할 수 있고 또 적중하는 것입니다.

1. 운세판단 :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 순조로운지 역경스러운지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2. 수법가부 : 천도 시식 굿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즉 굿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표, 또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래방목적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물으러 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4. 정황판단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 초사(初辭) : 문에 들어서자 말자, 전화 오자말자, 가서 만나자 말자 때뜸 내쏟말이 적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귀신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쓰여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6. 모망가부 : 무엇을 묻든, 그 묻는 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즉시 보고 말해줄 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7. 이해득실 :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를 즉시 판단 하여 말해 줄수 있게끔 씨 놨습니다.
8. 선악구별 :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9. 아타발동(我他發動)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고민사가, 자기 스스로 일으킨 일인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10. 원근사 여부 : 묻는 용건이 오래된 일인지, 근래에 일어난 일인지, 자주 반복되는 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미기사(未旣事)여부 :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가 써져 있어 먼저 말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12. 일의 과정 :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일이 시작 · 중간 · 결과로 나뉘어져 좋고 나쁜 것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대로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3. 귀신침범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 시간만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침범하여 발동하고 있는지를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칸에 다 써 놨고, 그 귀신을 제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록에 자세히 밝혀 놨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을 밝히면 반드시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전사귀가 발동했네?」라고 들어서는 사람에게 즉시 먼저 말하면 그 집안에 전쟁터에 나가 운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됩니다. 이것은 육임에서만 밝힐 수 있는 비법으로 천도나 시식, 또는 굿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크게 활용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14. 산소탈 여부 : 지금, 누구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탈 부리고 있는 산소를 써놨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물어서 묻고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 받자마자, 찾아가서 마주치자마자 먼저 내쏴부칠 수 있도록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탈에 대한 제압법도 부록에 밝히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조부, 조모, 부친, 모친, 형제자매, 숙부, 외조부, 외조모 장인, 남편, 아내, 낙태아 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15. 사승여부 : 빌미부정 역시 온 사람이나 전화한 사람의 띠만 알면, 상대가 현재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빌미부정든 띠들을 모두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단번에 기선을 제압당해 버립니다.
16. 가상길흉(家相吉凶)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흉상인지, 길상인지, 이사를 하면 좋을 것인지, 빨리 그 집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부록 해당 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주치는 그 순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7. 이사길방 : 이사를 하려할 때, 어디로 이사를, 어느 날에 시키면, 언제 어느 해, 또는 어느 월에 가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아예 써 놨습니다.
18. 소송승패 : 국가와 개인간의 소송, 집안 수상 수하간의 소송, 타인간의 원고 · 피고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분명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19. 응기판단 : 묻는 일이 어느 월에 될지, 어느 날에 될지를 정확히 써놨습니다. 또 부록에 그 근거를 밝혀 놓았으므로 이를 보시면 참으로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20. 가해(加害) : 어디 방위에 사는 남 · 녀 누가 피해를 가해 올 사람인지를 밝혀 놓았습니다.
21. 길흉성부단정항목 : 뒷면에, 묻는 용건을 즉시 답변해 줄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묻는 내용 22가지별로 그 답을 써놨습니다.
모망 · 공명 · 구재 · 구직 · 시험 · 혼사 · 임신 · 가정 · 이사 · 소송 · 질병 · 매매 · 출생 · 도난 · 심인 · 대인 · 상면 · 채용 · 투자 · 승부 · 가격 · 경작 · 묘지 · 기후
22. 연명상신법 : 뒷면에, 그 사람 띠만 알면 그 사람의 운세를 밝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귀인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빈한지사인지, 벙들 사람인지, 관재가 있을 사람인지, 등등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한글판 「육임1년 신수비결」 출시

1년 중 어느 날이든 그 날과 온 시간, 전화해 온 시간, 가서 만난 시간, 또는 그 사람의 띠만 알면 출생 년월일시가 필요없이 1년 12달의 길흉성부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쉽고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신수 책은 영영세세 두고두고 보는 책이며 정확합니다.
이 책을 능가하는 신수 책은 없습니다. 어떤 오행술도 육임의 정확도와 과단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육임은 신시(神示)로서, 스님이 말씀하면 법력(法力)이 되고, 신명제자가 말씀하면 귀신(鬼神)이 되고, 오행가가 말씀하면 도력(道力)이 됩니다. 감히 자신있게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날치 한 장 칸칸마다에 시간별로 다 쓰여져 있으므로, 바인더로 된 본 책에서 그 날치 한 장만 빼서 책상위에 놓고 하루 동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몇 명이 오든, 전화가 오든, 가서 만나든 몇 시로 보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와도 모두 다르게 구별 할 수 있도록 다 적혀 있습니다.

● 전 13권 · 바인더금박 · 크기 : 540×380×30 · 지질 : 스노우무광 ● 주문전화 : (02) 993-8680
● 입 금 처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도서출판 복문 ※ 각종 카드로 장기 분할 구입도 가능합니다.

매월별 12권 분권 부록 · 비디오테이프 포함
₩1,300,000원 (일백삼십만원)

육임 1년 신수비결 출시 주문받습니다.
값 250,000원(1,450페이지, 8절 미색모조)이고, 보는 날짜와 시간만 찾아 그것을 보고 말씀만 하십시오. 적중합니다. 띠별 월별 길흉이 신통하게 적혀 있어 평생동안 매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산에 대규모 복지원불사 '첫 삽'

대성암, 노스님 복지관 · 박물관 등 조성

2007년까지 완공

불교문화와 복지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릴 '공인문화복지원'이 경남 양산시 대운산 중턱에 세워진다. 13일 기공식을 갖고 시작된 이 불사는 6천평 부지에 공인박물관, 노스님복지관, 사찰음식관, 다도관, 한국약초연구실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 자체가 색다르고 규모도 예사롭지 않아 관심을 모은다.

대성암(주지 원진)은 대운산 중턱에 마련된 불사터에서 공인박물관과 신묘정사 기공법회를 열고 불사의 첫 삽을 떴다. 이날 기공식에는 도봉 양산불교연합회 회장, 하순봉 한나라당 부총재, 안종길 양산시장, 이수덕 불교TV 사장 등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원만한 불사 회향을 기원했다.

신라시대 사적지로 알려진 해발 742m 고지에 탑골을 복원 조성하면서 불사를 시작한 대성암은 우선 2년 계획으로 대지 6천평에 1천평 규모의 신묘정사 법당과 9백평의 공인박물관을 건립한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공인박물관이 완공되면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삼국시대의 금동여래입상,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14세기), 초의선사 영정(19세기)을 비롯해 불화, 도자기, 영정, 전적 등 1천여 점을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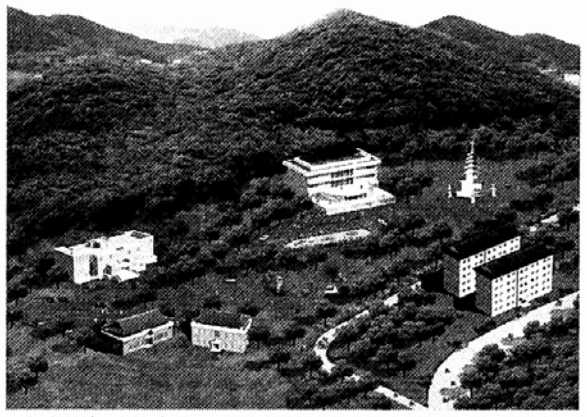
이미 건축허가를 마치고 진행 중인 신묘정사와 공인박물관 건립 불사 진행과 함께 4년 계획으로 총 건평 5천평 규모의 노스님 복지시설, 평생교육원, 한국약초연구실, 사찰음식관, 다도관 등도 차근차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찰에만 전래되는 다도, 사찰 음식 등의 계승과 전수를 위한 다도관, 사찰음식관 등과 함께 특히 관심을 끄는 불사는 노스님복지관. 노스님복지관은 2동의 건물에 2백개의 호텔식 방을 마련, 평생을 수행해 온 노스님들이 남은 생을 여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체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 불사는 '불교의 변화'를 주창해 온 원진스님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불교문화, 불교복지, 불교교육의 도량 마련을 위해 불자들이 함께 진행하고 함께 회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성암 신도회를 중심으로 1불자 1탑 봉안 운동을 벌이며 후원회원을 모집하는 등 각종 불사를 위한 불자들의 원력을 모으고 있다.

원진 스님은 "이 불사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공간은 불자들이 직접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개방되며 특히 노스님 복지관은 불교계의 당면 과제인 노스님의 노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복지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대성암(주지 원진)이 2007년까지 대운산 중턱에 마련할 '공인문화복지원'의 조감도.

미국내 한국사찰 54곳

한인교회는 2924곳

미국내 한국사찰이 한인교회의 1/60에 불과한 총 54개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는 한국계 기독교 신문 크리스천 투데이는 최근호에서 지난해 미국내 한인교회 수가 2천924개에 달하고, 이는 2000년보다 161개가 증가한 숫자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한국사찰의 수는 한인교회 1년 증가분의 1/3에 불과한 상태이다.

강유신 기자

소년소녀가장 돕기

'어린이 불교합창제'

광주 한마음선원, 27일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스님)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제4회 어린이 불교합창제'를 27일 오후 5시 광주 5 · 18 기념 문화센터에서 갖는다.

광주지원 어린이 합창단은 이번 합창제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대행 큰 스님의 선시를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한다. 또한 안양 본원 어린이 합창단과 광주지원 청년합창단, 광주 불교사암연합합창단이 특별 출연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동참할 계획이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위파사나 '보리수 선원'

압구정동 이전 개원

남방불교의 수행법으로 유명한 위파사나 수행처인 '보리수 선원'이 서울 압구정동으로 이전, 26일 개원법회를 연다.

협소한 신설동 시절을 접고 240평 규모의 새 수행공간을 마련한 보리수 선원은 좌선, 행선이 가능한 80평 규모의 수행방을 비롯해 탈의실, 출판실, 면담실 등을 갖췄다.

월 2차례의 초보자 과정 및 매주 토요일의 경험자 과정이 1, 2부로 나뉘어 열리며 2부는 철야정진 프로그램으로, 묵언과 오후불식으로 진행된다. 새 장소는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단지 내 라이프상가 옆 3층 건물. (02)517-2841

오종욱 기자



日사찰에 '장보고碑' 건립

삼국시대 후기 동서양을 잇는 인류사상 최초의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했던 '해상 무역왕' 장보고 청해진 대사를 기리는 비가 13일 일본 교토의 유명 사찰인 히에이산 엔랴쿠지(延曆寺)에 건립됐다(사진).

전남 영암군 도갑사에 있는 도선국사 수미왕사 비를 모델로 4.2m 높이로 세워진 '장보고 대사 비'는 9세기 일본 불교 혁신의 기틀을 마련한 엔닌(圓仁) 스님이 당나라에서 활동할 때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었던 장보고 대사를 기념할 비를 세워야 한다는 엔랴쿠지의 취지를 전남 완도군 당국 등이 받아, 엔닌 스님 탄생 1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11년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오종욱 기자



◇설성봉 씨의 다비식이 12일 수자타아카데미 운동장에서 열렸다.

인도서 구호활동 JTS 설성봉씨 10일 괴한에 피살

인드 비하르주 둥게스와리에서 불가촉천민 구호활동을 펼치던 정토회 제이티에스(JTS)의 구호활동가 설성봉(46 · 부산) 씨가 수자타아카데미에 침입한 무장 괴한들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불자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정토회에 따르면, 설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15분쯤(현지시각) 교문 밖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옥상으로 올라가 "누구냐"고 묻는 순간 6~7명의 무장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설 씨는1980년 부산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철강회사 간부까지 하다가 1998년 굶주리는 북한 동포의 참담한 실상을 듣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정토회의 북한지원 사업에 뛰어들었다. 1999년부터는 부산 정토회 제이티에스 담당으로 인도 및 북한지원사업을 펼쳤으며, 2001년 6월 인도 둥게스와리 수자타아카데미의 기술중학교 건물 신축공사 현장책임자로 파견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설성봉 씨는 12일 영결식 직후 수자타아카데미 운동장에 마련된 다비장으로 운구돼 일유 · 법륜 스님 등 한국 조문객 1백여 명과 인도 현지인 1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비식이 치러졌다. 같은 시각 정토회 산하 전국 6개 정토법당에서도 설성봉 씨의 영가천도재가 마련됐다.

강유신 기자

"종단차원 '방생위' 설치 필요"

환경단체, 조계종에 제안

올바른 방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단 차원에서 방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레생태기행,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환경교육원 등 불교계 환경운동 실무자들은 16일 가진 '친환경적 방생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방생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생의 사회운동화는 물론 시대에 맞는 방생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생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종단차원에서 방생지침서를 제작하기 위해 실무단체들에게 제언을 요청한데 따라 나온 것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은 "그동안 어떤 종이, 어디에, 얼마나 방생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방생위원회를 통해 방생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방생행태 개발, 방생 신고 접수 및 관리, 방생지와 방생 시기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방생심의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만해스님 후손 5명 북한에 살고있다

월북아들 보국씨 자녀들

슬하에 외동딸 한 명만 둔 것으로 알려진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에게 출가 전 낳은 아들이 있었으며, 그 아들의 후손 5명이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에 살고 있는 한명심 씨는 북한 신문 〈통일신보〉 2001년 12월 29일자에 기고한 수기에서 자신을 "만해의 아들 보국 씨의 딸"이라 소개하고 "나(자신)를 포함해 5남매가 현재 북한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씨는 "할아버지(만해)는 창씨개명을 거부한 채 자녀들을 일본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가르쳤으며, 아버지의 이름도 '한 몸 바쳐 나라를 보위하라'는 뜻에서 '보국'이라 지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평불협, 3월17일 세종문화회관서

남북 결식아동돕기 통일음악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 이하 평불협)가 3월17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남북한 결식아동을 위한 '통일음악회'를 개최한다.

평불협은 8일 평불협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통일음악회를 포함한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평불협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열리는 이번 '통일음악회'는 가곡 · 대중가요 · 무용 · 합창 등 여러 장르에 걸쳐 국내가수와 탈북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남북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데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확정된 평불협의 주요 사업은 △평양 아리랑 축제 참가(4~6월중) △남북한 어린이 돕기 5대 도시 순회 음악회 △한몽불교 친선협회 공식 발족식(4월중) △제21차 윤이상 음악회 참가(10월중) △제6회 대한민국 통일 서예대전 개최(10~12월중) 등이다.

강유신 기자

'월간 시니어' 2월창간

50세 이상의 시니어 세대를 겨냥한 전문잡지 〈월간 시니어〉가 창간된다.

'아름다운 인생,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으로 오는 2월에 창간되는 〈월간 시니어〉는 시니어 세대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 · 의학 정보를 비롯해 일자리, 부업, 문화, 여행, 레저, 스포츠, 재테크, 종합복지관 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다룰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추위 녹이는 효행

어머니에 신장 바친 아들

만전 신부전증으로 10년 째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군복무중인 아들이 자신의 신장을 떼어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윤여현(22 · 사진) 군. 1991년부터 내막염을 앓았던 어머니 염동식(48)씨는 내막염 치료로 신장 기능이 나빠지게 됐다. 급기야 어머니 염씨는 작년부터는 복막투석을 받아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됐다.

윤군은 아버지와 동생과 얘기 끝에, 어머니의 조직이 적합한 자신의 콩팥을 떼어내어 어머니를 살리기로 결심, 지난 16일 성공적으로 장기이식 수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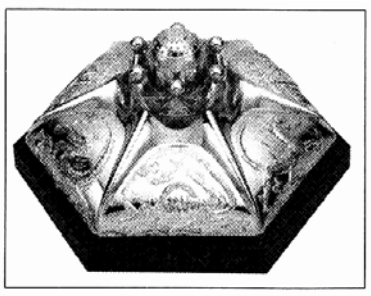
어머니 염 씨는 "자식이 아프다면 부모가 못 줄 것이 없겠지만, 내 몸이 아파 멀쩡한 자식의 살을 째고 콩팥을 떼어 받는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며 아들에게 미안해했다. 생명나눔실천회 (02)734-0777

김철우 기자

좋은 명당을 만드는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흑 명당육氣방은
좋은 명당터가 되도록 합니다.
절터, 집터, 공장터, 상가(점포)터에
좋은 명당이 되도록 하십시오.
地氣와 生氣가 응집되지 않는 터는 악터나 사기터 이므로 액운과 우환이 따르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조상의 묘지터를 좋은 명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터란 氣가 없으면 명(命)을 다한 것이므로 잘 되기를 바래서는 안됩니다.

※ 명당육氣방은 가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사찰 암자 철학관 풍수학 氣학문을 하시는 곳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사용하십시오.

1.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이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많으신 분
5.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6. 돈이 새어 나가고 융통이 안되시는 분
7. 공부를 안하고 자녀가 말성을 부리는 분
8. 부부화합이 잘 안맞어 힘드시는 분
9. 집터나 묘터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10.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
11.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
12. 관재구설과 액운이나 상재로 시달리는 분
13. 수험생 합격 기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 하십시요.

※ 좋지 않은 사주팔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864-7878
미국 일본 호주 등등에서 사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요.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가격 : 1호 10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흑육氣방, 집터, 묘지, 조상합동묘, 3천카우스 25만원 홍혈장전용 30만원

"세상의 온갖 악(惡)을 경계하며 불법(佛法)에 귀의하는 중생을 수호하는 호법신으로서…
부처님을 모신 사찰은 모두 청정도량임을 증명해주시는 사천왕 4분을 모신"

사천왕(四天王) 병풍



규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 사천왕이 모셔진 사찰은 신도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고 사찰이 나날이 번성한다 하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사찰내에 모셨으면 하고 원하시던 사천왕이 장소에 구애 받음이 없이 영구적으로 편리하게 모실수 있도록, 목재와 황동판을 사용하여 성품(聖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포교당이나 작은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모시기가 적절한 규격으로 조성되었사오니 이번기회에 사천왕 네분을 모셔 보십시요. 원력을 세우신 스님께는 큰 도움을 주실것이며, 스님의 신도들을 악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심(佛心)을 더욱 깊게 넣어주시어 도량의 번성에 큰 기여를 해 주실것입니다.
현재 본 사천왕 병풍을 보신 신도들이 자신의 공덕을 짓기위해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사천왕 병풍을 보시하고자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오고있습니다.

특징
① 법당이나 요사채 등 신도들이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펼쳐 놓을 수 있도록 사천왕을 2폭씩 나누어 모셨습니다.
②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네분 모두 각각 황동판위에 모시어 표면에 특수 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 되지 않으며 먼지 등이 묻었을때는 고운 융걸레 등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2폭씩 양쪽으로 펼쳐놓았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접 보시기를 원하시면 날자를 정하여 스님을 찾아 뵙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법기보살 主處, 화엄내력 지닌 사찰



◇소실문화재 남북공동복원의 첫 사례가 될 신계사의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가 지난해 11월2~10일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실시됐다. 현재 신계사터에는 삼층석탑만이 남아있는데 석탑조차 기단이 깨어지고 화재로 손상을 많이 입었다. 신계사터 발굴조사단이 현장조사전 탑 앞에서 예불하는 모습.



◇신계사는 6·25 한국전쟁때 소실됐다. 해방전 신계사의 모습.

잊혀진가람 탐험

금강산 신계사 터



김유신 등 이곳서 3국통일 발원
폐허위엔 쓰러질듯 3층 석탑만

폐허도 아름다운 산, 그 산이 바로 금강산이다. 산 전체가 하늘의 층계에 분재(盆栽)를 올려놓은 듯 아기자기한데, 그 향기로운 속내마다 세월의 삭정이인 듯 망가진 절터들이 뒹굴고 있으니, 폐허조차 한 폭 '주밈'으로 들어 앉힌 산이 금강산이다.

금강산의 격조는 변화의 아름다움에서 나온다. 언제 보아도 같은 얼굴인 고정미(美)가 아니라, 철따라, 갈 때마다, 찾는 이의 마음에 따라 그때마다 적절한 미를 연출해 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같은 골짜기도 봄에 보면 '금강'이요, 가을에 보면 '풍악'인 것이다. 살아있는 아름다움이 금강의 아름다움이며, 폐허조차 살아있는 폐허가 또한 금강의 폐허인 것이다.

금강의 미를 구경꾼이 아닌, 폐허조차 아름다움으로 탐험하려는 이는 보았을 것이다. 밤 새워 뱃길을 달려 휘청이는 발길을 '창터 솔밭'으로 접어들면 이내 종아리가 뻣뻣해 지고 도열한 미인송(松)들처럼 일어서고 싶은 것을. 미인송들의 팔장을 끼고 쉬엄쉬엄 '극락고개'를 넘으면 거기 문필봉(文筆峰) 무릎아래 아직도 한 폭의 폐허가 고즈넉히 숨쉬는 것을—

그렇다. 신계사의 폐허는 한떨기의 연꽃이다. 붉은 솔잎 한뜸한뜸 수(繡)를 놓는 비탈 밭 한 가운데 쓰러질 듯 3층석탑만이 빈 꽃대인냥 홀로 서서 완벽한 폐허의 아름다움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의 수많은 폐사지 가운데서도 유독 신계사의 폐허가 마음을 아리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유점사나 장안사의 폐허를 아직 상면조차 못한 까닭도 있겠지만 신계사 터만은 다른 폐사지들과 달리 어디선가 마른 연꽃향내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물기조차 말라버린 세월의 밑바닥에 주춧돌만 듬성듬성 드러낸 이 나라 불교역사의 하상(河床)을 보는 듯 하기 때문이다. 원산을 거쳐 삼일포로 가면, 속초에서 설봉호를 타고 장전항에 하선(下船)하면, 아직은 영신동(靈神洞)이나 선왕목을 거쳐 외낙재령을 넘을 수 없기에 당장은 외금강입구를 기웃거리며 온청리의 향기인 신계사 터 폐허와 만나야 한다.

금강산이 비록 법기보살의 주처이고 신계사가 화엄(華嚴)의 내력을 지닌 사찰이라고는 하나, 오직 망가진 돌탑 꽃대 하나만을 드리운채 훨 되련 뜰 앞 가득 복사꽃을 터트리는 신계사는 분명 고온(高溫) 선생의 말씀대로 상제보살(常啼菩薩)을 닮았다. 선생은 삼년 전 북녘의 산하를 탐방하면서 이곳 신계사에 올랐을 때 '반야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늘 울기만 한다'는 그 상제보살을 떠올리셨다. 근대의 고승인 스승 효봉曉峰스님이 출가한 절로 그 어려운 구도의 체취를 느끼셨으니, 어찌 상제보살의 심정이 되지 않으실 수 있었으랴.

신계사는 신라 불교의 전래초기인 법흥왕 6년 (519년) 보운조사(普雲祖師)가 창건한 고찰이다. 1951년 6월24일 미공군의 폭격으로 전소되기 까지 역사의 구비마다 피고지며 이 나라 민중들에게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부처님의 법음을 함께 전해왔다. 이 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기 무섭게 보운조사는 신라 영토의 최북단인 이곳까지 올라와 신계사를 창건한 것이다. 그런 연유로 신계사는 예나 지금이나 통일을 발원하는 불자들의 원력을 대물림 하고 있다. 기왓장도 향로도 다 잃어버렸어도 오직 이 전통만이 신계사의 유적인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번 맺은 인연은 결코 쉽게 떨치지 못하는 것이 법계의 정(淨)한 이치이리라. 일찍이 김유신(金庾信)과 그의 아내 지소부인(智炤夫人)이 이 절에 들어 삼국통일을 기원하였고, 고려 초에는 법인국사(法印國師)가 이 절에 들어 후삼국의 진정한 통일을 염원하였으며, 이제는 남북의 불자들이 이 곳을 중심으로 민족 재통일의 진원지를 삼고 있으니, 반도의 통일은 어쩌면 금강산 신계사로부터 열리는 것이 이 땅 깊이 숨겨진 통일의 비전(秘傳)이 아니겠는가.

신계사의 절 이름은 처음에는 신계사(新溪寺) 였으나 보운조사의 신이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신(神)자로 고쳐 썼다고 한다. 보운조사는 절 옆을 흐르는 신계천의 물고기들이 살생을 피할 수 있도록, 주력(呪力)을 베풀어 모조리 창해(滄海)로 몰아냈는데, 지금도 이 계곡에는 그럼뜻한 물고기들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다시 줄지어 저 동해를 헤엄쳐 이 계곡을 오르는 남녘의 물고기 떼들은 또 무엇인가.

세존봉, 관음봉은 찾아올 때마다 그예 마주보며 미소를 짓는다. 1995년 5월 삼일포를 지나 '금강산 려관'에서 일박하며 벚꽃잎 흩날리는 구룡연 계곡을 바라볼 때도 그러했다. 그 사이 동토(凍土)의 땅에도 해빙의 바람이 불어 신계사 복원을 기원하는 산신제가 열리고, 봉축 연등이 걸리기는 했어도, 신계사의 폐허는 아직도 국보유적 95호의 폐허인 채 그대로이다. 잡석들이 기단이 되어 적막을 떠받친 돌탑의 세월, 의좋게 거느리던 부속암자들, 하나도 그 기별을 듣지 못해도 무성의 한 그 세월, 묵묵히 참아내는 그대로이다. 이 땅의 백성들이 삼재팔난으로 뒤척일 때마다 신계사 역시 운명을 같이하며 역사의 이랑에 피고 지기를 거듭했으니, 지금은 꽃 지고 무상의 열매만 남은 다시 그 때인 것이다.

신계사는 지금까지 서너 차례 소실과 중수를 거듭하였다. 한번 태어나면 나고 죽음이 일여(一如)하여, 상(相)이 있거나 상이 없거나, 그 생명이 영원한 것이 사원의 속성이니, 신계사 또한 그러하여, 망친 이도 되살린 이도 지금은 모두 땅 속에 묻혀 사대(四大)법신으로 신계사를 외호하는 것이다.

신계사를 되살린 이들로는 고려 때의 묘청(妙淸)이 있었고, 조선조에는 뇌운대선사(賴雲大禪師)와 대은선사(大隱大師) 같은 이들도 있었다. 또 근세에는 대응당(大應堂) 같은 고승이 이 곳에 머물며 화엄의 묘체를 설했으니, 한꺼번에 3천여 신도들의 귀의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고려 말 비운의 주인공 정심(淨心)스님 묘청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 그는 이 곳 출신으로 평양천도를 주장하며 민족 주체성을 되찾기 위해 고뇌한 사문이었기에 요승(妖僧)이 아닌 시국사범이었음을 유념하고 싶다. 그가 역사에 남기고 싶었던 말들은 무엇일까. 지금도 울창한 저 송림들의 어깨에 주렁주렁 매달린 솔방울들이 그가 남기고 싶은 말들이었을까. 어디 묘청의 사연뿐이랴. 1천5백여 성상을 지나며 이 절을 거쳐간 무수한 운수납자들도 저 솔방울의 수 만큼 헤아릴 수 없으려니, 가로 세로 표식만 남은 대웅전, 극락전 터에도 그들의 남겨진 사리인냥 솔방울들이 함부로 뒹군다.

임진왜란에 이어 한국전쟁 시기에 두 번째로 다시 넘어진 신계사는 그 충격이 얼마나 강했던지 반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어서지 못한다.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던 신계사도 이번만은 그 공기의 후유증이 얼마나 지독한지 좀처럼 제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소문에 산 넘어 유점사, 장안사도 연이어 넘어진 뒤 무엇이 두려운지 아직까지 일어서지 못한다. 부처님 도량을 멸실하는 것도 4바라이(波羅夷)죄 가운데 하나라고 했던가. 지난해 8월 불교인권위원회 진관스님은 미군들의 이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 배상을 청구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그 공허함은 이 땅의 불도량을 지켜내지 못한 불자들에게 자괴감만 더해주는 것이었다.

얼마 전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신계사 터의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였기에, 그 조심스런 첫 삽은 통일의 의지를 심는 매우 소중한 작업이었다. 기울어진 돌탑의 문양을 먹물로 찍어내어 배시시 눈뜨는 마애불의 미소를 탁본하며 보았을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 얼룩진 민중들의 상처이며, 그 고통이 부처님의 가피로 치유된 연꽃의 문신인 것을...

통일의 분위기도, 복원의 의지도 아직은 미덥지 않아 돌아오는 뱃길은 언제나 허전하다.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는 비단 무너진 전각들의 사실조사도 중요하지만, 남북 불교간, 당국자간 신뢰 지표조사도 더 없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남북(南北)간, 남남(南南) 불자들간 신뢰지표도는 우화하는 공해상의 거리만큼 출렁이고 혼미하다. 그러나 한번 열린 신계사 뱃길은 기어히 열릴 것이다. 연꽃을 향해 벌 나비 흡추듯 뱃길이 아니면 육로로도 돌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유점사 범종도 다시 울리고, 보덕암 쇠기둥에도 새순이 돋으려니, 신계사 마른 돌탑은 또 다시 연꽃으로 만개하여 온 정리 큰 마당엔 법기보살 염주알인 듯 팔만사천 솔방울들 흘러내리리라.

<다음은 강원도 양양 진전사터 편>



•실용신안 20-2001-0029858 •의 장 30-2001-14622호 •상 표 40-2001-19831호

경전신앙의 상징, 법륜장 (담마차크라)

경전신앙의 상징, 법륜장(윤장대)을 한국불교 정서에 맞게 제작하여 사찰에 봉안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법륜장을 돌려도 팔만대장경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신앙적인 효과를 내는 법륜장을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륜장은 티벳이나 몽골에서는 라마승과 목수가 택일을 하여 나무를 베고 기도와 주문을 외면서 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찍이 윤장대라고 하여 예천 용문사 대장전에 2개가 봉안되어있으며, 고려 충렬왕 때 국태민안을 위해 법륜장(윤장대)를 돌린 의식을 봉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령 1백년이 넘는 인도네시아산 알마시카 木으로서 둘레가 5M 지름이 2m가 넘는 원목을 사용하여 문화재 목공장이 제작하였습니다.

신비의 영험있는 티벳 대장경 깐쥬르 108권을 티벳 라싸에서 직접 이운하여 법륜장에 모셨습니다.

※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며 안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회 장
정 병 욱(선암)



대표이사
정 광 무(법륜)
(문화재 기능보유자 149호)



담마차크라(법륜장 봉안법회)

(株)正因

본 사 : 대구광역시 검사동 990-198 청운빌딩 5층
전화 : 053-986-9200~2, 팩스 : 053-986-9202
야간 011-553-3004
서울지사 : 서울종로구 낙원동 243-3 경동빌딩 602호(해동불교대학내)
전화 (02)741-5210 핸드폰 011-506-0040

http://www.담마차크라.com
www.법륜장.com
www.윤장대.com
e-mail:dharmachakra@hanmail.net

법륜장각(法輪藏閣)



법륜장(法輪藏, Dharma Chakra Tripitaka)란 무엇인가?

법륜장, 경륜통 또는 윤장대輪藏臺는 인도나 티벳 몽골 불교에서 널리 경전신앙과 업장(業障)소멸 하업상하 그리고 조상천도등의 의미로 사용되어 온 일종의 불교의식 도구이다. 불교의식 도구와 경전신앙이 합쳐져 실천되고 있는 신앙형의 그 자체이다. 법륜장과 경전신앙은 어디까지나 일반신도들을 위하여 생겨난 매우 실용적인 신앙도구라고 하겠다.

특히 티벳 불교와 몽골불교에서 이 법륜장은 일반신도들에게 인기가있으며 절에가면 누구나 이 법륜장을 굴리므로서 신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디벳대장경 간주은 108권을 법륜장안에 봉안합니다